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内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㉗8131~9
本社直通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謂能捨惡,
根原已斷,
慧而無恚,
是謂端正。

위의 모든 악을 능히 버리어 그뿌리마저 끊어버리고 성내는 마음없이 지혜로우면 이것을 일러 단정 이라할수 있다.

<法句經>

學生會 豫算案小委서 通過

流會거듭, 會則 14條 적용

第2期 總4百餘만원 規模

財政分科委 上程案 無修正

74학년도 第2期 總學生會 豫算審議를 위한 小委員會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총학생회 제1회의실에서 열려 財政分科委員會(위원장=林郁相・政外・3)가 편성, 심의 상정한 총예산 4백44만36원을 통과시켰다。各部別 計劃에 따라 財政分科委서 上程, 통과된 이번 예산은 지난해 2期예산 2백80만2천1백원보다 1백63만7천9백36원이 더 증액되었다。

당초 총학생회는 제2기 예산심의를 위해 지난 10월8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한데 이어 10월15일, 11월11일등 3차에걸쳐 소집된 대의원총회까지 유회되어 예산심의가 무기연기되어 오다가 이날 小委서 통과를보았다。

소위원회는 학칙에 의해 각단대별 2명, 여학생회 2명, 교양학부 2명, 재정・운영・학술분과 위원회 의장, 부의장 6명등 총24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수 있게된다。

이날 예산심의를위한 소위는 총24명중 과반수가 넘는 13명이 출석, 예산안을 놓고 심의도중 진행과정에서 집행부와 대의원사이의 예산심의에 관한 이견차이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날 異見內容은 집행부에서는 上程예산을 일단전체적으로 통과시키며 각분야별 심의는 결산시에 하자는 주장과, 대의원들은분야별로 심의를 마친뒤수정통과시켜야 한다고맞섰다。그러다가總團측에서대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수정없이통과시키기로 합의를보았다。

이날 통과된 74학년도제2기 總學生會 예산세목은 다음과같다。

▲총무부=16만1천4백원▲학예부=19만2천원 ▲공보부=13만2천원▲봉사부=11만2천원▲응원부=6만2천원▲농어촌연구부=12만6천원▲학술연구회=8만원▲동국사상연구회=6만원▲대의원회=39만5천원▲단대행사및 수용잡비=1백16만2천9백원▲리더쉽워크샵=10만원▲봉사활동순회비=4만원▲총정부의장활동비=15만원▲졸업생기념품비=20만원▲교내환경미화비=30만원▲학술예술보조비=40만원▲특강보조비=5만원▲인쇄비=10만원▲학생회관및 학생회의실관리및 미화=9만5천원▲예비비=52만1천7백36원

오대산 演習林개발

農林大 5個年 計劃確定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새마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農林大(學長=權雷澤)는 오대산(江原道 명주군 연곡면 三山里소재) 연습림을개발할 계획이다。

農林大에서는 오대산의15만2천7백37ha에 상당하는 林野를 개발하기 위해 5個年계획(74年~78年)을수립했다。

이 개발계획은 農林大의 기술분야별 교수진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林野의 企業化、農地개혁에 의한 農產物증산、축산업의 개발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추진할 예정이다。

오대산 演習林개발 5個年계획의 구체적 내용은①營林계획을 實施、활엽수목의 경제적 이용도 증가、②高嶺地域에 약초「호푸」등 경제작물재배 ③韓牛、山鹿등 야생동물의 人工사육을 실시하는 것등 天然林을 生產性있게 活用할계획이다。

한편 農林大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을 農業、林業、축산업등 分科別로 나눠 專攻교수들에게 연구조사및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李瑄根총장의 學校不動產을 生產性있게 活用하기위한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다。

또한 李총장은 지난 10월23、24 양일간 公報실장、財團事務局長을 대동하고 밀양 표충사 演習林을 답사했다。

밀양 표충사의 8百여정보의 演習林을 시찰한 李總長은「사자평」고원을 낙농단지로 개발하기위해 관계전문가도 대동했었다。

李총장은 現地에 專門家를 보내 답사한 결과 목축적지로 판단되어 빠른시일내에 목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차관도입도 고려중이다。

宗敎學硏究의 必要性

人間의 宗敎的 地平확대 위해

學界의 焦点

李珉容 <佛敎大・印哲科講師>

기독교 神學者들 가운데 神學上의문제를 놓고 宗敎學的 立場에서 接近을 시도하고 있음은 주목될만한 현상의 하나로 지적하고싶다。組織神學者에게 宗敎學이 과연 어떤 意味를 띠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Paul Tillich)은 神學에 또하나의 새로운 方法論을 채택하는 일 이상의 깊은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組織神學이라면 기독교神學의 가장 核心的인 體系라 할 수있는데 組織神學者들이 宗敎學에 관심을 갖기시작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傳統的 神學體系의 커다란 變化내지는 동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신학은 기독교이외의 종교들을 거부하는 일은 물론, 오늘날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神없는 神學(Theology without God)', 비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역설적 이론이나 세속신학(Theology of the Secular)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었다。칼・발트(Karl Barth)는 현대에 와서 이런 주장의 기수가 되었지만 신학상의 이러한 배타주의는 기독교의 역사로 되어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따라서「기독교밖에서 救援을 찾는일은 무조건 포기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어떻게 보면 神學의 本質을 그대로 言表한 발언이라 생각할 수있다。啓示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宗敎들이란 神에게 이르려는 무의미한 인간의 시도로 간주하는 神學이 諸宗敎를 同一線上에 놓고 그 어떤 宗敎에도 우월성을 주지 않는 宗敎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큰 變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독교의 입장에서 相反된 위치에 있는 諸宗敎들, 특히 原如宗敎、類似宗敎、新興宗敎로 지칭되는 종교들에게서 들어나는 종교현상을 어떻게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른바「宗敎」라는 어휘가 지시하던 협의의 개념규정에서부터 벗어나 포괄적인 의미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수 있겠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내포하고 있다。종교라는 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할때 역사적으로 그것은 기독교만을 지시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더개방적으로 사용한대야 몇개의 高等종교들을 가리키는 말로사용될 뿐이었다。

宗敎學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폐쇄적인 종교에대한 관점을 확대시켜주고 또한 원시적인 인간활동에서부터 가장 深化된 인간의 가치의식까지 포괄하여 인간의 종교적인 地平을 넓혀주고 있다。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宗敎學은 우선적으로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종교현상에대한 規範的인 연구와는 달리 모든「先驗的인 規定」을 배제하는 것이 종교학이다。곧 종교적인것의 진리성이나 가치를 판단하려는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실천들、교리이거나 선언이거나 儀式이거나간에 그속에있는「종교적」인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宗敎學은 當爲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려는것이며 따라서 가능한 宗敎現象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當爲의 입장이란 神學體系나 敎學體系를 의미하며 그것들은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규범적인 학문인 것이다。이에 비해 종교현상을 단지 묘사하고서술하고 정리하며 이 모든 종교적 사실속에서 종교경험과 표현의 <型>과 構造를 구분하고 그 형과 구조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것이 宗敎學이다。

따라서 神學도 이러한 宗敎學的 관점에서 볼때 다른 宗敎와 함께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 제시될 뿐이다。기독교 神學만이 아니라 佛敎敎理體系내지 敎學 역시 그와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곧 그들은 무수한 宗敎現象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때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하며 기독교만의 것으로 생각하는「啓示」마저도 일반적인 종교현상의하나로 해석되며 구원은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啓示의 체험은 보편적인 인간체험이고 종교란 어떤 상황에서 생활하던인간에게 주어진「그 무엇」에 근거를두고있다。인간에게는 救贖力이 있는 특별한 체험인 啓示가 주어지며 이 啓示와 救贖은 분리될 수 없는 表裏로 관계를 갖는다。그런데「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계시와 구속의 힘이 있으며 絶對者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증명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그의 유한한 인간 상황을 통해 계시를 받아 들이다。生物學的으로 心理學的으로 또는 社會學的으로 인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바로이러한 조건속에서 인간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한 일그러진 형태로 啓示를 받아들이게 된다。그러나 종교가 그 자체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로 이르는 하나의 수단 이기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계시란 바랄직한 것이지、필요불가결의 것은 아니다。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啓示들이야말로 人間에게 顯現되는 絶對者의 모습이다。이러한 啓示의 顯現은 어느 宗敎에서나 찾을 수가 있다。따라서 神學의 體系는 기독교만의 것일수만은 없고 모든 종교의<神>學의 體系는 가능한 것이다。

한편 계시는 역사밖에서、곧 文化史밖에서 나타나는것도, 문화사와 나란히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계시를 달리 말해「聖스러운것(The sacred)」이라 할때 이 聖스러운것은 世俗的인것「밖에」존재하지 않고 성스러운것은 세속적인것의「깊이」로 생각되는 것이다。聖스러운것은 실로 創造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세속적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수있는 유일한 표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자기자신의 종교나 신앙에대한 자기비판의 수단이 되어야하지 다른 世俗的인것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된다。곧 자신은 경건하고 聖스러우며 다른것은 모두 俗되고 더러운것이라고 비판하는 選民意識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啓示에 대한 이러한 종교학적인 해석은 전통적 神學에서 볼때 이단으로 지탄받기 충분한 이론들이다。문제는이러한 이론을 거부하면 해결될지 모르나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여건들 때문에 조직신학에서 마저 문제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無神神學이거나 神은 죽었다고 하는 발언은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神學體系를 전면적으로 무너뜨리는 주장이 아니고 새로운 神學、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局面을 열어주는 건설적인 발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의 焦点에 올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폭넓게 받아들일 때 神學은 폐쇄적인 자기 독단에서 구제될 가능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한편 佛敎의 입장에서 종교학을 생각할때 神學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있다。「特殊宗敎로서의 佛敎」란 標題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佛敎敎理밖의 것을 異端視하려는 인식은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 태도이다。또 불교를 그런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도 작지않다。佛敎學자체의 포괄성과 탄력을 위해서도 佛敎理解에 있어 종교학적 접근은 무척 요청되는 일이라 지적하고 싶다。

產業視察・法會도

行政大學院 學生會

행정대학원 학생회에서는 지난11월 2、3양일간산업시찰과 야외법회를가졌다。

지방행정실태조사를 겸한 이번 행사에는 申宗淳행정대학원장을 비롯 교수다수와 金華澤학생회명예회장등 대학원생 1백여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경기도청에서 도정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다음 동대학원 金正雄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龍仁 한국민속촌을 관람하고、이어 경인중공업단지를 시찰했다。

3일에는 산업시찰단 전원이 합류한 야외 법회가 불교연구부장 王彦康스님이 주지로 있는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렸는데 高光德스님의 설법을 들었다。

第12回 學術賞施賞

朴世泳君등 6名에 賞金도

本社制定 第12回 學術賞은 人文社會科學・自然科學・創作文學 3개분야에서 모두 本賞을 내는등 푸짐한 成果를 거둔가운데 지난11일 總長室에서 施賞을 마쳤다。

이날 시상식은 李瑄根總長을 비롯 金仁鴻교무처장과 韓相範학생처장・宋赫本社主幹과 朴世泳(農生・4)君등 本賞및 장려상 入賞者 6名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賞狀및 賞金을 수여했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受賞者들에게 本社 學術賞을 수상한 많은 同門이 韓國文壇과 學界에서 이룩한업적이 至大함을 周知시키면서『특히 自然科學分野에서 많은 受賞者가 나온 것을 치하한다』고 말하고 계속 學究에 專念하여 훌륭한學者가 되라고 격려했다。

이날 受賞者들에게 지급된 賞金은 本賞에 各3만원、奬勵賞에 各 1만원씩이었다。

第12回 學術賞 入賞者 발표

本社制定 第12回學術賞의 審査結果 아래와같이 6名이 本賞및 奬勵賞에 入賞하였읍니다.

지난10月15日 作品을 마감, 個別審査및 綜合審査를마친 이번 學術賞은 特히 3個 分野에 골고루 本賞이 나오는 豊盛한 수확을 記錄했읍니다。앞으로도 많은 聲援있기를 바랍니다。

◇人文社會科學分野

本 賞=延基榮 (法政大法學科4年)
「環境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奬勵賞 해당작 없음

◇自然科學分野

本 賞=朴世泳 (農林大 農生科4年)
「菜蔬의 不適地에 대한 微量元素의 效果에 對하여」

奬勵賞=李銀叔 (師範大 科敎科3年)
「서울市内 家庭의 衛生狀態調査」

朴昞榮 (師範大 數敎科3年)
「中等數學에서 群의 槪念指導」

◇創作文學分野

本 賞=馬淑鉉 (文理大 國文科4年)
詩「가마미 詩帖」

奬勵賞=高鍾觀 (佛敎大 印哲科1年)
戱曲「꼭둑각시의 죽음」

◇審査委員

▲人文社會科學分野=韓相範 (法政大)
▲自然科學分野=金熙坤 (農林大) 孔泰勳 (農林大) 崔德熙 (文理大)
▲創作文學分野=徐廷柱 (文理大・詩) 張漢基 (文理大・戱曲) 吳學榮 (作家・小說)

1974年 11月 9日

東大新聞社

75年명예위원

본교 112학군단(단장 朴三巖大領)에서는 지난11일 75년도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자치위원을 다음과같이 임명했다。

▲위원장=이이규(수학・3) ▲S-1(인사장교후보생)=김진득(체육・3)▲S-2(정보장교후보생)=조정호(고공・3)▲S-3(작전장교후보생)=윤극서(농학・3)▲S-4(군수장교후보생)=김종선(工經・3)

放學中도圖書대출

본교 中央도서관은 앞당겨 온 한파에 대비、열람실에 난방시설을 가설하고、학생들의 도서이용도를 높이고있다。또한 도서관당국은 동기방학중에도 평상시와 같이 열람실을 개방하며 아울러 도서대출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冬季農村 實習실시

農林大生 一部 1個月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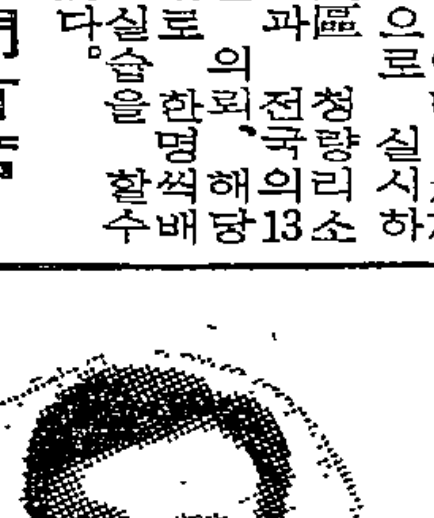
農林大 3・4年生들의 冬季농촌실습이 오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실시된다。이번실습은 하계실습때 有故學生、영농장학생、2학년중 영농장학금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총 24명이 참가한다。

實習時에는 各學科의 주임교수가 순회지도하게 되고 실습에 대한 종합평가회는 오는 12월20일에 개최될예정이다。실습대상지역은 독농가、영농지도부락및 임업시험장이다。

農林大에서는 이번 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해 東大門區 청량리소재 임업시험장과 전국의13개군에 부락별로 의뢰、해당학생을 한명씩 배치、효율적인 실습을 할수있도록 했다。

李敦熙同門首席

土地評價士合格



李敦熙同門(69年・商科卒)이 지난6일 發表된 建設部시행 第2回 토지평가사 면허시험에서 第1次首席및 最年少合格을 차지했다。

「土地評價士」란 國土利用管理法에 따라 채택된 제도로서、主業務는 政府가 地價告示制에 따라 基準地價를 告示해야 할 必要가있을때 公共施設用地買收때 토지의 취득가격을 평가하거나、수용때 補償費算定基準을 策定할때 유권적으로 調査・評價하는 일을 하게된다。

師範大팀 2連覇

第4回 敎養學部 體典

지난8일 終了된 總長旗쟁탈 제4회 敎養學部體育大會에서 師範大팀이우승、작년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축구・배구・농구・씨름등 4종목에 걸쳐 各大學間에 각축을 벌인 이번 大會는 지난달 30일 씨름競技를스타트로 開幕、8일 배구를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를 마쳤다。

同大會는 陸上경기까지포함되어있었으나、代議員會에서이를 취소、4종목만겨뤘는데 師範大팀이 우승을하고、2위는 經商大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정오 李瑄根총장을 비롯、李丙疇교양학부장과 職員・學生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양학부도서실에서 거행되었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격려사를 통해『건전한 學究生活은 건전한 身體단련에 있다』고말하고、敎養學部生의 體力向上을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綜合順位
▲1位=師範大(610점)
▲2位=經商大(340점)
▲3위=法政大(290점)
▲4위=農林大(270점)
▲5위=工科大(200점)
▲6위=文理大(150점)
▲7위=佛敎大(100점)

◇本社학술상 入賞者시상광경。

法堂建立 基金 접수

佛大 法堂 建立委 12日 현재 接受分

▲조경은(佛敎科3)=2천원
▲김주찬(哲學科3) 진영유(哲學科3) 최진원(佛敎科3) 전명철(印哲科3) 김종섭(佛敎科3) 유연식(〃3) 박일승(僧伽科3) 박지상(僧伽科3) 안영모(哲學科3) 오현옥(僧伽科3) 이기성(〃3) 남준(〃2) 전명자(〃2) 전학란(〃2) 황진우(佛敎科3) 이준표(政外科4) 한태식(佛敎科4) 김무생(〃3)=各5백원
▲이일오(僧伽科2) 유재호(農學科1) 김영준(印哲科2)=各3백원
▲지규봉(佛敎科3) 장현재(〃4) 한성숙(農生) 조명희(史學科) 최영돈(工經科) 김상용(哲學科1) 이돈혁(行政科3) 김종수(〃3) 박봉기(警行科1) 이근학(英文科4) 김상덕(經營科3) 양대송(法學科3) 박희찬(工大) 우진한(工大3) 장숭혜(家敎科1) 임성숙(〃2) 이희용(佛敎科4)=各2백원
▲김대현(土木科2) 外 73명=各1백원

◇小計=2만7백원
◇累計=52만3천8백40원

<接受處・本館2층>

韓國食品科學會

本校서學術發表

韓國食品科學會 제13차學術發表會가 지난9일 本校工大 세미나室에서열렸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이발표회는 많은 學界人士와 몇몇 外國人들이 참석한가운데 오후5시까지 계속되었는데、特別講演과 學術講演 두 파트로 나뉘어서 進行되었다。

특히 특별강연에서 韓文熙씨(KIST 應用生化學硏究室)는「酵素에依한 天然甘味資源의 開發、特性및利用」이라는 주제로 硏究內容을 발표하여 주목을받았다。이 발표에서 韓씨는 甘味料의 需要急增과 세계적인 原糖需給의 불황은새로운 甘味資源의 개발을촉진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實驗結果를 발표했다。

학술발표 주제와발표자는 다음과같다。

▲變質米에서 분리된 毒素生成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최언호씨외2人) ▲製品간장에서 분리한 產膜酵母에 관한 硏究(宋永河씨외3人) ▲魚貝類를 중심으로한 食品의 Lysine含量(金仁洙씨외2人) ▲火力乾燥 고추의 품종에 관하여(金恭煥씨외1人)등 11個主題。

奉仕活動基金마련

道詵寺서 一日茶房

유네스코 學生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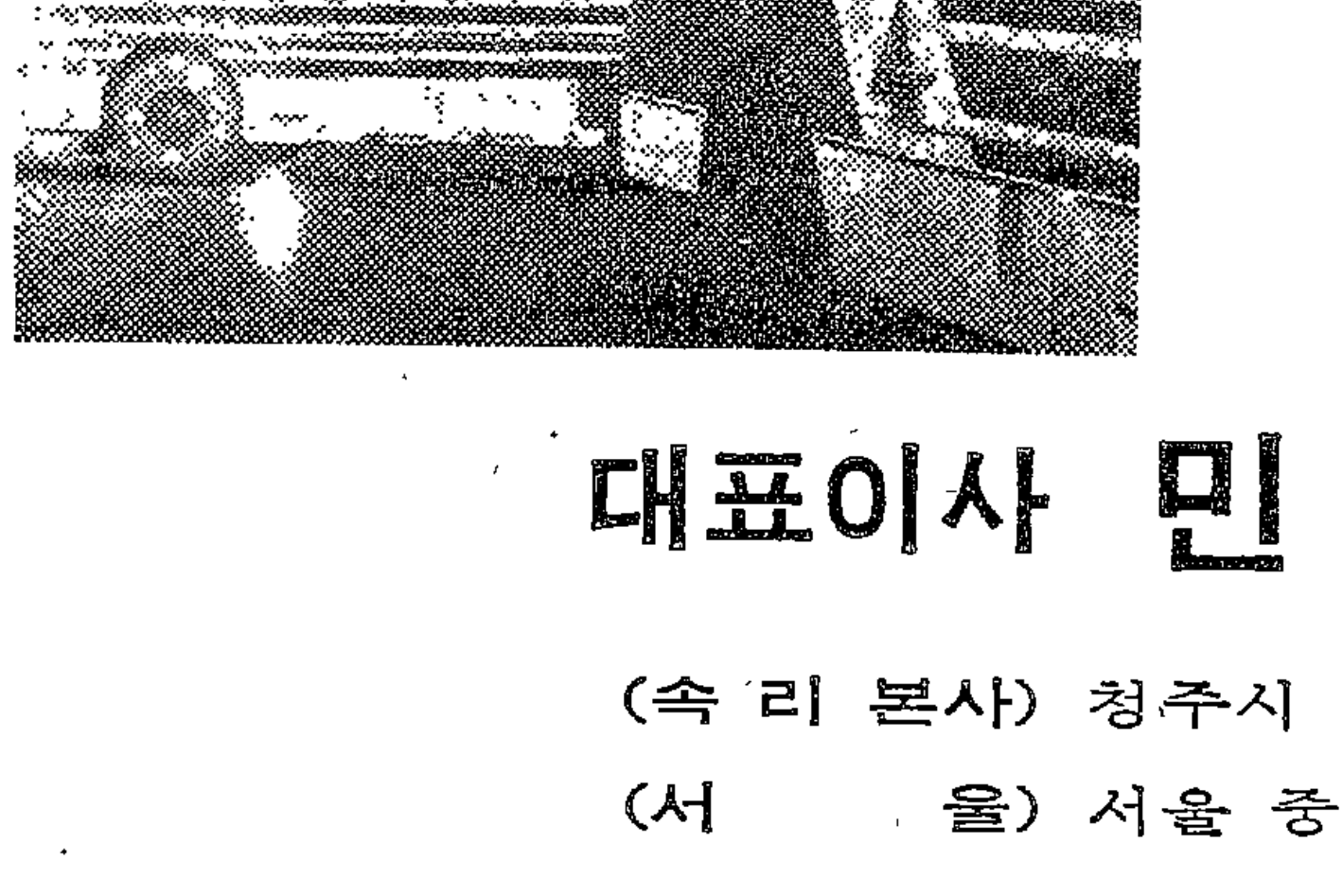
본교「유네스코」학생회(회장=정병철・화공2)에서는 1학년 부원주최로 오는16일(土) 오후2시 道詵寺에서 山寺생활겸 봉사활동기금마련을 위한「일일다방」을 경영할 예정이다。

주말등산객을 상대로론을 여는 이날의「1일茶房」에서는 커피만을 일반다방과 같은 값으로 팔게되며 지도교수(목철우・佛敎)도 참가한다。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日本 愛知(아이지)와 技術提携
韓進鐵鋼工業株式會社
▲鐵製用品 ▲鐵鋼材建築用・工業用販賣
▲鐵製 學校學生講堂用 책상・의자・專門
代表理事 黃慶石
(本社) 서울中區山林洞136~2 ☎㉗4444~6
(工場) 仁川市北區曉星洞655~13 ☎⑤4444~6

속리산 관광 주식회사



속리산 관광 고속

속리산 관광 호텔

대표이사 민경인
(속리본사) 청주시 서문동 157~14 ☎2513・2514・5376
(서 울)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141 ☎㉖9097・0859
(속리산호텔)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98 ☎21・25(교)

大學의 考査制度

社說

지금 全國의 各大學에서는 休講中인 一部大學을 제외하고 대체로 第2學期末 學業評價를 준비하고있거나 進行 또는 完了하고 있는듯하다.

우리 大學人이 그러한 評價를하기위한 考査를 할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果然 한두장의 시험지에 나타난 것이나 몇장의「레포트」를 가지고 올바른 評價를 할 수 있겠느냐는 問題이다.

筆答考査方式에 의한 評價制度를 택할 때는「幸運」이 작용할 수 있다. 主觀式 筆答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체로 한두문제만이 出題되는바 이럴 경우 該當問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不幸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客觀式 筆答의 경우는 행운이라는 偶然性은 더욱 많아진다.

「레포트」에 의해서 學業評價를하려할 때는 다양한 資料의 蒐集과 그것을 活用한 主張과 論理의 體系化를 할 수 있어서 敎育的 効果도 얻을 수 있고 學業評價도할 수 있는 一擧兩得의 利點이있다. 그러나 特定의 書籍을 複寫하거나 代筆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필답고사제도와「레포트」제도가 지니는 缺陷을 克服할수 있는 것으로서 平常學習活動評價制度가 채택되고 있다. 이 制度는 다른 제도가갖는 偶然性, 代行性, 幸運性, 複寫등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수가 少數일 때와 大學院이나 高級學年에서 실시되는 세미나形式의講義일 때에만 實効를 거둘 수 있다는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학업평가를 위한 諸制度는 各己 長短點을 지니고 있고 또한 어떤것은 특수조건에서만 効用性을 지니고있기조차 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의 敎務當局에서는 필답고사가아닌 레포트方式과 같은 것을 달갑지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각 方法이 갖는 독특한 장점을 沒理解한 데에서 나온 結果일 것이다. 필답고사위주의 學業評價는 대학생의 便宜主義와 결부되어 受講한 노트만을 외우게 하여 卒業後에도「글을 쓸 줄 모르는 半知識人」을만들어왔던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떤 主題에 대한 論說을 體系的으로 展開시키지 못했다면 대학교육 그 가운데서도 意見을 表現하는 機會로서의 試驗制度에 큰 問題點이 介在한다고 보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考査制度는 諸方式의 적절한 混用과 境遇別의 相異한 制度의 採擇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入學을 위한 考査方式에 있어서는 多數人에 대한 平等得點機會의 賦與라는 점에서 객관적 필답시험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主觀式 筆答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을 위한 考査方式이나 大學院의 考査에 있어서는 論文(레포트)을 통한 것이어야 所期의 目的을 보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一般在學生에게 課하는評價方式에 있어서는 筆答試驗과 레포트및 平常學習活動評價가 倂行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高級學年의 경우 下級學年의 경우보다 레포트가 중요시되어야 할것이고 客觀式보다는 主觀式이 중요시되어야 할것이다.

결국 大學에 있어서의 評價(考査) 方式은 어떤 特定方式만의 爲主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方式에 보다 比重이 두어질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여러方式이 混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하여 特定의 方式이 내포하고 있는 缺陷을 가능한限 排除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評價(考査)方式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管理하는 學校當局과 評價者나 그것에 임하는 被評價者의 철저하고도 성실한 態度가 없다면 制度의 實効는 크게 줄어 들고 말것이다.

試驗問題가 該當科目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서 評價된 結果는 核心軌道에서 벗나간 것이 되고말 것이다.

그리고 問題의 印刷와 保管, 回收過程에서 어떤잘못이 있다면 評價를 無意味하게 하고 말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被評價者의 態度이다. 不正한 方法으로 實力以上의 認定을 받으려한다든지 어느 一個人의 글을 複寫하여 論文으로 제출한다든지 하는 現象이 大學社會에서 잦게 일어난다면 이것이야 말로 大學과 大學人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不正한 方法으로 評價된 結果에 의해서 奬學金의 惠澤까지 받는 事例가 있다고 假想할 때 이는 當事者個人에게 있어서는 平生의 苦惱의 契機가 될것이며 大學에 있어서는 權威의 喪失을 가져오게 하는 중대한 問題일수 있다.

그런點들을 생각할때 個個人이지니고 있는 該當分野(科目)에 대한 綜合的 實力을 올바르게 評價할 方式을 開發, 採用하여 그것을 가장 科學的으로 管理하면서 不正이 없는 明朗한 考査가 되도록 모든 대학인의 知慧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學業評價研究委와같은 것이 잠정적이나마 設置되어評價制度全般에 관한 方案을 研究, 提示해 봄직도 하다.

共通의 意味

張庚鶴 <法政大學長·法學博士>

大學閑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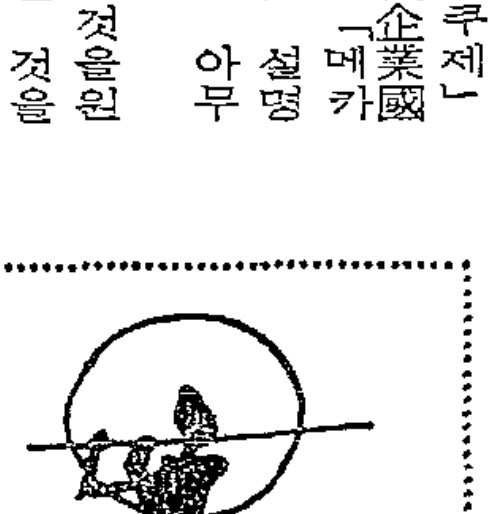
며칠전 朝日新聞에서 音樂評論家 吉田秀和의「日本人과 音」이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피아노를 연습하던 學生이「소란을 피운다」고 制止하는 母女3人을 나이프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은후부터 피아노를 연습하는 日本人은 이 살인사건이 생각이 나서 제대로 연습이 안될 것이라고 쓰고있다. 그밖에도 스테레오의 소음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발적 傷害事件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보통 알기에는 音樂은 고독한 사람의 혼을 위로해 준다. 사람과 사람을連結해준다. 그러나 이제는 음악도 原初的인 메디아의 구실을 상실해 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都市가 발달하고 農村이 파괴되어 공동체가 무너졌기때문에 인간의 귀로부터 음악의 共通의 의미를 빼앗아갔기때문이 아닌가고 결론을 내리고있다.

文明의 發達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으나 한편 인간으로부터 많은것을 빼앗아 가기도했다. 人間은 많은것을 상실했다. 왜 이렇게빼앗아가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答해주려고 꾀한것의 하나가 찰스·A·라이히著「美國의 綠化」(黃文秀譯「意識革命」1974年·文藝出版社)이다. 라이히敎授는 現在 예일大學에서 公法學을 가르치고있는 법학교수인데, 이저서에서 전개되는 文明評論으로 미루어볼때 그의 視野는「마루쿠제」를 넘어 상당히 광범하다. 現代企業國家가 人間으로 부터 奪取해가는「메카니즘」을 그는 代替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滿足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팔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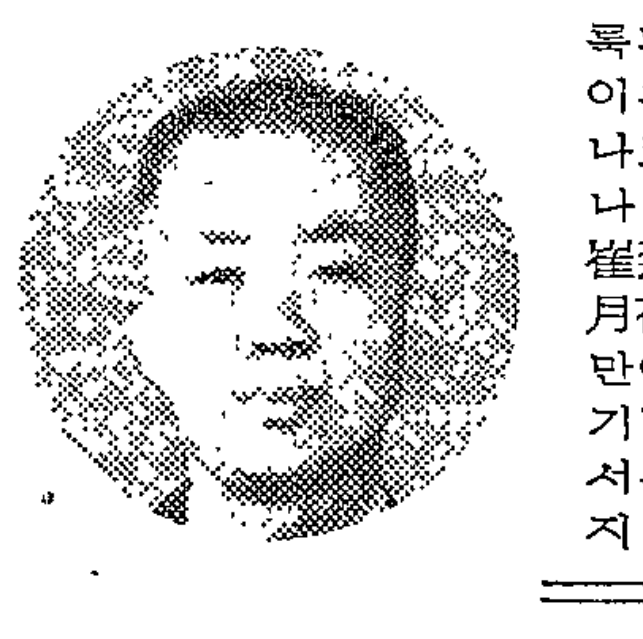
그러므로 人間으로 하여금 새것을 원하도록 만들거나, 그가 갖고있는 것을 빼앗고나서 그대신에 다른 물건을 팔아야한다. 自然的 體臭를 즐기지 못하게하고나서 防臭劑나 香水를, 팔아야한다. 日常生活에서 모험을 제거한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放影되는 制作된 모험으로 代替한다. 어른은 육체적 운동을 즐기기 어렵게 만든 다음에「스타디움」에 자리를 마련하여 프로경기를 구경하게 한다. 요리할 時間的餘裕를갖지못하게 하고서「인스턴트」食品을 판다. 보행이 安全을 保障하지 못하게하면 自動車는 팔린다. 自然環境을 人工環境으로 대체시킨다.

「몬산트」會社는 蹴球場을 위해 풀보다 좋은 나일론製 잔디를開發하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해도 진흙이 될수없다. 유니폼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대신 人間은 大地와 生物에 대한지식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疎外되고 그 위에 세워졌던 共同體가 무너지고 인간상호간의 유대가 끊어지고 孤獨한 한개의 原子的核으로 分散되었다. 따라서 음악에 대해서도 서로 共感을찾을수없게되고 斷切의 시대가 온것이다. 父子間·師弟間·老幼間의 단절을말하게 된다. 피아노의 音이 다시 감미로운 멜로디로들리며, 師弟간에 對話가 이해의 共通點을 다시 찾을수 있는길은 무엇일까. 빼앗지 말고 주는날은 오지 않을 것인가.

新羅 聖住寺는 그 말기인 9세기 중엽에 이르러 오늘의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에 건립된 신라의 명가람으로서 그 山號는 崇嚴이라 하였다 이 성주사 또한 신라불교가 下代에 이르러 地方山林으로 전파되면서 이록된 도장의 하나로서 이른바 禪山九門의 하나로 일컬어왔다·그러나 그 유허에는 오직 崔致遠撰인 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국보8호)만이 기록에 남았을뿐 기타의 塔像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주목을받지 못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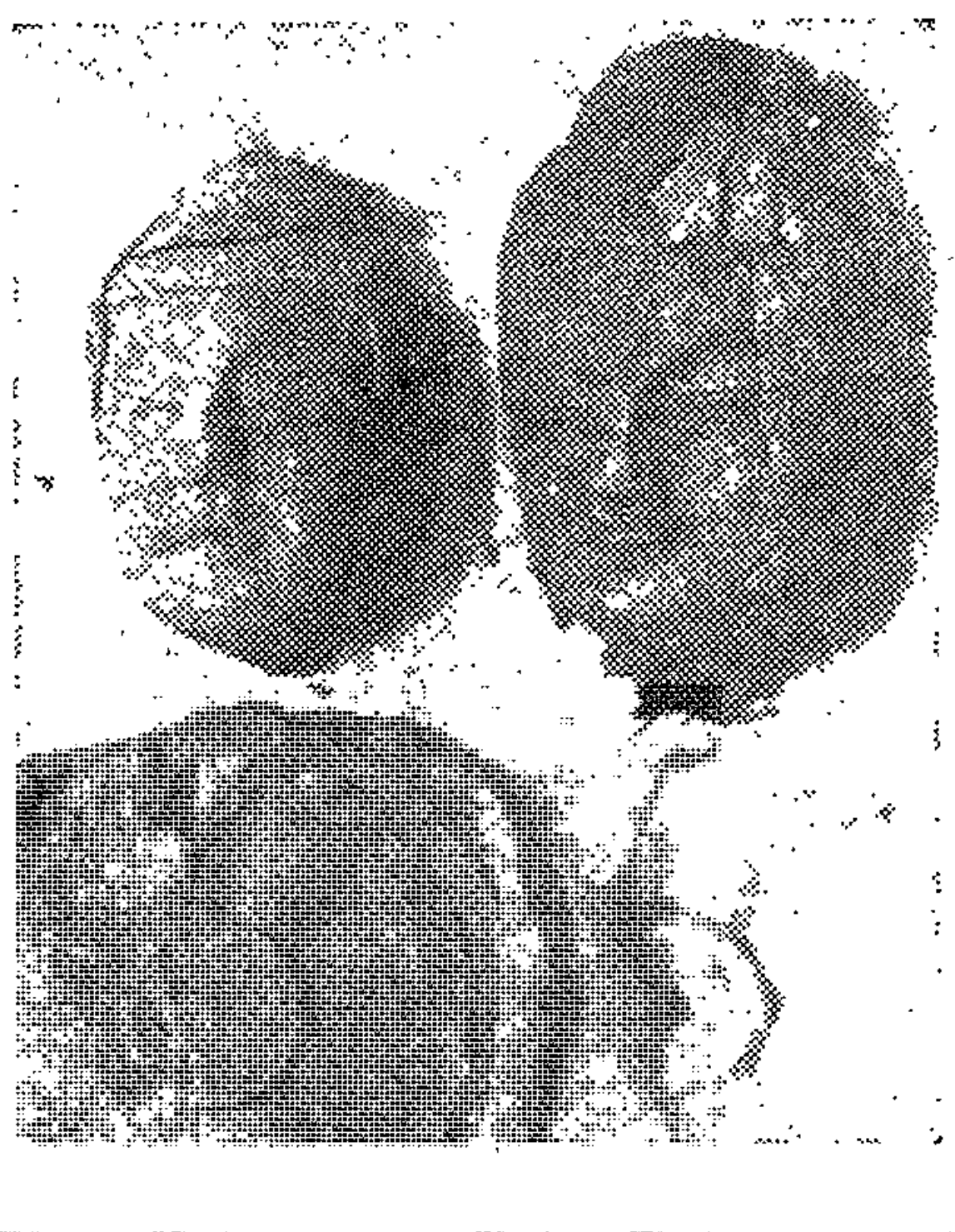


新羅 聖住寺「三千佛殿」의 發掘

黃壽永 <佛敎大교수·박물관장>

<1>

古代의 큰 가람의 터는 교통이 불편한 깊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버림을 받아왔던것도 사실이다. 일찌기 이곳을 도장으로 삼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어 왔던 法燈은 아마도 조선조 초기에 이르러 마침내 꺼지고 말았던 것이다.



◇聖住寺址에서 나온 土佛머리와 蓮花紋이 새겨진 圓瓦當

<2>

이같은 古代寺址로서 地表에서 전래하는 유물은 거의가 석조물로서 탑상등이 중심을 이룬 사실은 위에서 들은 바와같다. 그러나 이들 조형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인 주목이 있은것은 금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특히 해방후에 이르러 이곳에 유의하는 몇사람이 있어서 이곳을 찾았으며 필자 또한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古代에 대한 연구는 첫째 그대상에 親熟되어야하며 그해명을 위한 관심과 정열을 지녀야할 것이다. 그를위하여서는 오랜시간이 흘러야만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를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고 着眼된다고 생각한다. 이곳 성주사를 처음 찾은 것이 해방직후였으니 그사이 4반세기가 흘렀던 것이다. 그사이 이聖住寺에 대한 필자의 주목과 새로운 着眼을 차례로 들으면 대략 다음과같다.

碑片·事蹟記文등 入手·發見이 動機

첫째 1960년대에 들어서 이곳 寺址에서 전래하던 破碑 二基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碑身은 모두 破碎되어서 散逸되었으나 그上下에 있었던 螭首와 龜趺가 現場에서 破材로 남아 있어 이들을 扶餘博物館으로 옮긴 것이 하나의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때 現場에서 수습된 碑片 2개편을 징빙으로 삼고 현존하는 상기한 낭혜화상비를 더듬어 破破 2기중의 하나가 신라의 金立之가 찬한「聖住寺事蹟碑」임을 알게되었다. 그리하여 일찌기 唐에 유학한바 있었던 金立之가 귀국후 一代의 文章으로서 신라 文聖大王대를 중심으로활약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의 遺文으로서는 이事蹟碑와 전후하여서 경주 昌林寺塔의 金銅板 造成記文이 전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시금 그에 碑文을 찾은 것은 奇緣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碑片은 그후에도 계속되어서 모두 4片이 이곳 들탑속 같은 곳에서 발견됨으로서 이 聖住寺의 前身이 百濟의 獻王太子인 法王에 의하여 이루어진 烏合寺임을 알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때를 같이하여 이곳 寺址에서는 百濟의蓮花紋이 새겨진 圓瓦當이 本校史學科 學生들의 답사에서 수습되어 박물관에 보관되기도하였다.

「百濟烏合寺터에 再建」증명돼

過去, 現在, 未來 각각 1千佛씩

둘째는 1968년에 이르러 위의 石碑 斷片이외에 사본으로된 事蹟記文이 필자에게 입수된것은 필자를 몹시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같은 사실이 곧 이곳 寺址에 대한 조사의 동기를 이루게되었던 것이다. 그 사적기는 오랫동안 智異山 華嚴寺住持를지낸 鄭秉憲스님이 그 입종 직전에 필자에게 전해준 것이다. 필자는 이때 급히 화엄사로 달려가 老僧에게 이사적기의 유래를 붇기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었다. 이것이 계기가되어서 이 성주사에 대한 관심은 가중되었으며 마침내 그해 가을에 이 사지에대한 제1차의 조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造形을 며상삼는 고고학이나 미술사 같은 새로운 학문이 문헌을 얻었을때 그 내실을 더욱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것도 없다. 이때 스님에게서 받은 이곳「崇嚴山聖住寺事蹟」에도 이절의前身이 백제의 烏合寺라는 것과 그 창건연대가 백제말기라는것도 기록되었다. 백제 창건에 이어서는 朗慧和尙의 住錫과 크게 절을 중창하여서 많은 법당과 탑상을이룩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주목된 것은 이곳에 三千佛殿 九間이 있어서 그곳에는 과거·현재·미래의 각 1,000佛씩 합계 3,000佛과 또 毘盧遮那 一大尊像을 안치하였다고 하였다. 이번에 발굴된것이 바로 이같은 三千佛殿이었으며 따라서 이곳서 수습된것이 그때의 三千佛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사적기는 이어서 이들이 모두 文聖大王이 造成한 願佛이라 하였으나 지금부터 약1천1백년이 넘는 조형들임을 알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기록이 얻어진 후 금년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늦은 느낌이 없지 않다. 그사이 71년경부터 이곳 절터에서는 土佛이 발견되어서 그 일부는 부여박물관과 민간에 수장되기도 하였었다. 그리하여 1차조사때 작성된 寺址의 實測圖面에서 그 장소와 유물의 存否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추정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다. 이번의 발굴에 앞서서는 이만한 前程이 있었으며 그를 위하여서는 문자 이외에도 物證의 수집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22일 본교 박물관의 조사단이 이곳 三千佛殿에 첫삽을 넣었던 그날에 이미 백제의 蓮花紋 기와와 신라의 塑佛片이 출토된 것은 이번 발굴의 성과를 예고하였으며 오랜 주목이 마침내 결실됨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10여일을두고 三千佛殿의 절반을 한정하여 발굴작업이 조용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습된 신라·고려의 많은 불상 이외에도 여러 장엄구와 이불전을 이어온 역대의 자료가 수습되어서 이 삼천불전의 역사를 말하여주기도 하였다. 그중에는 조선조 16세기에 이르러 金씨가 大施主가 되어서 이불전을 번와한 사실을 조각하였는데 그곳에도 뚜렷이「三千佛殿」이라고 쓰여 있었다. 오랫동안 찾았던 삼천불전이 틀림없었으며 그사이의 작은 勞苦에 대하여 적지 않은 보답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끝으로 발굴에 수고한 文明大강사와 여러학생들에게 감사하는바이다.

徐京保博士와 한때

휴게실

美國의 佛經英譯에 큰役割

4個國語로된 目錄, 國內 제작중

"禪의 受容태도 多樣"

高麗大藏經의 英譯作業이 美國과 韓國學者간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美國 캘리포니아大學의「랭카스터」博士와 동대학에서研究에전념하고있는 朴性焙동문(本校교수역임) 등이 본교徐京保博士(佛敎大學長)의 협조로 작성한 大藏經目錄발행으로 스타트ㅡ. 랭카스터敎授는 大藏經英譯計劃을 위한 目錄作成과 資料수집을 위해 두차례나 訪韓한적이있다. 徐學長은 지난8월 美國巡廻布敎時 이목록을國內에서 제작하기로하고 原稿를 가지고 왔었는데 현재 出版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大藏經목록은韓國語·梵語·英語·中國語로되며, 經典별로 간단한槪要를 결들여 世界최초가 되리라는 것. 目錄제작을 서둘고있는徐學長은『大藏經英譯도 현재 美國에서 진행중에 있으나 그 분량이방대하여 수십년이걸릴것』으로 내다봤다. 美國巡廻布敎時에는 徐학장이 영역한 몇개 經典과 著書를 이용했다면서 佛敎의 세계화를 위해선 英譯作業이 긴요하다고 力說한다.

◇「佛敎의 世界化를 위해 大藏經의 英譯作業이 시급하다」고 力說하는 徐佛敎大學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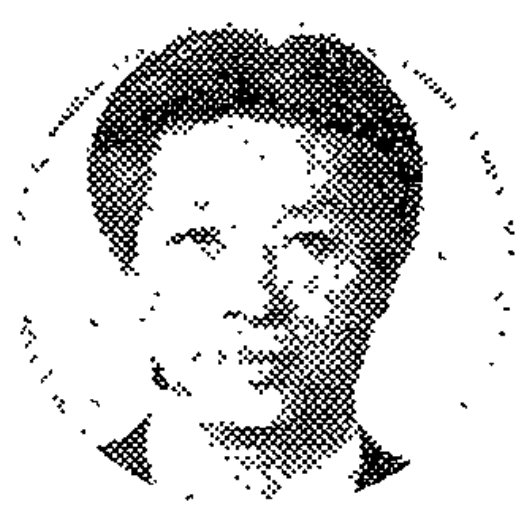
徐學長은 지난 8월21일부터 9월2일까지 美國순회포교를 했었다. 당시 5회의 강연회와 3회의 授戒式, 特別坐禪法會를 주재했던 徐박사는「美國人의 불교에관한 관심은 禪에 집중되는것 같다」고 말한다. 禪佛敎, 禪哲學, 文學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禪은 西洋의 어느 分野에도 없었던 것이므로 自由분망한 그들에게는 禪이 빠른속도로「크로즈·업」되고 있다는 것. 美國의 젊은이들은 既成秩序의 극복을 禪에서 찾고 있는것 같단다. 『最近에는 學問이나 藝術分野에까지 禪思想이 가미되어 禪에바탕을 둔 學問이나 藝術을 창조하려는 운동까지 일고있다』고 최근의 추세를 말한다.

徐博士는 佛敎를 배우고 연구하고자하는 사람을 위해 오랜布敎活動의 경험을토대로 최근「徐博士와 佛敎敎理問答」을 출판했다. 이책은 人生觀과 宗敎觀·坐禪要法·座右銘·藝術觀·哲學論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佛敎入門問答講話」와 禪師의뜻을 알기쉽게 해설한「歷代禪師의 敎理問答」, 敎理一般에 대한「佛敎敎理一般問答」을 合本한 것이기도하다.

徐博士는 지난 7월 약10일간 홍콩佛敎僧伽聯合會의 초청으로홍콩을 방문, 그곳에서 名譽宗正으로 추대된적도 있다. 당시 徐學長은 석가여래 眞身사리를 기증받았는데 現在 佛光洞에 있는 天幹寺에 진사사리3과를 봉안했다. <具>

「컴퓨터시스템」의 比較

安思明 <經商大교수·電子計算所長>



「소프트웨어」의 開發 시급

프로그램의 使用方法 개발도

오늘날 Computer Science는 컴퓨터 시스템쪽에서 보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 두 분야에 대한 개발을 위한 연구의 비교는 75대25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Software) 개발이 그만큼 하드웨어 (Hardware) 개발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컴퓨터活用에 대한 經濟性이 따르기 때문이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개발을 위한 연구의 과제와 그방향은

①「컴퓨터 시스템」에서 볼때「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이며「소프트웨어」에서는 Programming Language, Op rating System, Data Bases, Data Structures, File Organization, Graphics이고「하드웨어」에서는 Architecture, Circuit Theory, Networks, Peripherals 이다.

②Theory of Computation에서 볼때 Finite State Machines, Programming Linguistics, Language Theory, Numerical Methods, Computational Math이다.

③經營學 (Management) 에서 보면 Managerial에서는 Accounting and Finance, Source of Data Management Uses 이고 경영학에서는 Organization, Planning, Control이다. Data Base Management System에서는 Management Application, Fieldwork, Survey이다. 또 Simulation에서는 CSMP (Continuous System Modeling Program) DYNAMO (Dynamic Model) GPSS, SIMSCRIPT 이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Programming Language의 개발은 Scientific에서는 FORTRAN (Fomula Translation) ANGOL 60 PL/1 (Programming Language One) Assembly이고, Commercial에서는 COBOL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 PL/1이다. 또한 시스템에서는 PL/1 Assembly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22일부터 8월9일까지 한국 과학원 주최로 과학 기술처와 문교부의 후원으로「컴퓨터 사이언스」「소프트웨어」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90시간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①Data Bases, Data Structures and File Organization ②Operating System ③Business Data Processing, Commercial Applica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④Programming Language로서 오늘날 컴퓨터「소프트웨어」에서 연구개발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이 세미나의 참가자는 美國에서 M. A. Melkanoff, Richard C. Holt, Clay Sprowls. J.A. Lee 교수였고, 한국측으로서는 韓國科學院 교수 3명을 위시하여 각대학 교수 20명이참가하였다.

현재 美國·日本·獨逸에서는 Computer Application이나 Management Application에서 Programming Language Data Structures, Operating System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MIS), Simulation등에 관하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프로그래밍言語중 FORTRAN및 COBOL에 이어 美國 IBM會社의 高級言語開發委員會 (Advanced Language Development Committee)가 1963년 10월에 발족하여 이 위원회가 연구개발하여 1965년초에 발표한 새로운 언어 (New Programming Language)로서 PL/I (Programming Language One)이 발표되었고 그후 IBM會社에서는 FORTRAN, ALGOL, COBOL 사용자가 PL/1로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FORTRAN으로부터PL/1으로, ALGOL로부터 PL/1으로 변화되는 言語變換프로그램 (Language Conversion Program)을 1969년 1월에 발표하고 COBOL로부터의 변환프로그램도 同年 5월에 발표되었다.

PL/1프로그램개발의 목적은 컴퓨터의 처리능력과 응용 범위의 비약적인 발전에 호응하여 高度의 내용을 갖는 多數의 프로그램을 단시간에 작성할수 있게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프로그래머」와 컴퓨터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자는것이다. PL/1프로그램언어의 요소는 많은 부분이 FORTRAN, ALGOL및COBOL에근거했으며 어떤면은 既存의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PL/1프로그램언어만이 갖는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FORTRAN의 간결한 점과 COBOL의 훌륭한 점을 결합한 빨리 쓸수 있고 알기 쉬운 언어이다. 日本에서는 COBOL에 이어 FOCUS (Facom Oriented Coordinative Utility System)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IBM회사에서 개발한 RPG(Report Program Generator)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富士通會社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RPG는 계산기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을 가질 필요없이 주어진 보고서 작성이라는 업무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수 있도록 이른바 업무중심의 프로그램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RPG, FOCUS등은 COBOL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여 업무내용을 記述하는 형식이 아니라, 특정의 用紙에 업무내용을 기입하는 형식을 택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FORTRAN, COBOL에 이어 PL/1및 RPG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이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사용비율을 보면 COBOL이 약65%, PL/1이 15%, FORTRAN이 12%, Assembler 8%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Data Bases, Data Structures와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관한 연구개발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소프트 웨어」가 많이 개발되어야만 컴퓨터 活用에 따른 생산성과 경제성이 높아질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사이언스의 연구과제는「소프트웨어」개발이 문제이다.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學生募集
男女 夜間

一 募集學科
①行政學科……組織管理 人事行政·財務行政·計劃行政·都市行政·開發行政
②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國防行政·防衛産業·安全管理
③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

二 課程
碩士課程 (行政學碩士·敎育學碩士) 및 研究課程

三 願書接受
一九七四年十一月二十日~十二月六日

四 銓衡日時 및 場所
一九七四年十二月七日 (土) 午後二時 本 大學院

五 銓衡方法
書類銓衡 및 面接

六 特典
公務員 (敎師·軍警 포함) 에 奬學金 支給함
※기타 詳細한 것은 本 大學院 敎務課로 問議하십시요.

東國大學校
전화 ㉗八一三一~九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學生募集
男女 夜間
전화 ㉗8140

一 募集內容
財務·稅務會計專攻·市場管理專攻·人事·勞使管理專攻·保險管理專攻·EDPS專攻
經營法律專攻·貿易專攻

二 願書交付 및 接受期間
一九七四年十一月十一日~一九七四年十二月十三日 (金)

三 銓衡日時 및 場所
一九七四年十二月十四日 (土)
午後二時 本 經營大學院

四 銓衡方法
書類銓衡 및 面接

※ 特典
①本 大學院은 商工部 長官이 指定한 貿易專門敎育機關임
②貿易專攻 一年修了者에게는 所定의 審査를 거쳐 貿易士資格證을 授與함
③本 大學院 EDPS 課程은 公務員 任用施行令 第二三條二項 및 公務員 昇進을 爲한 評定規程 第十四條의規定에의거하여 總務處長官이 認定한 指定專門敎育 機關임
④各種 奬學 特惠있음
※其他 詳細한 것은 本 經營大學院 敎務課에 問議하십시요

東國大學校
전화 ㉗八一三一~九

특별할인 (20%)
【女】大學生 타자수강생 모집
교양 사무 비서직코스
무교동네거리→수송국교쪽 20m→右 로얄다방 2층
유니온타자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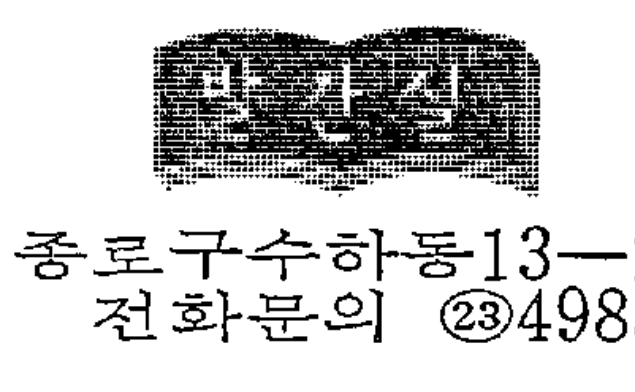
【男】제36기
육군행정지원병 모집
①자격·만17~26세미만 ②입대·소정교육후 원하는시기에입대
③기타·복무년한일반병과동일 (교련단축혜택)
(모집양성 법적근거) 육군참모총장 위촉제23호 양성위촉처)
⑦4079 ⑦9716

을지로입구
노블다실

EA8
정상 시력으로 내일에 희망을.
위에文字는 잘보이십니까 (거리大4m小30Cm)
안경검사하라다
광신안경 74-5559

Part Job
아르바이트를 해보신적이 있읍니까?
배우며 일하는 젊은지성이라면 언제든지 오세요 특히 동대생이라면 대환영합니다. 신입생이라면 우대함
◎종로화신앞종각뒤 종각다방 601호 ⑮3503
金星 Campus Field

박사·석사 학위논문
회지·교재 발간전문
발간실
종로구수하동13—2
전화문의 ㉓4985



<학생 특별할인>
각 안과 처방 조제 전문
보경당 안경원
을3가 네거리 명보극장사이 ㉖0398

75年 8回 貿易士 試驗 대비
貿易士
콜럼비아학원 ⑬0706·5983

김금헌
클래식 기타아
<초보자 환영!>
한국기타아연주가협회
서울·종로1가 ⑦73-7595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學生會

名譽會長	金華龍	
副會長	高喆龍	姜永福
總務部長	鄭炳烈	柳浩振
企劃部長	文承德	趙萬台
涉外部長	高順福	鄭潤龍
學術部長	申王植	林承行
佛敎研究部長	王彦康	黃尙植
運營委員		朴三宰
監事	金成浩	安完旭
	朴永福	尹昌湧
	吳得圭	陳忠洙
	李鍾壽	
	崔鍾學	
	宋永福	
次長	南雄鍾	
次長	朴承熙	
次長	尹在漢	
次長	鄭用學	
次長	黃斗淵	
	李秀澤	

東大行政大學院學生會

□人事말씀□

지난10월 本大學院 세미나실에서 任員選出을 했읍니다. 東國의 繁榮을 과같이 誠心誠意 협조하여 주시는 先輩 敎授님 그리고 在學生 여러분의 聲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總長님을 비롯한 先輩님들의 後援이 있기를 바랍니다. 特히 産業視察時에 도와주신 선배님들에게 우선 紙上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P&E
최신 音盤
멘드리
㊷7009

안과처방조제
동문의 집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으로30m ⑫0524

SOFT LENS
easy on the eye
美國 B.L.製
韓國 H.I.製
서울: 한일콘택트렌즈 Lab. 75-1518 74-8563
부산: 중앙콘택트렌즈 Lab. 22-5804 42-7973

特輯 第12회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自然科學분야 本賞 受賞作

菜蔬의 不適地에 대한 微量元素의 效果

<農林大·農業生物學科 4年> 朴 世 泳

「게르마늄」은 施肥量 조절 必要

實驗圃場、10坪을 5區로 나눠栽培

「죠라이트」는 期待이상의 效果 못거둬

◇서론

일반적으로 作物은 地域에 따라서 특산지가 있는 반면에 부적지가 있다。不適地에 관한 原因에 대해서는 기후 토질의 PH와 배수관계및土壤의 물리적 성질도 관계되지만 특히 작물의遺傳的性質에 따라서 土質의 成分組成과도 크게관계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다。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어떤 作物이 어떤 종류의 必須元素를 어느정도로 요구하는가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서울市 城東區明逸洞일대에는 마늘의경작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微量元素의 施肥에 의해서 어느정도 경작할수 있는지의 가능성을개척하였다。

金①에의하면 zeolite는 파에 대하여 성장율을높여주고 光澤을 가지게하며 金②에 의하면 zeolite는 土壤을 中和시키는 동시에 병충해의 방제와 비료유실방지제로서 유효하다고 하였다。

Germanium에 대하여는 淺井③에 의하면 人蔘에 대하여 耐腐性을 가지게하고 또한 인삼특유의향기를 가지게 한다고 말하였다。孔④는 人蔘에함유되어있는 Germanium의 함량은 產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인삼에 Germanium이 많이 함유할수록 동물효과에 유효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Schroder⑤(1973)에 의하면 Germanium은 식물에 대하여 그 生長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Hoagland의 방법에 의해서 水耕地에準하는 완전 Nutrient Solution을 耐腐性과 成長性을 조사하였다。

위와같은 무기영양소로서 不適地에 대한 耕作可能性을 추구하였던바 약간의 성적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한다。

◇재료및실험방법

(1) 재료

1、圃場位置=서울市城東區 明逸洞所在 東大、農大實習農場의 農場과그 부근은 粘質土壤으로서마늘은 根腐病과 生長지연으로 不適地로 알려져있고 일반채소도 시장성이 있는 생육을 하지못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재배하지 않고 있기에 이곳을 택하였다。

2、實驗作物

①당근 (Daucas Carata Var.Sativa DC.)

②마늘 (Allium Sativum forma Pekinense)

3、Zeolite의 調製

裕京企業社(乙支路6가)에서구입한 것인데 200marh의 분말이다。국립지질·연구소분석 (1965)에 의하면 표1의 결과와 같다。

4、Germanium의調製

Germanium 2g을 H_2O_2 25cc에 용해하여 2천5백cc가 되도록H_2O를 부가해서 0、0008%로 만들어서 2평에 시비하였다。

5、微量元素配合제

Hogland의 培長기본액에 대하여 마늘과 당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소를 다음과 같이 배합하였다。필요 원소는 다음과 같다。표1—1

◇1—1 기본액및 미량원소 첨가물 단위gr

기본액	$Ca(NO_3)_2H_2O$	24.6gr	KNO_3	15.38
	$MgSO_47H_2$	44.7	KH_2PO_4	4.08
	$Fe(NO_3)_3$	0.132		
미량원소첨가물	$Al_2(SO_4)_3$	3.0	KBr	1.5
	TiO_2	3.0	LiCl	1.5
	$MnCl_24H_2O$	21.0	$ZnSO_47H_2O$	3.0
	$CuSO_45H_2O$	3	$Co(NO_3)_26H_2O$	3.0
	KI	1.5	KF	0.3
	$SnCl_22H_2O$	1.5	Vcl_3	0.3
	H_3BO_3	1.5		
	$NiSO_46H_2O$	33.0		

Ⅱ、실험방법

1、圃場의 設置

실험 포장은 과수원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약10평을 얻어 다음5區로 나누고 재배하였다。전년도는 묘목을재배하였던 곳인데 각구는 2평씩으로 구분하였다。各區는 다음과 같다。

①Control구=無施肥區

②Zeolite구=재배전에 條播하는 골마다 균등하게 7·5kg/坪의 Zeolite를 시비하였다。

③Germanium구=0、0008%용액을 250cc/坪으로 조제하여 희석하였다。

④Zeolite+Germanium區=각條에대하여 7·5kg/坪Zeolite를 基肥한위에 125cc/坪의Germanium 용액을 주입한 다음 흙으로 덮였다。

⑤미량원소배합구=60cc/坪로 조제하여 주입하고 흙으로 덮였다。

2、파종일시=1974·4·19

3、파종량=마늘과 당근은 모두 條播로 하되 마늘은 55쪽/坪씩 파종하고 당근은 50쪽/坪씩 生育시켰다。

4、관리과종후 7일간은 거적으로 被覆시켰으나 그뒤로는 이를 제거하고 자연환경밑에 놓았다。

5、생장속도의 측정방법=당근은 10株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6、收穫

당근은 8월3일、마늘은 7월27일에 수확하였다。수확된 실적은 표2와 같다。

◇表1. Zeolite의 분석결과 (上) 표2. 당근과마늘의 수확선실적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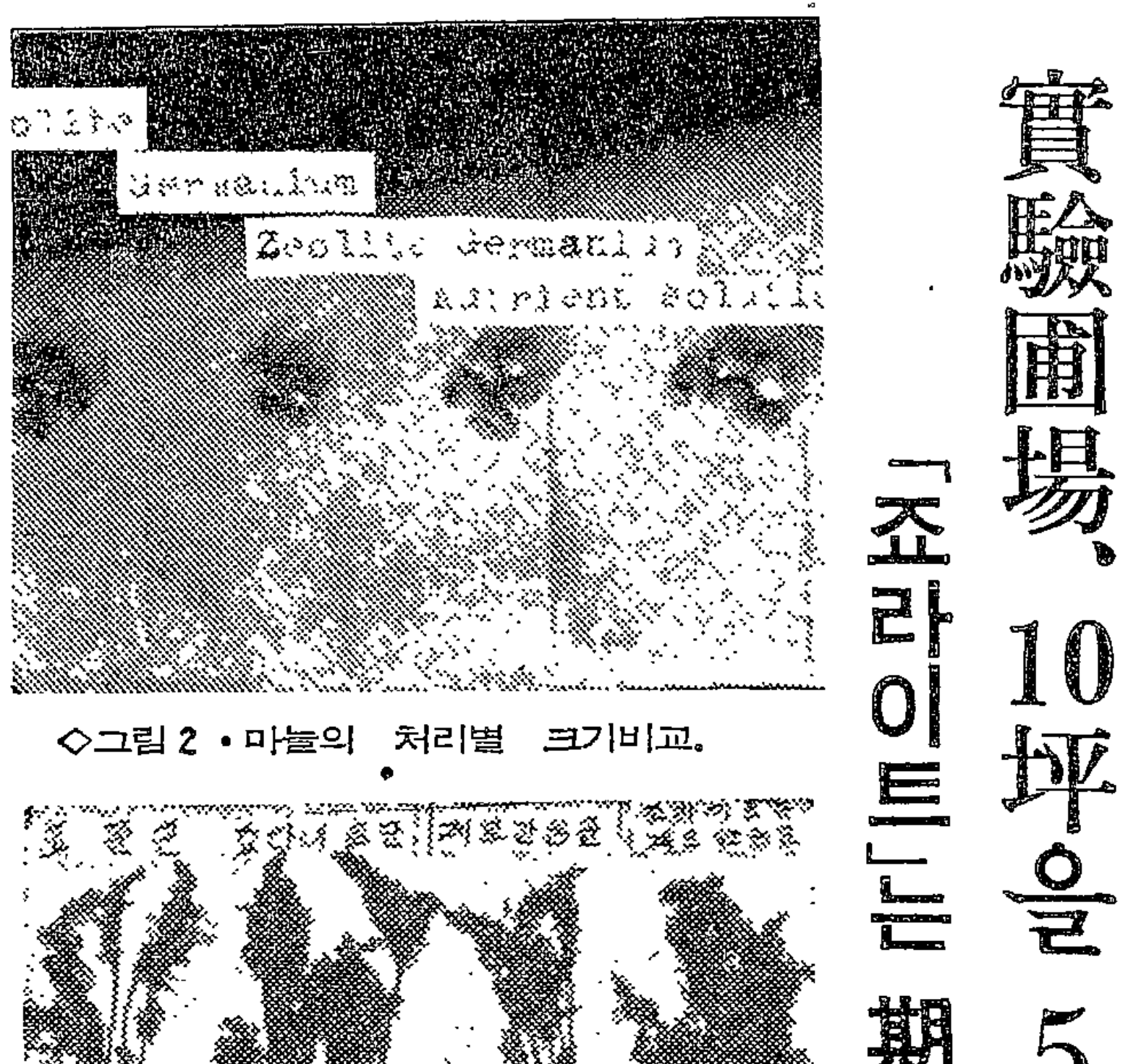
종류 \ 성분	SiO_2	Fe_2O_3	Al_2O_3	CaO	MgO
죠라이트	45.46	7.44	23.46	6.70	2.98

품종 \ 區	Control	Zeolite	Germa-nium	Zeolite Germanium	Nutrient Solution
당근	1000gr	1000gr	750gr	1250gr	1250gr
마늘	16개	12개	5개	16개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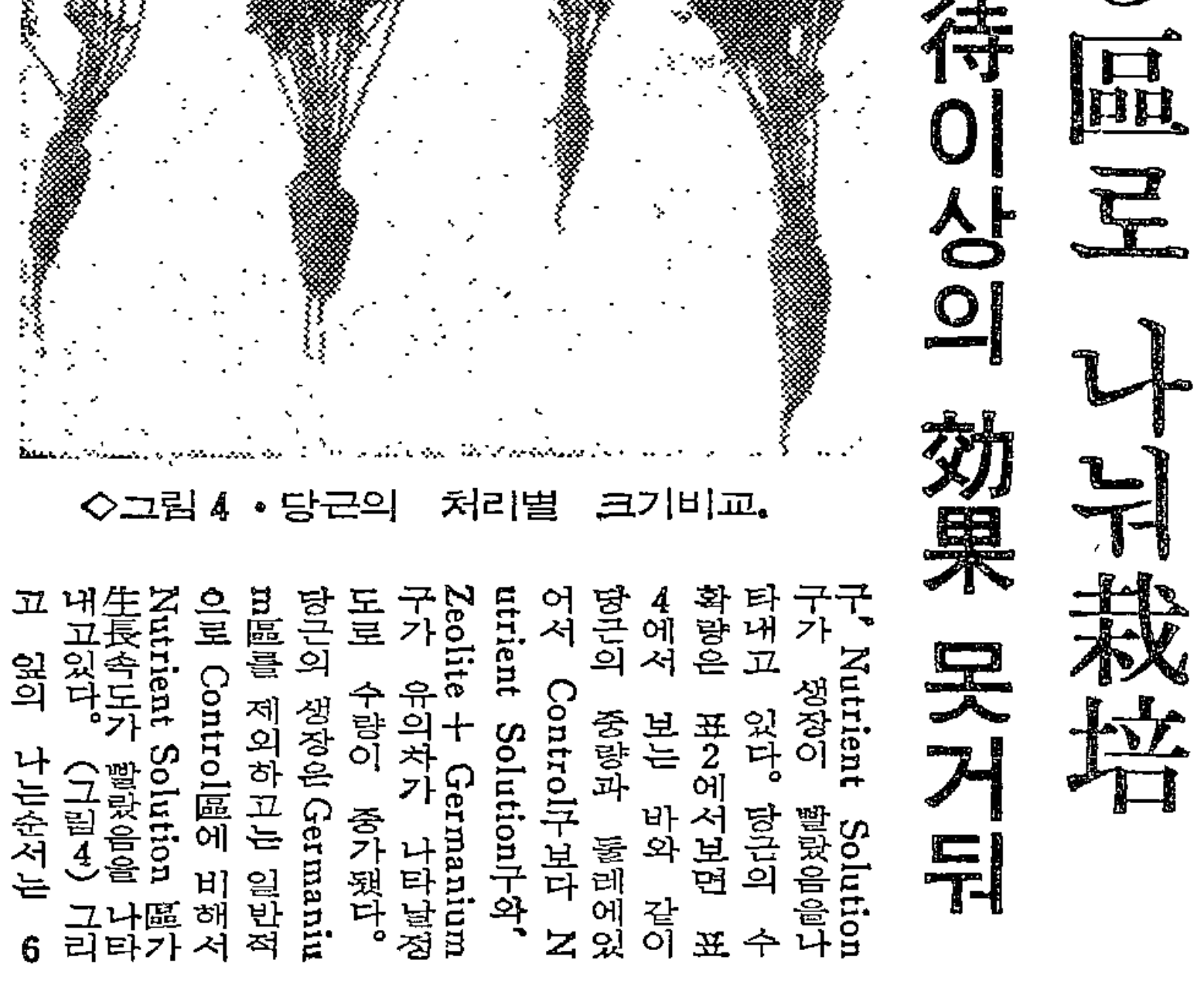
◇결과및고찰

마늘의 수확량은 표2와 같다。표2에서 마늘의 收量이 적은것은 포장의 배수가 잘안되었던 이유와 수확시기가 늦은 탓이라고 본다。특히 포장 전체면에 있어서 점토이기때문에 장마기에 배수가 안되어 마늘통에 根腐病이 걸려서 썩어있는 마늘의 통을 많이발견했다。표1에서 Germanium구에 수확량이 특히 저하된것은 5월초의 가뭄과 Germanium생장억제에 의해서 고사된것으로 믿는다。그러나 마늘의 수확량으로 보면、Control구에 비해서 Zeolite+Germanium구와 Nutrient Solution구가 5%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을 정도로 증가되었는데 표3 에서도 Control구에 비해서 Zeolite + Germanium구、Nutrient Solution구가 생장이 빨랐음을나타내고 있다。당근의 수확량은 표2에서보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근의 중량과 둘레에있어서 Control구보다 Nutrient Solution구와、Zeolite + Germanium구가 유의차가 나타날정도로 수량이 증가됐다。당근의 생장은 Germanium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Control區에 비해서 Nutrient Solution區가 生長속도가 빨랐음을 나타내고있다。(그림4) 그리고 잎의 나는순서는 6월 8일경에는 거의 같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후의 조사결과 雨期이여서 그렇다고 볼수있다。기후의 조사결과는 표5와같다。

위의 당근과 마늘의수량을 표2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한것인데 Control區에 비해서 Zeolite區+Germanium 區와 Nutrient Solution區가 生長과 수량에 있어서 현저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것은 그 무기원소들의 식물에 대한 효과라고 본다。그러나 Germanium區는 生長과 수량에 있어서 오히려 저하되는경향으로 보여진다。Zeolite區는 Control區보다는 좀 낫지만 크게 유의차는없다。그러나 Zeolite+Germanium 區와 Nutrient Solution區는 Germanium이 식물에대한 耐病性 또는 Zeolite+Germanium은 어떤 유효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문제는 더욱더 연구되어야할 문제라고 본다。요컨데 不適地에 대한 栽培可能性에 관한 요인으로서 완전 Nutrient Solution區를 첨가 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이 있음은 주목되는일이다。그리고 마늘과 당근을 처리후수확결과의비교는 그림2、4와같다。



◇그림 2·마늘의 처리별 크기비교。



◇그림 4·당근의 처리별 크기비교。

표3. 마늘의 지상부생장(個當本物)

구 \ 구분	마늘의 생장cm	마늘의 무게gr	마늘의 길이cm(쪽당)	마늘의 둘레cm(쪽당)
Control	25.1	3.7	2.4	2.1
Zeolite	25.6	4.1	2.4	2.3
Germanium	20.3	2.9	2.1	1.9
Zeolite+Germanium	26.4	5.5	2.9	2.4
Nutrient Solution	26.7	6.9	3.0	2.4
LSD 1%	4.12	—	—	—
LSD 5%	2.95	2.95	—	—

표4·당근의지상부생장<個當本物>

구 \ 구분	당근의 생장cm	당근의 무게gr	당근의 길이cm	당근의 둘레cm
Control	29.4	25	11	10
Zeolite	30.3	21	12	15
Germaniom	23.4	20	8	17
Zeolite+Germannm	31.5	30	14	25
Nutrient Solution	32.5	35	15	29
LSD 1%	5.91	10.34	—	14.93
LSD 5%	4.42	7.74	5.43	11.17

표5. 기후의 조사결과

날자	4·19	5·15	5·30	6 6~13	6·15	6·30	7·15	7·30	8·3
기후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요약

마늘과 당근의 不適地에 대하여 微量元素를첨가한 포장에 대하여 그 生長과 수확량을 비교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Zeolite는 그 성분상으로 보아서 不適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어떤 효과는 나타내지않았다。

2、Germanium은 식물의 생장에 관하여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것같다。그러나 앞으로 시비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3、Zeolite에 Germanium을 첨가했을 경우에 수량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현상은 앞으로 원인을 더욱 연구하여야 할것으로 믿는다。

4、各區 중에서 수량이 많은區는 Nutrient Solution이로 되어있다。이것은 不適地에 대해서는 미량원소의 첨가로서 어느 정도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참고문헌」

1、金種五=1964년 죠라이트에 대한 실험성적。金種化學연구소 죠라이트의 威力 No15

2、金長水=1973년 죠라이트의 威力 죠라이트 공업주식회사 간행본

3、淺井一彥=1969년 人體와 Germanium 유기 Germanium에 관하여 게루마늄연구소

4、孔泰勲=1973년 Germanium으로 시비된 人蔘의 動物效果에 관한 연구。동대논문집1973

5、Schroder=1973년 Highway의 路邊 植物內鉛의 축척에 관한 연구

6、朝倉鑛造=1968년 식물영양학실험 P397

7、趙民新=1972년 新農藥 향문사

8、車鍾煥=1974년 생물통계학。

自然科學분야 奬勵賞 受賞作

寄生蟲卵 汚染에 대하여

서울市內 家庭의 衛生狀態 調査

<師範大·科學敎育科·3年> 李 銀 叔

汚染度、지역별 差異 없어

대부분 蛔蟲과 요충 高率 汚染

常用 걸레및 행주 處理잘해야

◇緖論

寄生蟲性 질환은 慢性的 전염병(Chronic Communicable Disease)으로서 그 피해는 宿主의 영양실조를 초래하는외에 숙주조직에 대한 기계적 손상、蟲體에서 분비되는 독성물질에 의한 病理學的 病變및 기생충 숙주 상호간의 복잡한 관계(Hostpasasite Relationship)로 인한 生理學的 平衡의 파괴등은 때때로 치명적 피해까지 입힐수 있다。더우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생충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약90%) 국민보건의 견지에서 이는 사회경제학적 문제(Socio-Economical Problem)로 대두되고 있다。任(1969)에 의하면 기생충감염이 신체발육및 체능에 미치는 영향은 기생충의 종류、감염충수、기생部位、기생기간및 숙주의 저항력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며 십이지장충 (Ancylostoma duodenale)에 감염된 남자의 背筋力에 있어서 非感染群보다 감염군이 저하되었고、영양상태에있어서는 현저한 비타민결핍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한다。또한 간디스토마 감염자도 체력의 저하、신체발육의 지연및 현저한 비타민결핍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閔(1972)은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행정및 교육의 강화가 따르는 건강에 대한 인식의 증가、기생충질환에 대한 국민계몽활동、유효한 구충제의 보급과 집단구충의 실시、식생활의 개선、인분 퇴비오물및 축사등의 위생적인 처리、후생시설의 적절한 관리등의 사업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우리 국민에게 여러 종류의 腸內 기생충이 만연되어、아직도 高率의 감염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하였다。여러 방면으로 기생충만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각연령층에 기생충감염율이 높은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필자는 경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울시내 각가정에서의 위생상태、특히 糞便物質의 오염상태를 疫學的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수집된 걸레및 행주에서 寄生蟲卵을 지역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調査對象및 方法

1、調査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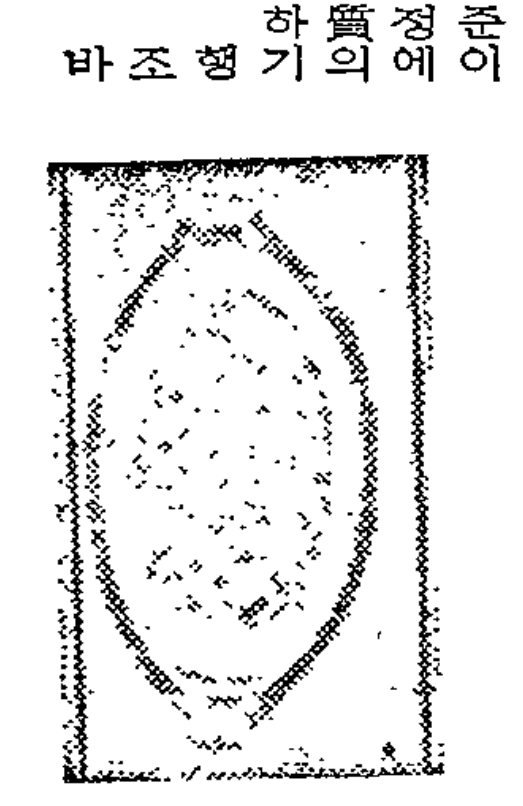
중구 묵정동 40가구、중구 장충동 13가구、성동구 신당동 9가구、중구 필동 9가구、마포구 공덕동 21가구를 대상지역으로하여 행주및 걸레를 수집하였다。

2、蒐集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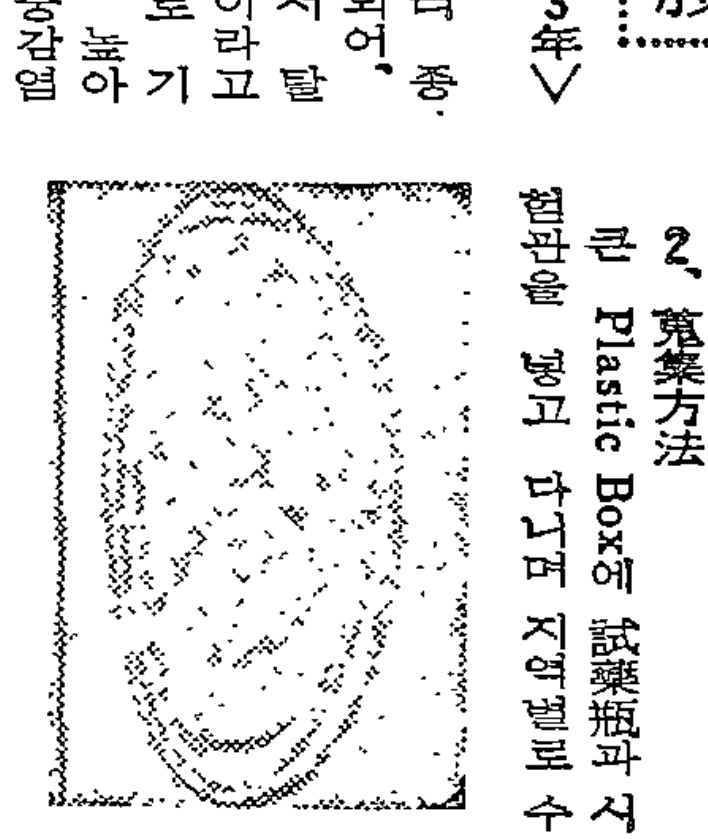
큰 Plastic Box에 試藥甁과 시험관을 넣고 다니며 지역별로 수집된 행주나 걸레를 조사가정의 대야에 빨고、그 물을 매스실린더를 사용하여 1백cc씩 수집하였으며 수집병의 겉에는 수집한 장소및 구별요점을 명기한 라벨을 붙여 끈 동국대학교 과학교육과 실험실로 옮겨왔다。

3、材料處理過程및 檢鏡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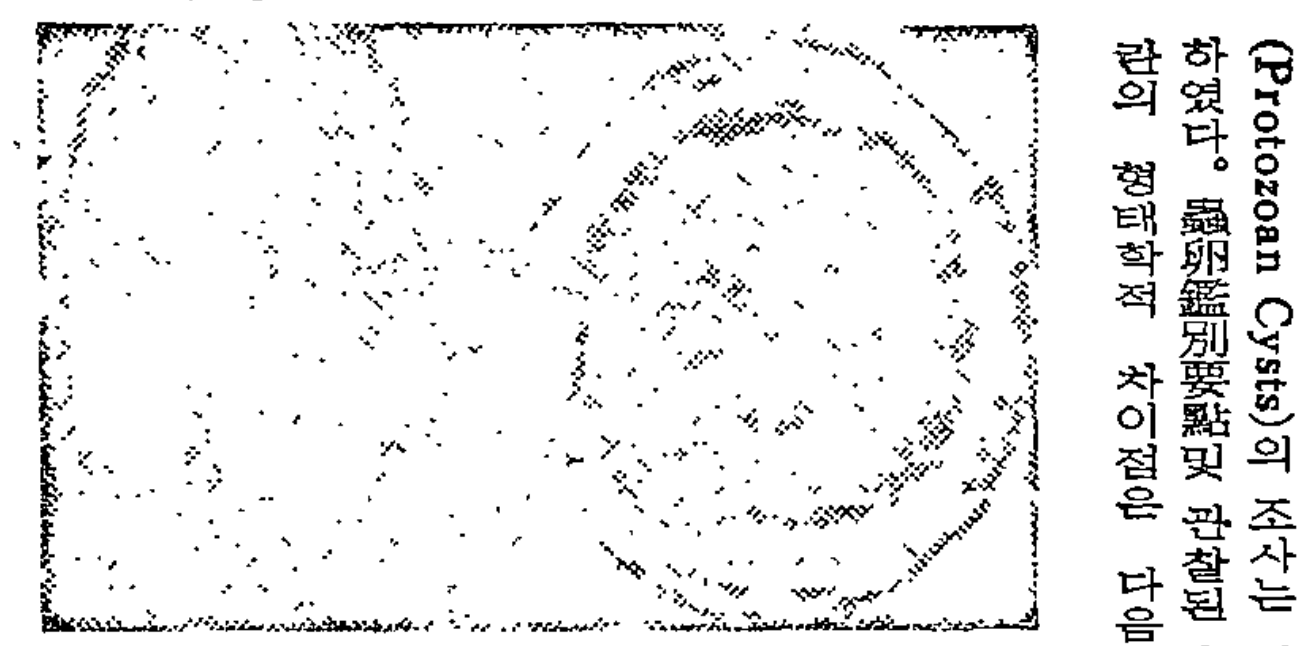
실험실로 운반된 각 재료는 즉시 1천5백 r.p.m.에서 1분간 遠心沈澱(Centri Fugation)하여 上淸液을 버리고、그沈渣에 10% Formalin10미리리터를 부어 고정보관하였다。細管 Droper를 사용하여 고정된 沈渣를 조심스럽게 따내어 Slide Glass 위에 가능한 한 여러 곳 떨어뜨리고、Cover Glass로 被眠하여 1백배 내지 4백배 현미경하에서 주로 蠕蟲卵子(Helminth ova)를 관찰하였으며 여전판계로 Iodine Staining Method에 의한 原蟲囊子(Protozoan Cysts)의 조사는 피하였다。蟲卵鑑別要點및 관찰된 충란의 형태학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第1表)、



◇편충



◇요충



◇회 충

第1表

유충卵子(Helminth ova)金監別要點

寄生虫名	形 態
요충	50×18~15μ 長타원형이나 一邊은 편평한 感이 있다。灰白색。2중의 卵膜。그안에 幼蟲이 들어있다。頭部는 크고 尾部는 가늘다。
회충	50~70×40~60μ。타원형이나 膽汁색。卵殼은 3층으로 되어있다。最外層은 불규칙한 蛋白膜。다음이 키친質、最內層이 「리포이드」층이다。
변충	50×23μ 紡形。담즙색、卵殼은 3중의 輪廓으로 둘러싸여 있고、殼內에는 未分化한 卵細胞있음。兩端에는 透明한 마개가 있다。

◇調査結果및 考察

서울市內 各 家庭에서 수집된 걸레및 행주의 寄生蟲卵 汚染狀態를 본바 중구 묵정동에서 수집된 40개 걸레중에서 회충 20%(8)、요충 10%(4)、편충 2·5%(1)이었으며 행주에서는 회충 20%(8)、요충 7·5%(3) 편충5%(2)이였고、중구장충동 13家具中 걸레에 회충 15·4%(2)、요충 15·4%(2)행주에 회충7·7%(1)、요충 15·4%(2)、편충 7·7%(1)이였다。성동구 신당동의 19家口에서 걸레에 회충11·1%(1)、요충 11·1%(1)의 汚染率을 보였고、행주에서는 2件22·2%만이 회충에 오염되었을뿐、회충、편충은 없었다。중구 필동의 경우、9家口중 걸레에서 회충11·1%(2) 요충 22·2%(2)의 오염율을 보였고、행주에서는 1件(4·9%)만이 요충에 오염되어 있었다。마포구공덕동에서 수집된 21가구의 행주및 걸레의 경우는 걸레에서 회충 19·0%(4)、요충 32·3%(7)의 汚染率을 보였고、행주에서는 회충 4·8%(1)、요충 9·5%(2) 편충 7·5%(2)로 오염되어 있었으며、大部分 회충과 요충이 高率로 오염되었음을 알수 있었고 地域的인차이는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수없었다。農村에 비하여 비교적 生活水準이 높은 서울에서도 常用 걸레및 행주에까지 糞便物質이 汚染되었다는것은 주목할 일이며 保健敎育(Health Education)및 大衆媒體(Mass Media)를 통한 啓蒙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寄生蟲蔓延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約 45種의 기생충이 關與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人糞(Stool)의誤用으로 인한 土壤媒介性 寄生蟲(Soil-tsansmitted parasites)이란 점이 주목되고 있다。그중 중요한 韓國人의 人體寄生蟲과그 感染率을 列擧하면 다음과같다。(第3表)

특히 행주및 걸레에서 檢出된 요충(Enterobius vermicularis)은 自家感染(Autoinfection)이 가능하고 한 家口員이 감염되면 全體家族이 집단적으로 감염되어서 결과적으로 集團治療가 불가피한 기생충이다。용변후에 손을 깨끗이 씻지않거나 非衛生的인 긴손톱에 의한 蟲卵의 감염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겠다。또한 철저하지 못한 衛生管理 다시말해 방안에 떨어져있는 蟲卵등을 걸레로 훔친후 이를 비누에 빨아서 삶는다든가하여 衛生管理를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결과가 될것이니 손과몸을 깨끗이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常用하고 있는 걸레나 행주를 잘 처리하여 기생충 오염의 기회를 막아야만 할것이다。

◇第3表 韓國의 人體寄生蟲

기생충명	감염율	조사년도
윤충류(Helminth)		
회충	60%	1969~1970
아니사키스충	1예(유충)	1970
편충	70%	1969~1970
요충	47%	1969
십이지장충	5~20%	1966~1970
동양모양선충	10%	〃
분선충	수예	
「말레이」사상충	1%미만	
동양안충	4예	
「메디나」충	1예	1920
간디스토마	12%	1969~1970
「요꼬가와」흡충	0.4~11%(만연지역)	1969~1970
폐디스토마	만연지역 1백만명	
간질 혹은 비대흡충	수예	
이강흡충과	1예	1971
이형흡충	수예	
무구조충(민촌충)	약 5%	
유구조충및유구낭충	비교적 흔함	
왜소조충	0.7%	1970
축소조충	4예	1963~1966
광절열두조충(긴촌충)	34예	
위립조충(포충)	수예	
메소체스토이데스충	1예	1967
원충류(Protozoa)		
이질아메바	6.4%	1971
대장아메바	20.5%	〃
치은아메바	흔함	
왜소아메바	10.0%	1971
옥도아메바	0.6%	〃
쌍핵아메바	0.1%	〃
람블편모충	5.1%	〃
장트리코모나스	1.1%	〃
인앤테로모나스	0.7%	〃
메닐편모충	0.5%	〃
엔바도모나스충	수예	
구강트리코모나스	흔함	
질트리코모나스	대하증환자의약40%	
대장바란티듐	수예	
인구충류	수예	
삼일열「마라리아」	약간	
열대열 또는 사일열 마라리아	수예	
톡소푸라스마	14.3%(HA test)	1970
주폐포자충	24예	

◇結論

서울시내 가정에서 蒐集된 행주및 걸레에 대한 寄生蟲卵 汚染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4년7월 도심지를 중점으로한 92家口를 대상으로 각가정의 행주및 걸레에 대한 기생충학적 조사를 실시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서울시내 數個家庭에서 수집된 걸레및 행주에서 요충 회충및 편충란이 검출되어糞便物質이 오염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2、수집지역별 오염도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3、기생충 感染으로 인한 피해및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행주와 걸레를 주로 다루는 主婦들의保健敎育이 필요하리라고 思料되는 바이다。

「參考文獻」

(1) 閔弘基=전라북도 산간지역 주민의 장내 원충감염에관한 역학적연구。기생충학잡지、10、(1) 1972

(2) 任敬一=십이지장충과 간디스토마감염이 신체발육、지능발육 및 영양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1969

(3) 김명、조남욱=우리나라 기생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보건교육、2 (7)、1974

(4) 소진탁、정평림=기생충학、1973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 실험진행방법및 원고교열의 노고까지 아끼지 않으신 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鄭坪林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自然科學部門 〃〃〃〃〃〃

本賞 수상자 朴世泳군 프로필

8回때도 本賞받은 科學徒

大學農場서 4個月間 研究

<朴世泳군>

自然科學部門 本賞수상자인 朴世泳(農生科4) 군은 70년도 제8회 學術賞 本賞도 차지한 적이 있는 力量있는 科學徒—. 당시 研究論文은「인삼과 담배處理가 개구리의 生成變態에 미치는 영향」이었다。이번 연구대상은 채소중에도「당근과 마늘」의 不適地에 대한 微量元素의 효력연구로 "연구기간은 4개월이나 걸렸다。

『日本이나 우리나라에선 마늘을 신비롭게 생각할 정도로특이한 香味가 있으나 그 윤택과 크기면에서 연구개발이소홀한 편이었다。우리 기후엔적합하나 토질상에 따르는 차이가 있는 듯 싶어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研究中엔 애로도 많았던듯。실험용으로 쓰일 당근이 토양관계로 質이 나빴고, 마늘을키우는데도 영향이 많았던것. 실습지가 大學農場이어서 거리상 다소 불편하였다고 털어놓는다。

孔泰勲 (農大) 박사님의 도움으로 農大生으로서 할일을 해서 기쁠뿐이라고。

재학중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저 빈틈없는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졸업후의 구체적인 계획도「研究」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는것。

朴君은 본사學術賞에 對해『自然科學 部門은 人文社會科學, 創作分野와 달라 실험연구에따르는 諸般 경제상의 문제가큰 애로이므로 이를 감안, 賞金을 더좀 많이 配分, 이 分野를연구하는 뜻있는 학생들의 힘이 되게 해주었으면 싶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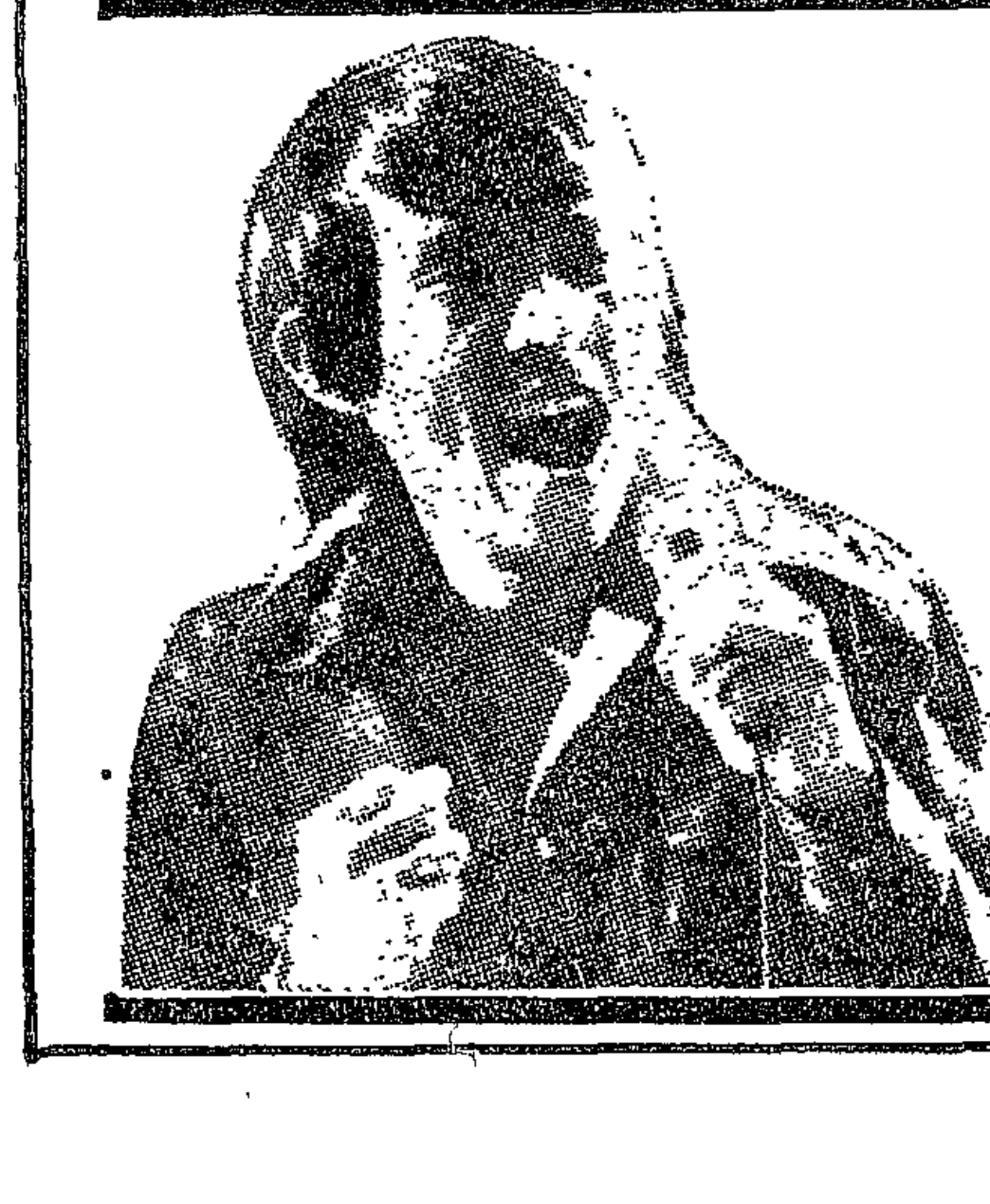
또한 農大건물은 실습농장주변에 두어 불편함이 없이 교육과 실습, 연구가 될수 있게 했으면 싶다고 말한다。

출생지는 강원도 호천. 50년4월에 3남2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均明高를 거쳐, 68년도에 農林大學에 입학했다.

뺏지, 마-크, 트로피, 상패 페난트
豊成工藝公司
교기, 메달 조각, 도안 기타각종행사
서울 중구 을지로3가315~2(수도빌딩301호) ☎㉙1896
대표 이 중 엽

듣기 말하기 쓰기
프랑스語
읽기 말본 종합강의
담당; 주 세 경
종로2가 YMCA서쪽 장안빌딩 프랑스어 연구실 ☎ ㉔2381

육군 공군 행정지원병 모집
★각군 위촉에 의거 모집함 (복무연한 일반병과 동일)·월별정원마감.
자격·육군 (17~26세) 공군 (17~23세) ·각군소정의교육후희망지기에 행정병으로 단독입대후반기교육면제 (상세한것은직접문의요)
종로1가24 무교동 버스 정류장 (무교수제과2층)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㉓6717 ㉕3771



톱스타 윤항기와 어니언스 파노라마 전속출연!
매일밤 빅7 스테이지 리싸이틀
-500원으로 즐길수있는 대폭인하가격-
출연진
윤항기와 키브러더스
김훈과 트리퍼스·
어니언스·박상규·홍민
민들레·MC 지명길
주간다실·야간생맥주, 파라다이스, 그린존
파노라마
종로화신옆 아카데미극장앞 지하철입구
⊙생맥주 500cc…190원
⊙각종안주……250원

特輯 第12회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人文社會科學分野 本賞 수상작

環境權의 法理에 關한 硏究

環境權의 法的性質과 救濟를 중심으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물질적 생활이 고도화되어 産業化, 都市化의 과정을 통해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社會經濟發展의 급속한진행은 중요한 社會의탄생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무모하고 무절제한 産業發展, 機械文明의 발달은 人間本然의 屬性인「人間性」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全人類의 共同所有인『하나밖에 없는 地球』를 보존할 수 없을만큼 오염, 파괴시키고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모색할진대 그것이 근본적인 환경을 파괴하고 그限界를 넘어 汚染시킨다면 자살을 재촉하는 自己矛盾이 아닐까? 1972년 6월「스토클롬」國際環境會議를 통해서 마치「세계 인권선언」을 상기시키듯 環境權 (Environmental Right)을 선언한데 자극을 받았고 새로운 學問體系로써「環境科學」이 대두되고 선진제국의 法科大學「커리큐럼」에「環境法」이 설치되고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활발히 연구와檢證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全人類의 共同體的 連帶意識속에서 깊은 思考를 가지고 특히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합과학적 접근이 강조되는 것이다. 環境權이라는 權利가 마치 勞動權이 확립되었듯이 定立되려면 종래의 法體系와 많은 충돌이 예상되며 試鍊과 克服調和方案을 모색해야될것이다. <筆者註>

一、問題의 背景

Ⅰ、環境問題가 提起되어야 할 必要性

Ⅱ、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方法論의 轉換—極端論의 克服

Ⅲ、環境問題의 綜合科學的 接近의 方法

Ⅳ、問題의 提起—環境整序의 法的 接近의 價値

環境問題는 現代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종래의 자연과학적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이는 綜合科學的 접근에 의해 극단론적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先進諸國에서는 『環境學=環境科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개척되고 있음은 주의를환기시킨다。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時代的, 역사적 潮流와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 도전하여 그 근본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環境整序의 法的 保護와 統制』라는 불모지대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法學이 단순한 規範論理的인 탐구만으로는 현대의 急變하는 社會의 正義實現에 봉사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조류는 法社會學的 접근내지 法律現象을 客觀的 事實로서 考察하려는 Realism Jurisprudence (「리얼리즘」法學)的인 究明을 요구하고 있다。⑯

이러한 觀點에서 環境整序의 법적 접근은 불가피하며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環境整序의 「保護」(Protect)와 「統制」(Control)을 위한 環境權 (Environmental Right)이라는 새로운 權利가 —마치 勞動權이 19세기 이후에 확립되었듯이—定立될 時代的 召命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檢證함에 있어 그 역사적, 법철학적 地盤을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할것이고 實定法學的 체계를 통한 環境權의 觀念과 法的性質을 살펴 본 다음 그環境權의 효과로서 그 侵害와 救濟問題를 중점적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註16) ①Ehrich <Soziologie des Recht>1929 ②O.W.Holmes <The Spirit of Common Law;Path of Law> 1949。

③R.Pound<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종래의 순수법학, 개념법학적인 입장에서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다양성, 모순, 변동의 추세에 적응할 수 없음은 승인되고 있다。

二、환경整序의 法的 보호와 統制의 宣言、環境權의 宣言

Ⅰ、環境정서 權利性—反射的 이익론의 배격

환경정서는 단순한 法의 반사적 이익내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했었다。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오염, 파괴시킬 경우 이는 인간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挑戰을 극복하는 길은 곧 사회 공동체意識 내지 연대意識에 입각한 전인류의 자각과 예지와 협동과 제휴에 의해 전인류의 복지이념에 알맞는 사회환경、인간환경의조성을 추진해야 하겠다。⑰

이제 「Nuisance」法理만으로도 이를처리하기 곤란하며 ⑲ 환경정서 예컨데日照、大氣、물、通風등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恩德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他物에 의해 차단되었을 경우 그 因德이중단된데 지나지 않는다는 고전적「反射的利益論」을 배격하고 그권리성을 인정해야 할것이다。⑳

註 (17) ①Derselbe,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 ②G.Radbruch, Rechtsphilosophie 1956

環境權의 보호는 事前예방적 救濟인 差止請求權의 活用으로

⑲ Nisance法理는 주로英美法上인정된 개념으로 공해의 환경파괴에대한 사법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⑳이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환경권을 인정 함으로서 그 침해를 받는 경우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특히사전예방과 종합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Ⅱ、環境權의 生成에관한 역사의식

(1) 환경문제의 시대적 변천양상

(2) 環境整序에 관한 法令의 變遷 (가)英國 (나)美國 (다)日本 (라)韓國

(3) 憲法에 있어서의 環境管理觀

(4) 環境權을 宣言한 國際會議—1972년 6월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린 UN「人間環境會議」

Ⅲ 環境權의 法思想的 體系

①環境權 사상의 발상—그變數와要因—

②團體主義 法思想과 環境權

③福祉理念과 환경권 사상

三、環境權의 觀念

Ⅰ、環境權의 意義

環境權, 環境訴訟(Environmental Suit)등의 용어는 최근에 생긴것이다。(54) 따라서 이에 대한 관념이나 定義도 그 역사가 日淺하여 혼미상태에 있고 정립도중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이 정의할수 있을 것이다。환경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대도시 형성으로인하여 公害的 副産物등이 환경整序를 오염破壞=침해할 경우 이를 배제, 예방할수 있는 배타적 절대적 權利이다。또한 전인류, 전세계적 차원에서 의식되어야하고 인간이 快適하고 健康한 생활을 享有할수있는 生來的 權利이고 생활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파악된다。(58) 이는 또한 구체적으로 實定法上 (특히 헌법) 承認=확인되고, 宣言되어야하며 「環境權」이란 조항이 아니라도 이와유사한 조항이면 족할 것이고 규정되지 않았다고경시될 수 없다 (59)

註(54) 「Index to Legal Periodicals」의 「Environmental Control」항을 비롯하여 「Environmentalist의 Evironmental Lawyers」「Environmental Law Experts」「Environmental Cases」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특히 「Columbia」「NewYork」「Rutgers」「Fordham」대학에서는 1969년9월 부터 「Environmental Law」가 법과 대학 「커리큐럼」에 설치되었고 「Columbia」「Stanford」「Harvard」「Michigan」「NewYork」「Cornell」대학등에는 「環境法研究會」가발족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독립과목으로 확립되어 있다。

①Sive, Environmental Lawyers,70, Columbia Law Review(Col. L.R.)612, 614, 1970

②Jenning, Environmental Law Course, 55 Cornell Law Review(Cor.L.R.) 804, 1970.

(57) ①Juergensmyer,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Pollution, 23 UFa Law Review 439,P446~447、1971 ②仁藤一、<環境權の 提唱> ジュリスト No492、P230 ③松本昌悅、<環境破壞における人權侵害と環境權の法理> 法律のひろば 第25巻 4號 P25 ④仁藤一、池尾隆良、<環境權의 法理> 法律時報 제43권 3호 P158

人文社會科學分野 本賞受賞者프로필

◇延基榮<法政大·法學科 4年>.

『뜻밖에 本賞을 받게된데 대해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여러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며 人文社會科學分野 本賞수상의 첫소감을 말하는 延君은 겸손해한다。

이번 수상작품은 2백여枚의 방대한 論文。—2년동안 수집한 자료정리만도 꼬박 열흘밤을 세웠다는 延君은 의욕에 찬 표정。

환경문제는 기계문명의 고도화에따라 現代社會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띄어가고 있기때문에 社會科學徒로서 『環境權의 法理에 關한 硏究』는 당연한 主題였다고 논문을쓰게된 동기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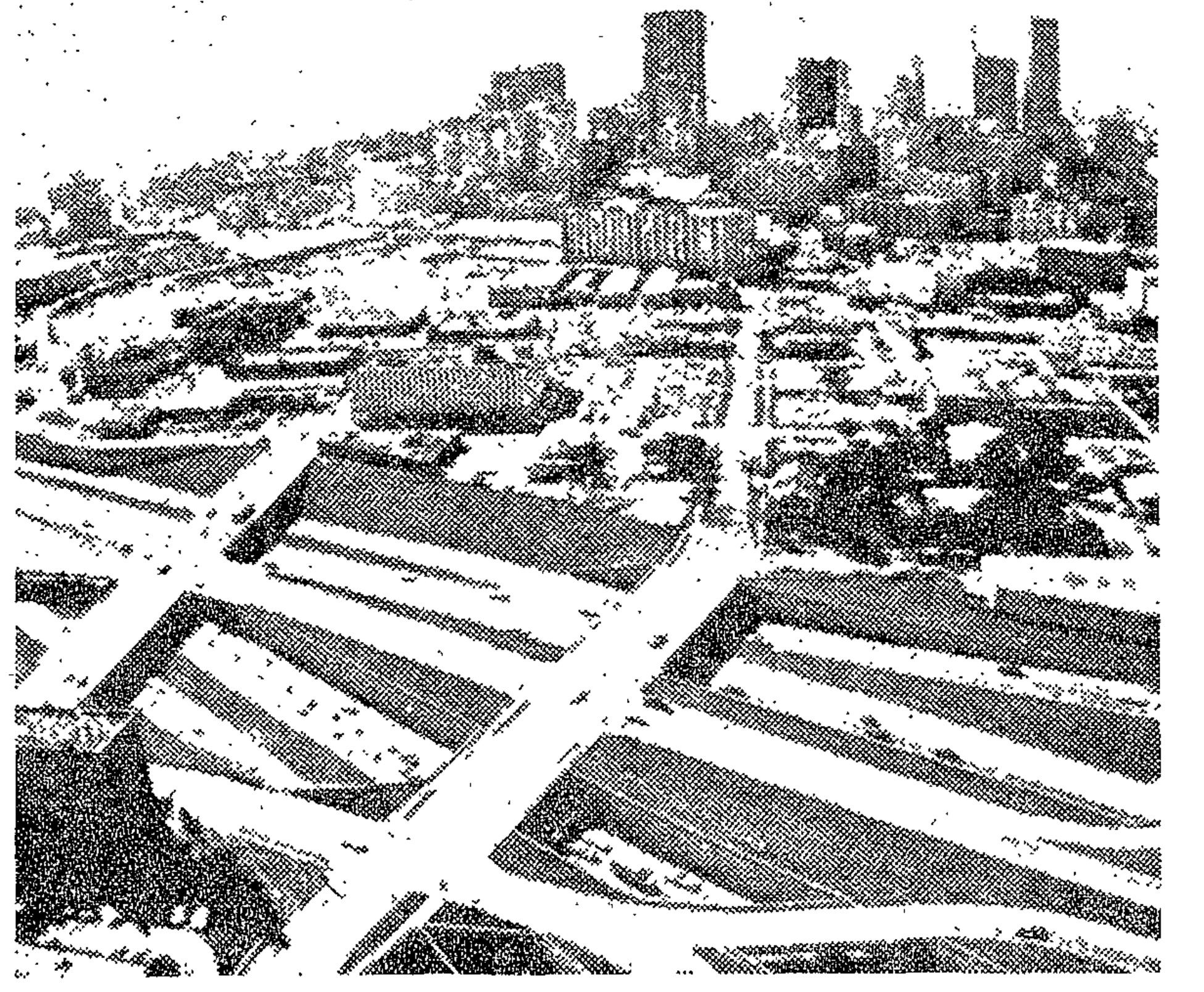
2百여枚의 論文、資料수집만도 2年

環境은 社會問題性 지녀

장래의 포부는 學者가 되는것。순수한 젊은 지성인과 호흡하며 학문연구에 전념해 보겠단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열려야하고 大學人은 학문연구와 人格도야를 통해 社會의 기수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 나름의 大學觀을 표명하기도。

제11회 本社 學術賞 人文社會科學分野에서도장려상을 수상한바있는 延君은 또 지난 10월18일 경북대 학보사 주최 창간22주년 기념 「全國 男女大學生 현상작품모집」에 「産業化와 人間化의 조화극복방안」이란 주제로 논문분야 1석을 차지해 실력을 과시하기도—。▲충청북도 청주出生



環境權 侵害는 無過失責任 인정해야

研究기관育成을 위한 國家政策 시급

環境權은 人類의 生活權的 基本權

⑤眞鏡正一、<環境權研究를 위한 提言<ジュリスト No479 P71

⑥韓國法學敎授會編、法과 公害 1974

(58) ①小林直樹、<環境裁判의 基本問題>—大阪空港判決を 中心に—法律時報 46권 5호 P10~11 ②仁藤一、池尾隆良、前揭論文、法律時報 3호 P158 43권

(59) 憲法 제32조 ①項規定 참조 ①文鴻柱、韓國憲法 P276~277 海岩社 1974 ②朴一度、維新憲法 P164 博英社 1974 ③韓相範、韓國憲法 P125 普文閣 1973

Ⅱ、環境權의 主體와 客體

(1) 主體=이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는 바 一說은 자연인외에도 각종 단체나 법인(기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60)와 二說은 환경권을 침해하는 加害企業은 피해자와 대치되는 관계로 파악할때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피해자인 자연인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61)가 있다。환경권이 전인류의 생존권이고 개인주의적 私法原理를 탈피하여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社會連帶主義를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一說(廣意說)이 타당하다。그래야만 환경권의 침해를 구제하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는 정신과 평등사상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2) 客體(對象)=앞서밝힌 「스톡코름」UN環境會議의 環境宣言文 서두에, 『自然그대로의 人間環境과 人爲的인 人間環境은 다같이 人間福祉의 基本的 人權, 生存權 그自體의 享有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宣言하였다 (62) 여기서 環境權의 客體를 『自然環境을 構成하고 있는 組織과 人爲的 人間環境의 整序』라 할 수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물 空氣(大氣)日照 通風및 靜穩』등을 들 수 있고 (64) 이를 확인하는 선진제국의 判例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65) 그러나 현대사회가 複雜多岐해짐에 따라 그 客體는 擴大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관한 訴訟도 認識度가 높아가고 있다。例컨데 「自然景觀」과 「레크레이션」施設등도 새로운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美國 日本등지의 判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66)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美國의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1969)第101條로 明文化된 바 있는 (67)『歷史的 文化的유산도 人間의 快適하고 知的인 生活을 위해 環境權의 客體로 擴大適用시킬 수있다。

註(62) 權龍約 外二人共著、<公害와對策>Ⅰ卷 P154~174 延世大學校 公害研究會編 中央經濟社刊 1973、9

(64) 金昌祚=「環境權의 法理」새法政 通卷23號P22、1973 1月號

(65) ①佐藤幸治<生活環境と この日照權>ジュリストNo490 P26 ②野村好弘=日照の 判例、有斐閣雙書 ③<特集=大阪空港公害訴訟判決>法律時報46巻5號(1974年5月號)P8~85參照 ④讀賣新聞、1972、6、27(夕刊)1面記事<日照權と 通風權 最高裁判が 認める> ⑤東孝行=公害訴訟の 理論と 實務、有信堂 1972、12、15 刊 參照 ⑥都市問題研究 1970、6、20刊<都市の過密と日照問題>

(66) ①生田典久=<美國에 있어서의 環境權에 의한 公害訴訟의 新動向>ジュリストNo468 P146以下 ②번역판=立法調査月報第50號 P89~92

(67) 美國國家環境政策法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第102條B項4號에 聯邦政府의 責任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to improve important historic, cultural and natural aspects of our national heritage…>

四、環境權의 法的性質

Ⅰ、環境權의 一般的性質—學說의 概觀

(1)、財産權說=전술했듯이 종래의경제학상 절대적 自由財로 생각했던 환경整序를 「環境權」이라는 새로운 권리로 확립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상으로도 이를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자는 견해이다。(68) 이는 주로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여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환경권이 재산적가치가 있음을 부인할수 없으나 오히려 權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볼수밖에 없다。(69) 이의 생성과정과 사상적 지반이 20세기 이후 개인의 자유와 희생밑에서 탄생한 권리로 그 이전의 自然法的권리인 自由權으로서의 재산권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2)、人格權說=환경권을 재산권으로는 다고 해도 재산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人格)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人格權」으로 보는 견해이다。(70) 이 說은 환경整序는 본래 「인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과 환경권의 역사의식 내지 사회변동에 적응할수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3、社會權說(생활권적 기본권설)=환경권의 생성과정과 法思想的 세계를 중시한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재산권을 주체로 하는 권리라고 파악하는 견해이다。또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적 약자인 公害피해자를 보호하려는 法理에서 배태한 權利이기에 사회권의 일종으로 본다。(71)

4、私見(비판)=이상의 三說 가운데 사회권 생활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수 있지만 전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는 견지에서 그 장도를 달리하여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한국가나 한민족의 생존문제가 아니라 전인류를 지배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세계적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72)

註(68) 澤井裕<差止請求와 利益較量>法律時報 제43권8호 P15

(69) 全昌祚、前揭論文、法政No23 P22

(70) ①立法調査月報50號 P91~93前揭論文 ②保大本一郎、<生存權과 公害> 입법조사월보 No422 P38

(71) ①大須賀明、<社會權의 再檢討> 法律時報第43卷1號 P49 ②保大本一郎、前揭論文、입법조사월보 No422 P38以下 ③全昌祚、前揭論文 法政 No23 P22

(72) 延基榮、<環境權의 法理>東大新聞 1973·9·11日字 4面參照

Ⅱ、憲法規定과 環境權—憲法改正과 解釋의 擴大樣相

(1) 憲法改正에 依한 環境權의 樹立

環境權의 保障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勞動權과 같이 憲法에 明文化함이 가장 이상적임은 물론이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73) 「펜실바니아」헌법改正案 第27條에 「自然自源과 公共財産權」이란 제목으로 규정하였음은 많은 暗示를 준다。(74)

(註73) Roberts, Supra '55 Cornell Law Review 686 et, seq 1970

(74) ①U.N Economic & Society Council,<Problems of the Human Environment(1969) ②Pa,H.R.958(1968)

(2) 現行憲法 解釋에 의한 環境權의 樹立

(A) 幸福追求權으로서의 環境權(日本憲法 13條)「Privacy」權과 같이 自他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양호한 環境整序가 불가결한 前提條件이므로 環境權도 당연히 幸福追求權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76)(77)(78)(79)(80)

(B) 生存權(生活權)으로서의 環境權 우리 憲法 第30條①항과 日本憲法25條에 규정된 「人間다운 生活(Menschenwürdiges Dasein)을 할 權利=生存權」에서 우러나오는 權利로 인정하여 環境權의 法理論을 展開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82)

(C) 憲法上의 기타규정 —前文, 第8條

우리 헌법 前文은 헌법의 基本精神과 原理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安全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부분도 넓게 <幸福追求權>을 선언했다고 보겠으며 第8條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Wert und Würde des Menschen)에 관한 규정도 第30條의 源泉이된 다는 點에서 環境權의 淵源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에 의해 직접 환경권을 도출하는 태도는 論理의 비약이라 하겠다。

註(76) 穂谷善洋<幸福追求의 權利>日本국회도서관 입법조사보 別冊七號P31

(77) ①金秉圭<Privacy權>東京大學校法經論叢第10輯 P86~88 ②伊藤正己<Privacy의 權利>868~70 ③東京地裁 昭和39年 9·28判決

(78) 全昌祚 前揭論文 새法政 No24 P15

(79) 68' Mich Law Review at 1265、1972

(80) ①小林直樹<憲法と環境權>ジュリストNo492P225~226②Roberts' Supra' 55 Cornell Law Review at 688~91(1970)

(82) ①仁藤一、池尾隆良「環境權의法理」法律時報 第43권3號P158 ②宮廣昭男 小栗孝夫「公害對策基本法과 調和條項」法律時報 제43권3호P566

Ⅲ환경권의 宣言性과 規範性의 問題

이상에서 검토한 憲法上의 행복추구권 내지 생존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선언적性質(프로그램적 규정)을 가지는가 아니면 규범적 성질(직접적 효력규정)을가지는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앞서 밝힌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성질을 가지는가에 의존할수 밖에 없으나 환경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겠다。

①方針規定說(綱領的, 宣言的 規定)說 生活權的 基本權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立法에 대한 方針規定(Programmvorschrift)으로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請求權이 아니고 아니고 이에 대응하는 國家義務도 법적의무가 아니고 政治的, 道義的義務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見解이다。(83)

②直接効力說(法的權利說)

오늘날 福祉國家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환경권을 단순한 이상적 「프로그램적」규정으로 보는것은 生活權의 본질적 이념에 불성실하다는 견해이다。(84) 따라서 國家는 法的義務가 있다고 한다。

이說도①國民은 立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權利만을 가질 뿐이라는 說(85)生活權은 憲法上규정으로 立法權을 羈束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할 규정을 두지 않음은 違憲無效가 되지만 現行法上 法院의 違憲審査權은 國家의 적극적 행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說(86) ③구체적으로 바로 法院에 급부를 청구할수 없다 하여도 법원은 「立法해야 된다」는 判決을 할수 있으며 國會는 立法을 구속받는 재판규범이라는 說(87)이었다。

(3) 私見(小結)=생각컨대 理論的으로는 몇가지 說이 대립되고있으나 환경권을 우리헌법 제8조와30條1항과日憲法제13조、25조에서 도출한다면 通說的 見解인 「프로그램」的 性質을 가진 것으로 봄직하다。(88)그러나 환경권의 特殊性(즉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상황)을 感知한다면 「프로그램」적 규정에서 한걸음 나가서 구체적 權利性도 어느정도 인정해야 될 것이다。그 침해양상이 심각하고 최저생활을 위협한다면 이를 법원에 직접 請求하여 구제를 주장할수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生存權으로 규정된環境權은 「프로그램」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일면에는 직접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89)

註(83) ①文鴻柱、前揭書 P239 ②金道昶 一般行政法論上 P401 ③韓相範、韓國憲法 P179 普文閣 ④朴一慶 維新憲法 P224 ⑤金哲洙 憲法學 P249~250 ⑥韓泰淵 憲法 P223

(84) 金哲洙、前揭書 P290

(85) 韓東燮、憲法 P190

(86) 金道昶、前揭書 上卷 P402 金교수님은 違憲無效說을 行政上 損失補償의 法的根據로 主張하신다。

(87) ①文鴻柱、前揭 P240 ②和田、<生存權> ③田畑編 憲法判例綜合研究 P84이하

(88) ①小林直樹 <人權思想과 環境權> 人間과 환경 P322 ②原田尙彦 <環境權과 裁判所의 役割>判例연구집 No2 65 P3 ③加藤一郎 <民法學의 現代的 課題> P312 ④註(83)참조。

(89) ①文鴻柱、前揭書 P241 ②長谷川=憲法判例의연구 P278~279 ③橫川=생존권의 保證(憲法講座 Ⅲ) ④金哲洙、前揭書 P289。

環境法規의 整備·綜合計劃 필요

"「프로그램」的 性質을가진 環境權의 特殊性 인정한다면 直接的 効力性도 인정해야"

五、環境權의侵害와 救濟方案

Ⅰ、環境權 認定의 效果—環境權에의한 爭訟의 特殊性

(1) 救濟의 容易性과 包括性

(2) 公害範圍의 확대와 공해의식의 高揚—環境權에 의한 爭訟의 大衆化

(3) 環境爭訟에대한 法院의 理解—「Standing to Sue」의 원칙과 1965년『Science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F.P.C 354 F 2nd 608』判例를 中心으로。

(4) 環境權의 定立과 綜合法的 구제의 절규—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환경법을 定立하고 종래의 法理에대한 새로운 체계적 법리의 확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밝힌바있다。이러한 환경법의 정립은 公法的(행정법)인 측면과 私法(不法行政法)的 측면을 併有하게되어 綜合法學的 구제를 실현할수 있으므로 더욱 두텁게 환경권을 보호할수있게 되었다。

이에 따른 환경정서의 합리적·계획적관리, 보호와 함께 爭訟利益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이리하여 환경권을 내용으로하는 환경법은 「Nuisance」法理의 「장글」과 地域制法에서 필요한 法技術을 선택하여 無過失責任、利益衡量의 調和、危機配分等의 諸法理에 입각한 환경권의 보호를 실현해야 하겠다。(96)

註(96) ① Prosser;Law of Torts 502(1964) ②Roberts, A National Solution to water Pollution 83. Harvard Law Review (1527. 1556) 1970. 參照

Ⅱ、環境權의 私法的 救濟

날로 심각화 되고 있는 환경오염=公害는 그 피해가 점점 複雜多岐해지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이러한 환경권의 침해를 당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합법적 법규의 정비와 완전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私法的 구제(손해배상)가 있어야할 것이다。여기서 먼저 私法的 구제방안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差止(留止)청구제도가 있는바 전자는 사후구제 방법이고 후자는 사전예방적 수단적 기능을 하는것으로 이에 論及하기로한다。

1、損害賠償에 의한 救濟(事後救濟)

가、損害賠償의 要件=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로서 실질적 구제이고 留止請求權보다 一般的이고 중요한 구제방법이다

손해배상은 크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民390條)와 불법행위로인한 경우(民750條)가 있는 바 환경권의침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民法第750條에 의한 문제일 것이다。

손해배상의 要件으로서 ①故意, 過失(主觀的 要件)②違法性(客觀的 要件)③加害行爲와 被害間의 인과관계가 있을것일 것이다。本稿에서는 일반이론에 맡기고 여기서는 主로 환경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점만 고찰하기로 하겠다。

나、主觀的 要件(故意、過失)

民法上의 일반적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産業化에 따른 企業의 規模가 거대해 짐에 따라 無過失責任論이 인정받기 시작했다。(註97)이 點에 관하여 논란이 많으며 과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被害者의 救濟에 配慮하는 見解가 있기는 하지만 (註98) 환경권의 침해(=公害)에 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이 앞서 밝힌 환경권의 歷史的, 思想的 地盤으로 볼때 타당할 것이다。

「故意」라 함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認識可能性이있는 경우도 包含한다고 理解한다면 企業側이 被害가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操業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故意까지 成立한다고 볼수 있다。(註90)

다、違法性(客觀的 要件)

이에 관하여는 學說이 다양하지만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①權利濫用論=본래 古典的인 私法의原理는 工場을 경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시키는 것은 營業의 自由이며 所有權의自由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따라 타인의 권리를 이 자유에 의해 침해하게 되어 권리남용으로 취급하여 違法性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100)환경권의침해도 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民2조②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相隣關係論:民法 第219條내지 244條에서 인접하는 부동산의 모두가 각기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권의 내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각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범위에서 협력시킬것을 필요로하는 권리관계를 相隣關係라고 한다。(101)따라서 환경권의 침해는 곧 상린관계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는 견해이다。(102)

③受忍限度論:이는 최근에 특히 공해사건과 관련되어 주장되는 학설로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一元的으로 파악하여 受認의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권이 발생된다는 견해이다。즉 공장에서 분출되는 매연이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一定 他人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권、영업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견해이다。(註103)

④私見:이상의 三說을 비교해보면 法理上 權利濫用論이나 相隣關係論은 그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立證責任이 피해자측에 있을 것이고 受認限度論은 受忍限度內의 것으로 위법성이없다는 주장=立證責任이 加害者側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의 침해에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대사회에 적응하기위해서는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강렬한 요구를 인정하여 受忍限界(度)論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受忍限度의 判定要素

受忍限度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여기에 종래의 國內外 판례에 나타난 요소를 중심으로 지면관계로 열거만 하기로한다。(104)

①公益性 (當該事業의 사회적 가치및 필요성) ②地域性 (Locality and Surroundings) ③繼續性 ④先住의 問題 (Priority of occupation; 토지이용의 先後關係) ⑤최선의 실제적 방법 (Best practical means) ⑥피해자의 특수사정 ⑦公法的 기준의 준수 ⑧관청의 허·인가 ⑨피침해이익의 성질및 정도 등이다。

(마)因果關係

앞서 밝혔듯이 환경오염、파괴의 樣相이 複雜多岐한데다가 자연과학적인 엄밀한 因果關係의 증명을 고집하다가는 그 구제가 불가능하며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전문적 지식으로나 弱者라는 관점에서 파악할때 이를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이 일반적이다。(105)

이 緩和理論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蓋然性說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疫學的 因果關係論(Epidemiology)인 것이다。(106)

蓋然性說을 간단히 살펴보면 학자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①독일의 通說, 判例의 견해를 본따서 인과관계의 立證責任을 사실상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는 길을 인정하여 (사실상 推定)原告가 어느정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느냐라는 것의 기준으로서 개연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와 ②英美法上 證據의 優勢(Preponderance of Evidence)의 관념을 도입해서 蓋然性에 관한 의미부여를 하는 견해가 있다。(107) 이두 견해는 결국 歸着點이 같을 것으로 동일하게 어느 편에 의해도 관계없지만 우리나라의 法原理가 大陸法을 다분히 계수했다는 의미에서 독일의 판례, 통설의 견해에 의함이 좋을것이다。

(바)不法行爲로인한損害賠償請求權의效果

이는 일반적 私法原理에 의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손해배상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그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도 일반불법행위청구권에 준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註97) 無過失責任의 근거로서 보통 ①주로 기업시설에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기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危險責任主義=災害補償、工作物所有者의책임) ②使用者責任(報償主義) ③物的施設등으로 손해원인을 만든 자가 배상한다는 것(기업) ④具體的 公平主義등을 들수 있다。

張庚鶴=民法大意 P466~467、

(註98) ①權龍約外 2人、前揭書Ⅲ P484~486 ②野村好松、<故意、過失責任에 있어서의 違法性> 公害의 生成과 展開 P387 1968

(註99) 安二璿、<公害에 대한 私法的救濟>法政 通卷 17號 P52、1972 7月號

(註100) 張庚鶴、前揭書 P40~41

(註101) 金曾漢、新物權法 上、P37~138

(註102) ①東孝行、前揭書 P59~76 ②末弘嚴太郞、物權法(上) P256以下(復版 昭35) ③不田文次郞、物權法論 P442以下(昭11年)

(註103) ①東孝行、前揭書 P121~151 ②篠塚昭次、「環境權」否定判決에 대한 疑問法律時報 45卷5號P18~20 ③安二璿 前揭論文 法政 No17 P52~53

(註104) ①東孝行、前揭書 P134~137 ②加藤編、「公害法의 生成과 展開」P30、西原、「公害와 會社의 責任」會社法律大事典 P666 ③安二璿、前揭論文、法政No17 P53~54

(註105) ①安二璿、前揭論文、法政No17 P54 ②東孝行、前揭書 P137~138 ③德本鎭<鑛害賠償における因果關係>法政研究27卷 2~4號 689이하 ④加藤、前揭論文 P415以下 參照

(註106) 日本國會도서관刊 입법조사월보 No44、P92以下 ②澤井裕、公害의 私法的 硏究、P230以下

(註107) 安二璿、前揭論文法政No17、54

(2) 差止(留止) 請求(事前豫防的救濟)

環境侵害、汚染이 되면 원상회복이 不可能하므로 이를 사전에 豫防하고 미연에 방지함이 가장 좋은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이미 發生한 公害로 인한 실질적구제인 損害賠償과 아울러 발생한 侵害(損害)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침해를 差止(留止)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됨은 말할 나위도없다。(108) 이것을 差止(留止) 請求=差止命令(Injunction)이라한다。(109)

(가)差止請求權의 法的根據

①物權的請求權說=물건에 대한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학설로 差止請求權의 主體는 物權者에 한하고 그 보상대상도財産的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이다。(110)

②人格權說=公害對象이 人間生活 自體를 침해하며 排他的 性格을 지닌 人格權을 침해한다고 보는 學說이다。이說도 ⓐ物權的 請求權重視說 (111)과 ⓑ單純人格權說이 있다。(112)

③不法行爲說=피해자의 권리성 유무를 막론하고 差止에의해 보호될 충분한 이익이있고 이에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113)

④계속적 權利侵害說=계속적인 권리침해로 법적 계속성、안정성을 파괴한다고 보는 소수學者의 견해이다。(114)

⑤批判(私見)=①說은 물론 留止(差止)청구권의 주체가 점유권자、임대권자등에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파괴、오염의 문제는 단순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보다 전인류의 건강과 쾌적한생활을 향유하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나쳐버린 점이 흠이다。

<5면에 계속>

特輯 第12회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中等數學에서 群槪念 指導

自然科學分野 奬勵賞 受賞作

朴 昞 榮
<師大數敎科 3年>

群槪念, 數學의 論理體系
數學 內容 統一化 시키기도
學習者의 遊戲로 群槪念개발

代數的 思考 群論에서 비롯
行動推理、이행단계 必要

(一)서론

오늘날 수학의 발전은 주로 대수학라는 어휘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수학적인 법칙이 본질적으로 대수적인 법칙임이 알려져 가고 있고, 대수는 점차 수학분야의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대수학의 전체를 떠 받치고 있는 초석은 집합 사상과 군의 개념이다. 그리고 수학 전체의 대수화의 경향을 점점 중대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이나, 원리적인 관점으로 보아 대수학의 한 분야인 군론이라 말할수 있다. 현대 대수학의 개념을 중등수학에 도입함으로써 중등수학의 이론적 구조를 명백하게 하고자한다.

그리고 대수학의 개념을 이룩하는 대수적 사고는 군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중등수학교육에서 군의 개념을 취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종래의 수학교육이 문제풀이 및 기능의 습득에 치중하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수학적 구조에 중점을 둔 학습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처음에 한 집합 위에 연산을 정하고 공리를 설정하여 집합을 구조화한 다음에 군의 기초적인 정의와 정리를 다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간단한 연습을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군의 특이한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모색 하고자 한다.

二、본론

A、군과 그의 구조

1、연산의 성질

군의 지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다。』라는개념이다. 어떠한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자유스럽고 신통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떠한 연산이 어떠한 법칙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과를 얻을수 있다.

(성질1) a,b∈A, a※b=A (Closed) (성질2) (a※b)※c=a※(b※c)' (associative law)' (성질3) a※b=b※a (Commutative law)' (성질4) a※(b※c)=a※b+a※c(distributive law)' (성질5) e※a=a, a※e=a (identity) (성질6) a※a╲1=e, a╲1※a=e (inverse)

2、군의정의

정의1

집합 S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연산"※"에 관하여 집합S는 군을 이룬다고 한다.

(Ⅰ) a,b∈S이면 a※b∈S (Closed)

(Ⅱ) a, b, c∈S일때 a※(b※c)=(a※b)※c (associative law)

(Ⅲ) e∈S, ∀a∈S에 대하여 e※a=a※e=a (Identity)

(Ⅳ) 모든원소a는 역원a╲1∈S에 관하여 a╲1※a=a※a╲1=e (Inverse)

3、가환군

집합 S가 군이며 모든 a, b∈S에 관하여 교환법칙 a※b=b※a가 성립하면 S를 가환군 (Abelian group)이라 한다.

(보기)

정수 전체의 집합I는 가법에 관해서 가환군이다.

(pf) (Ⅰ) ∀a,b∈I에 대하여 a+b∈I

(Ⅱ) ∀a,b,c∈I에 대하여 a+(b+c)=(a+b)+c

(Ⅲ) ∀a∈I에 대하여 a+(−a)=(−a)+a=0 이므로 각 a의 역원 −a∈S가 존재한다.

(Ⅳ) ∀a∈I에 대하여 a+0=0+a=a

(Ⅴ) ∀a,b∈I에 대하여 a+b=b+a이기 때문이다.

4、부분군

G와 H가 모두 등일한 연산(결합법칙)에 관해서 군이고 H⊂G일때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한다.

(보기)

Ⅰ가법에관한 정수의 군은 가법에 관한 유리수의 군의 부분군이다.

Ⅱ가법에관한 유리수의 군은 가법에 관한 실수의 군의 부분군이다.

Ⅲ승법에 관한 7을 법으로하는 정수의 집합<1,2,3,4,5,6,7,8,9>는 군이 아니다. 왜냐하면 2×5=0인데 0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합은 승법에 관한 군이되는 부분집합<2,4,6,8>을 갖는다. 6×2=2, 6×4=4, 6×6=d, 6×8=8이므로 항등원은 6이다.

5、동형군

동일한 구조를갖는 두군의 동형이라고한다. G=<a,b,c>G'=<a',b',c'…>가 동형군이면 G의 모든원소는 G'의 모든원소에 대해서 a⇄a'、b⇄b'、c⇄c'…끝의 1대1대응 또는 사상을하며、G의원소 a,b,c에 대해서 ab=c이면 G'의원소 a',b',c'에 대해서 a'b'=c'가 성립한다. 즉 a⇄a'、b⇄b'일때 ab⇄a'b'이다.

(보기) $f_1(x)=x$, $f_2(x)=-x$, $f_3(x)=\frac{1}{x}$, $f_4(x)=-\frac{1}{x}$ 이고 이들의결합법 X이 한함수를 다른함수에 대하는 것으로 정의된 군 $\langle f_1,f_2,f_3,f_4\rangle$의 승법표는 별표A와 같다.

또 승법에 관한 8을 법으로하는 정수의 집합<1,3,5,7>의 군은 다음과 같은 승법표를 갖는다. 윗 표에서 f_1 대신에1、f_2 대신에3、f_3대신에5、f_4 대신에7이라고 놓으면、아래 표가 얻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군은 사상 $f_1⇄1$, $f_2⇄3$, $f_3⇄5$, $f_4⇄7$에 관해서 동형이다. (別表B참조)

×	f_1	f_2	f_3	f_4
f_1	f_1	f_2	f_3	f_4
f_2	f_2	f_1	f_4	f_3
f_3	f_3	f_4	f_1	f_2
f_4	f_4	f_3	2f	f_1

<별표 A>

×	1	3	5	7
1	1	3	5	7
3	3	1	7	5
5	5	7	1	3
7	7	5	3	1

<별표 B>

B、군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군을 소재로 교육계획을 세운다면 처음부터 군의 법칙을 가르치는 방법을 피하여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의 개념 형식을 이룩하지않으면 안된다. Jean Piaget 가 논한 지적사고의 발달과정에서 보아 유아의 사고속에 군의 네 성질을 만족시키는 사고의 구조가 존재한다는것을 알 수가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 맞추어 수학교육을 한다면 차라리 유치원에서 군의 지도를 해야할 것이다.

군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은 유희로 학습하는 Steiner 의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유치원에서부터 군의 개념을 학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Alexandroff 의 운동군 Cayley 의 도형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운동이라는 것은 합동 이동을 말 하며 간단한 다각형의 합동 이동으로 군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음 절에서『닫혀있다』의 지도는 Dienes 의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1、「닫혀있다」의 지도

학교운동장 및 교실을 학습의 장소로 하고 아동들의 유희를 소재로 하여 군의 생각을 개발하려 한다. 제일 간단한 운동군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각 π의 회전과 각 2π의 회전하는 경우이다. 교사를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정한다. 각 π의 회전운동을 하면 아동은 교사를 등에두고 서 있고 2π 각의 회전운동을 하면 교사를 앞에 둔 최초의 상태가 된다.

이러한 운동을 여러번하여도 결국은 교사를 앞, 아니면 뒤에둔상태이다. 이것은 집합교사를 앞에두고서있는상태 (교사를 뒤에두고 서있는 상태)가 연산 (각π및 각2π의 회전운동)에 관하여 닫혀있는가를 지도하는것이다.

그리고 회전을 각0, $\frac{\pi}{2}$, $\frac{3}{2}\pi$, 2π의 회전운동을 그상태를 고찰하게하여도 좋다. 다른예로는 전등의스위치를 1번회전 2번회전하는 두운동에의하여 전등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불이켜지는 전등의 상태도 흥미있는 학습이된다.

이와같은 학습재료가 우리 생활주변에 무수히 많고 좋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므로 운동과 상태의 종류를 증가시켜 가는것은 자연스러운 학습이다. 연산의 기본법칙을 유희를통하여 배우므로 학생들은 유쾌한 학습이 된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단위원 및 역원의 법칙을 지도하는것이좋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발견학습으로 지도하면 그들 스스로가 주어진 대상이 얼핏 보아 아무관계가 없는 것 같은 중에서도 공정한 성질을 가진구조를 발견한다. 그리고 연산 또는 조작을 추상화하여 합성법을 창조하게 되어 군의 개념을 습득한다.

2 군의 정의에 관한지도

선생은 호각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킨다. 선생님의 『차렷』하는 호령에의하여 번호 1、2、3、4인 학생4명을 그림1과같이정사각형의 4정점의 위치에 세운다. 운동하지않고있는 이자세를『차렷』자세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것이 항등이동1즉 단위원이다. 다음에는 선생의호각 (한번부는 신호)을 합으로서 그림2와같이대각선 ac를 축으로하는 각π의 회전이동을 한다. 이회전 이동을 D라표시한다.

다음은 선생이 호각을 (두번부는신호) 합으로 그림 3과 같이 대각선 bd를 축으로 하는 각π의 회전운동을 D'로 표시한다. 선생이 호각을 (세번 부는 신호) 합으로 그림4와 같이 중심에 관한 각π의 회전운동을 한다. 이 회전운동을 R'로 표시한다. 학습과정에서 처음 선생의 호각 신호없이 설명으로 이 운동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학생들은 선생들은 선생의 긴설명보다 「호각신호」를 해 줄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운동한 결과에 대한 기호의 필요성과 그 편리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아동의운동이매우익숙하여지면 학생들은 상태의 고찰보다 운동의중심의 문제가됨을 알게된다. 행동운동 (차렷자세) 이외 3가지 운동들이같은운동을 2번연속하면 항등운동 1이된다. DD=I, D'+D'=I, R+R=I D+D'=R, D+R=D', D'+R=D 이다. 교로역원은 그자체가 된다. 서로 다른2가지의 운동을 연속하면 나머지운동이 일어난다. D+D'=R', D+R=D', D'+R'=D 회전운동D,D',R'와 항등운동 그룹합친 4가지운동을원소로하는 집합<I,D,D',R'>의 특이한 성질을 갖고있다는것을 학습하는 학생스스로가 알게된다.

즉 학생들은 유희 (game) 에 의한 재미있는 학습으로 집합<I,D,D',R'>이 정의 1을 만족하는 Klen의 4원군 (Four group) 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집합<I,D,D',R'>의 원소간에 연산을「+」로 표시하고 관찰하며 그림 5와 같은 덧 셈표를 얻을 수 있다. Klein 의 사원군의 학습으로써는 형태와 색깔의 변화를 고찰하여도 좋은 학습 재료가된다. 즉 형태변화 색갈변화 형태와 색갈의변화 그리고 항등의 변화를 원소로 하는 군의 학습이다. 또한 단어의 유희로서의 A、B의 두 문자로 되는 단어를 생각하는 Klein의 4원군의 지도 방법도 있다.

3、정4각형의 회전이동을 생각하자 그림6의 정사각형 중심O에 관하여 각O 회전이동을I 각$\frac{\pi}{2}$의회전이동을 R、각π의 회전이동을 R'、각 $\frac{3}{2}\pi$의 회전이동을 R''로 하면 군<I,R,R',R''>가 형성된다. 그리고 수평축 MN에관한 각π의 회전H、수직축PQ에관한 각π의 회전V、대각선AC에관한 각π의 회전D、대각선 BD에관한 각π의회전을 D'라 하면 정4각형의 회전이동의 군은 G=<I,R,R',R'',H,V,D,D'>이다.

G의 원소간의 합성 (연산)의 결과로 그림 7과같은 가법표를 얻는다. 이 가법표는 학생들이 유희를통한 학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G는 정의1이 만족됨을 유쾌한 학습으로 관찰할수있다. 이 학습을 더 발전시키면 학생들은 G=<I,R,R',R'',H,V,D>에서 군이되는 부분집합이아닌) 들을 발견한다. 즉 [illegible]과같은 lattice diagram 으로 표시되는 부분군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원소가 4개인 G의 부분군<I,R,R',R''>을 발견함으로써 원소가 4개인 모든 집합은 Klein 의 4원군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4、군의 정리의지도

정3각형의 합동이동으로 군의정리를 학습하고자 한다. 유희를 적용하지않고 치환으로 합동이동을 전개하겠다.

(1) 정3각형의 합동이동

처음에 평면내에서 합동이동은 중심에관한 각O, $\frac{2}{3}\pi$, $\frac{4}{3}\pi$의 회전이동이다. 그림9와같은 최초의 상태를 항등이동이라하고 I로 표시한다. I는 중심에관한 각O의 회전이다. 이것을 대응관계로 나타내면I=1↓1、2↓2、3↓3 다음에는 중심에관한 각$\frac{4}{3}\pi$의 회전이동 r은그림10에서 보여주는것같이 처음위치의 삼각형이 정점과 회전후의 정점을다음과같이 대응관계로 표시 할 수있다.

따라서 회전 운동은 r:1→2, 2→3, 3→1 이다. 정3각형의 중심에 관하여 각 $\frac{4}{3}\pi$의 회전이 동 r^2은 그림 11과 같이 r^2;1→3, 2→1, 3→2

그리고 r 의 운동을 한사다음 계속하여 r^2의 운동을 하는 것을 r,r^2이로나타낸다.

r r^2 따라서 I
1→2→1 1→1
2→3→2 2→2
3→1→3 3→3 따라서 $r\cdot r^2=I$

$r\cdot r=r^2$, $r^2\cdot r^2=r$, $r^2\cdot r=r\cdot r^2=I$ 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langle r,r^2r^3=I\rangle$이 가환군이다.

정3각형의 회전이동의 군에서 하나의 본질적인특색은원소 r의면<r>을 순서있게 나열하여 보면 알수었다. $\langle r,r^2,r^3,r^4\ldots\rangle$. $r^3=I$이므로윘수열은$\langle r,r^2,I,r,r^2I\ldots\rangle$ 라고 쓸수있다. 이것은 기본7 r,r^2,I의 순외적인것이 발견된다. 이군$\langle r,r^2,I\rangle$을 위수3인순회 군 (Cyclic group) 이라한다. 다음에는 3차공간에서의 회전전축은 아래그림 13과같이 V,D,D 가있다. V를 축으로하는 각π의 회전이동은 f;1→3,2→2,3→1 D를 축으로하는 회전이동은fr; 1→1 2→3, 3→2, D'를 축으로 하는 각π의 회전 이동은 fr^2;1→2, 2→1, 3→3=$r^3\cdot f=I\cdot f=f$ ($r^3=I$) 따라서 정3각형의 모든 합동이동의 군T=$\langle I,r,r^2,f,fr,fr^2\rangle$를 얻는다.

표-1에서 f·fr은

f fr r
1→1→2 따라서 1→2
2→2→3 2→3
3→3→1 3→1

즉 f·fr=r 표 T에서 fr·f는

fr f r^2
1→1→3 따라서 1→3
3→3→1 2→1
3→2→2 3→2

즉 fr·f=r^2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14와 같은 곱셈표를 만들수있다. 이 곱셈표로 군의정리를 학습할 수 있다.

정리

군T=$\langle I,r^2,f,fr,fr^2\rangle$에서의 임의의 원소 r,f가 알려진 원소일 때 r·x=f되는 T의원소 $x=\frac{1}{r}\cdot f$가 일의적으로 존재한다. (증명)

$r\cdot(\frac{1}{r}\cdot f)=(r\cdot\frac{1}{r})\cdot f$ (종합의 법칙)$=(r\cdot r^2)\cdot f$ ($\because\frac{1}{r}=r^2$)$=r^3\cdot f=I\cdot f=f$ ($r^3=I$) $\therefore x=\frac{1}{r}\cdot f$는 $r\cdot x=f$의 해 (Solution)이다. 곱셈표를 보면 $x=\frac{1}{x}\cdot f=r^2\cdot f=r\cdot(r\cdot f)=r\cdot fr^2=fr$ ∴fr∈T 이므로 X∈T 이다. 해 $x=\frac{1}{r}\cdot f$가 일의적인 해가 아니면다른 제2해가 있다. 즉 $r\cdot y=f$로된다. $\frac{1}{r}$이 T의 원소로 존재하니 $\frac{1}{r}\cdot(r\cdot y)=\frac{1}{r}\cdot f$ 즉 $\frac{1}{r}\cdot f$는 일의적인 해이다.

Ⅲ、결론

결론으로 군의 개념을 중등수학에 도입함으로써 수학교육의 현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군의 개념은 수학의 기본개념에 엄밀한 논리적 체계를준다. 이 논리체계밑에서 전한 설정을 통하여 수 바탕으로 하는 학습지도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2) 군의 지도는 현대수학의 한 방법인 공리적 방법을습득시킬 수 있다.

즉 어떤 집합에 도입 된 연산의 특정밑에서 공리계를 정하여 주어진 집합을구조화 (대수적구조、순서구조、위상구조) 라는 수학 구성의 방법을 지도할수있다. (3) 종래의수학의 학습에서는 수량 또는 도형만이 수학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의 학습에서는 수량또는 변환이 적용되어 연산의 대상이 수량 이외도 있음을 알수있다. 이것은 현대수학에서의 추상성의 일면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현대화운동에 큰 영향을 준다.

(4) 군의 개념을 발견 학습으로 지도하면 학생 스스로가 주어진 대상이 얼핏보아 아무 관계가 없는것 같은 중에서도 공통한 구조를 발견한다. 그리고 연산 또는 조작을 추상화하여 합성법을 창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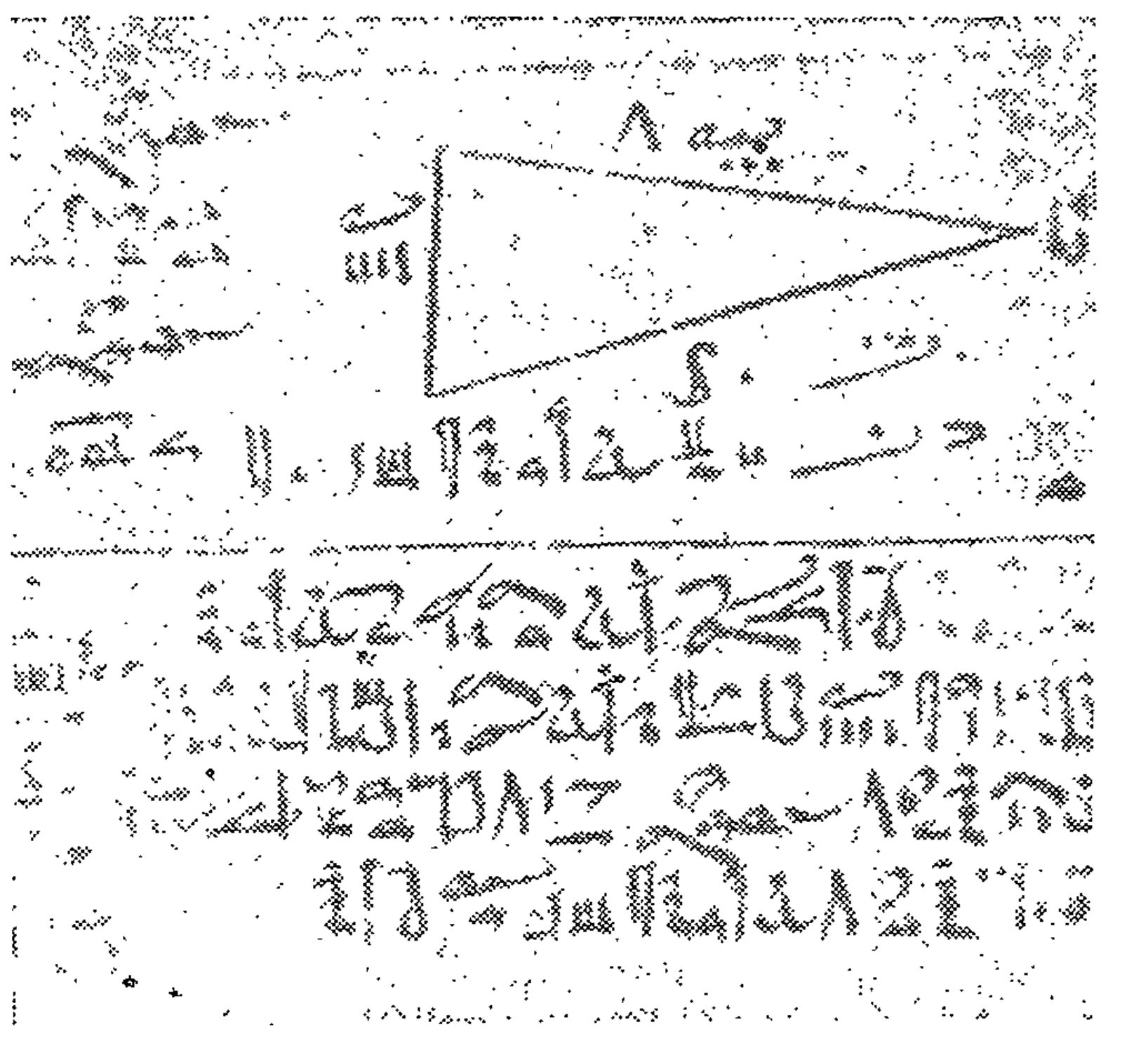
(5) 군은 대수및 기하의 영역에 프함되어 수학의 내요 전체에 적절한 용어를 주어 수학을 통일된 방법으로 일관할수 있게한다. 중등수학에 군을 도입함으로써 위와 같은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만 추상적인 체계를 다시 추상화하는 군의 교과과정에 넣는것은 문제시되는 점이없지않다.

그러나 Dienes 의 방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군의 개념을 의식시킬수 있다는 입증을 본 실험적 연구에서 얻었다. 그리고 추상적 군을 직관화할 간단한 운동군을 장기간의 이행단계로 실험적학습을 지도하면 학생들이 조직적 사고에관한 반성을 일으켜 군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상의 상급학교에서는 직접 추상적인 군을 취급 할수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Jean Piaget 에 의하면 7세기경부터 아동들은 모르지기 집합군 Vector 등의 조작을 하고 있지만 의식못하고 있고 행동 추리의 기본적 구도가 반성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이행단계를 결쳐야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사고 발달과정에 맞는 적절한 교재가 제시되면학습고가 군의 개념에 관한 형성이가 능하다는 심리적 배경이다.

<참고 문헌>

1、A.H. Lightston「symbolic logic and the read Numbersyslem」
2、P.s Alexand roff「A.U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oup」
3、Boyd Earl「Groups and helds,」McGraw-Hill
4、I Grossman V & W Magnus「Group and Graph」
5、Diaget「인간 심리학」
6、학교수학「한국수학교육연구회발행」
7、Mayr P. Dolciani「Modern school mathematicsAlgebraⅠ. Ⅱ」



◇古代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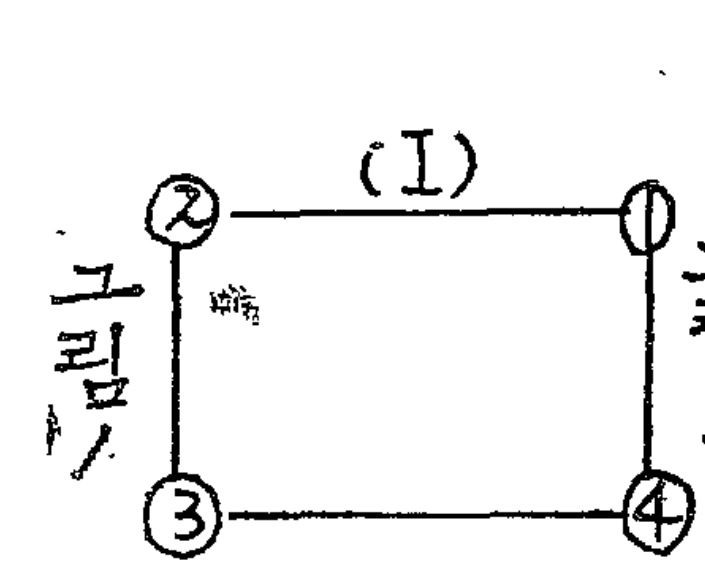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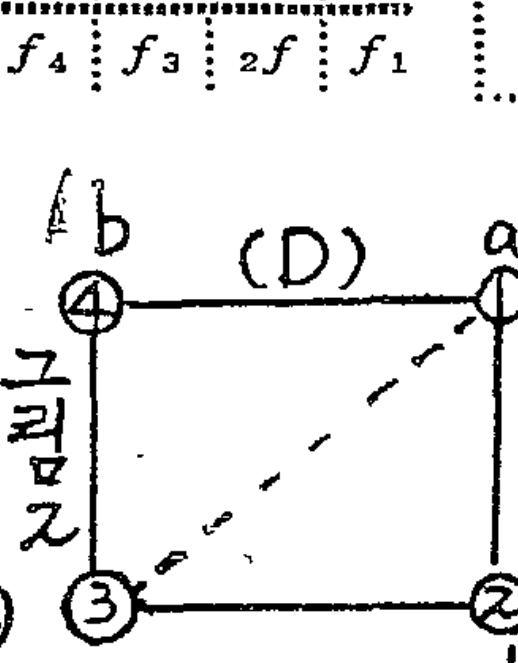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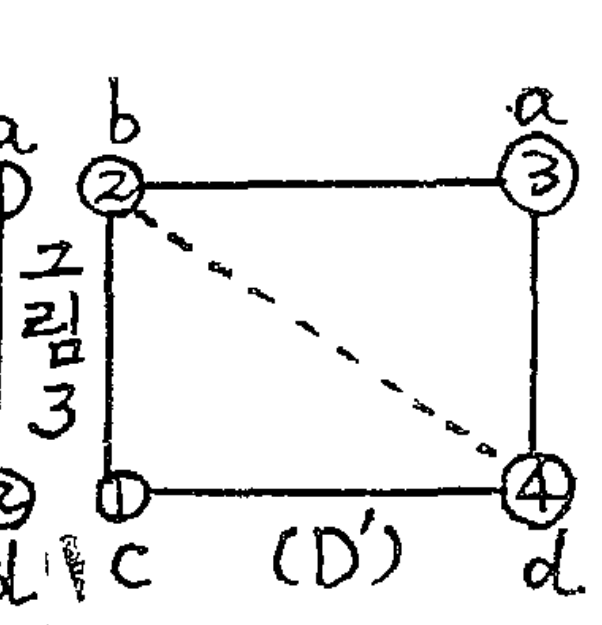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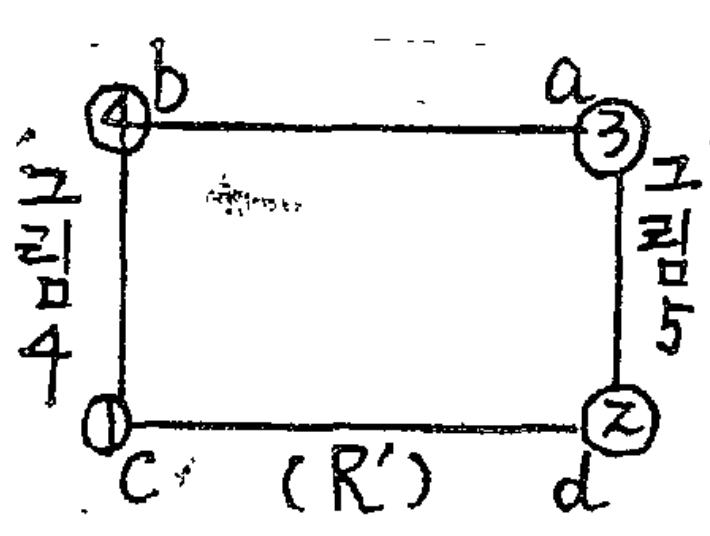


그림5

+	I	D	D'	R'
I	I	D	D'	R'
D	D	I	R'	D'
D'	D'	R'	I	D
R'	R'	D'	D	I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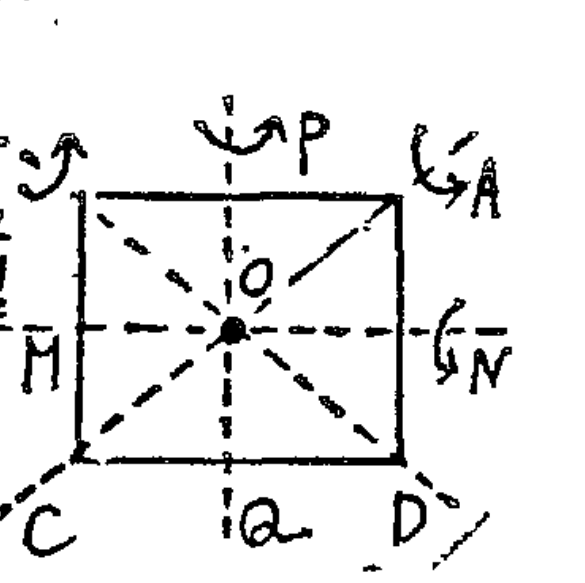


그림7

+	I	R	R'	R''	H	V	D	D'
I	I	R	R'	R''	H	V	D	D'
R	R	R'	R'	I	D	D'	V	H
R'	R'	R''	I	R	V	H	D'	D
R''	R''	I	R	R'	D'	D	H	V
H	H	D'	V	D	I	R'	R''	R
V	V	D	H	D'	R'	I	R	R''
D	D	H	D'	V	R	R''	I	R
D'	D'	V	D	H	R''	R	R'	I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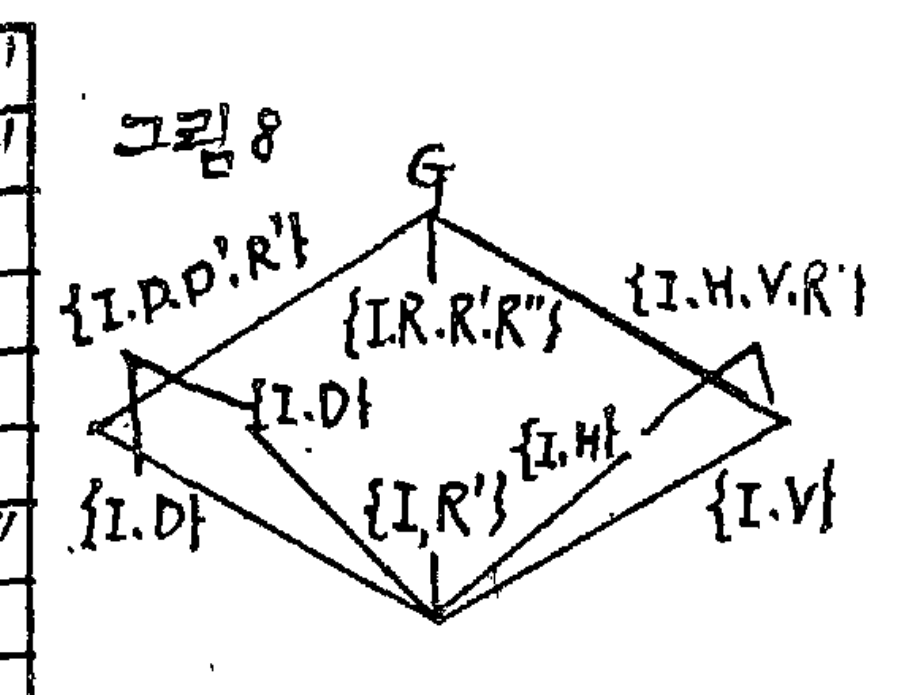


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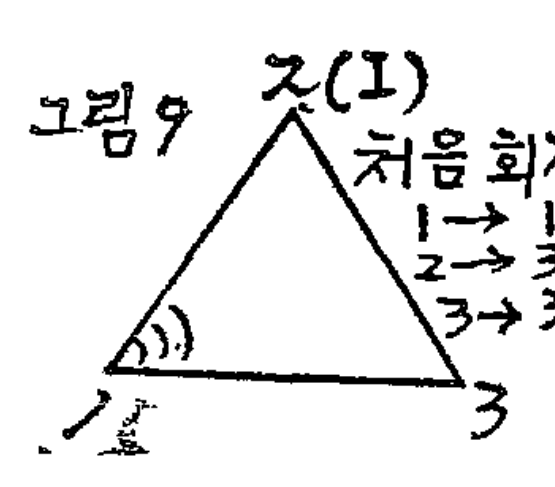


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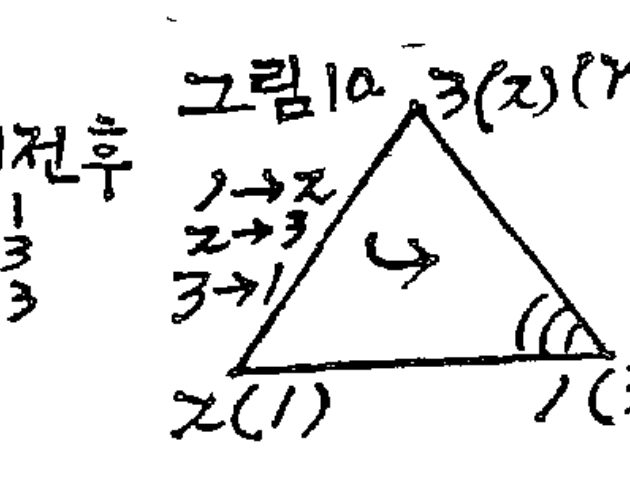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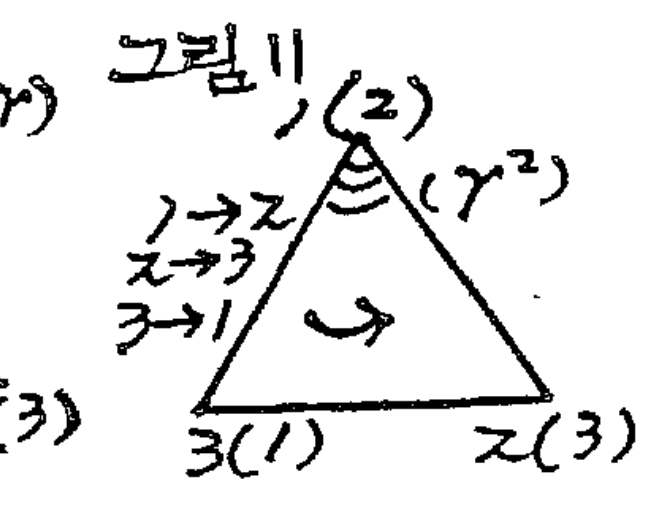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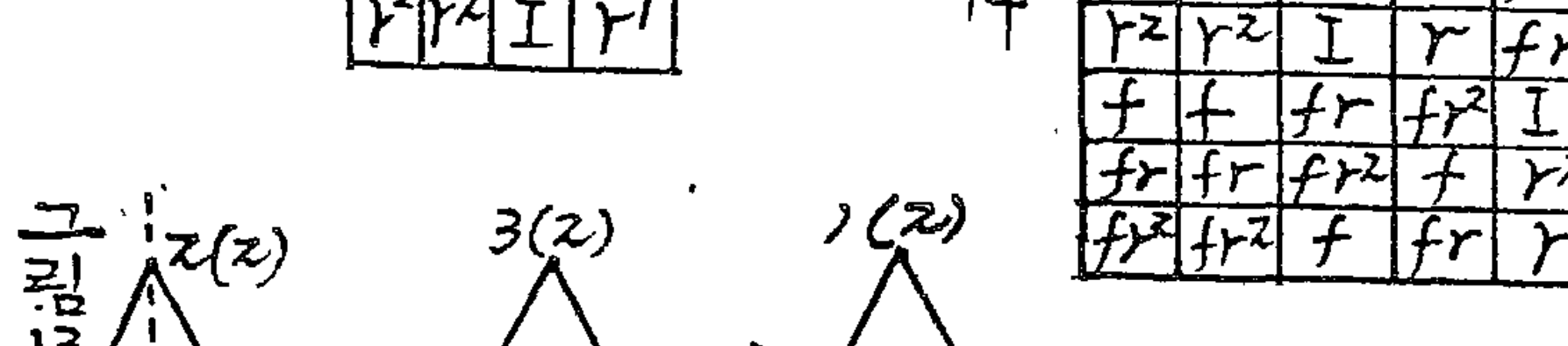
그림12

+	I	r	r^2
I	I	r	r^2
r	r	r^2	I
r^2	r^2	I	r'

그림14

O	I	r	r^2	f	fr	fr^2
I	I	r	r^2	f	fr	fr^2
r	r	r^2	I	fr^2	f	fr
r^2	r^2	I	r	fr	fr^2	f
f	f	fr	fr^2	I	r	r^2
fr	fr	fr^2	f	r^2	I	r
fr^2	fr^2	f	fr	r	r^2	I

그림13



<4면에서 계속>

②說도 保護法益의 實體를 직시하고①說의 권리보호범위를 확장하는 계기를확립한점이 일보 전진됐지만 人格權을 배타적 권리로인정하면서 차지청구를 差止에서받는 가해자의 손실과 가해자의 손실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결함이있다. (115)

③說은 피해法益의 권리성을 인정치않고 利益較量에 의하여 가해자와 이익을 피하려는데 결점이 있다. 이익교량의기준도여모호하게 되어 타당하다고볼수없다. ④說도 그기준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하다.

따라서 고전적인 제학설은 많은 결함을 갖고있으며 최근 주장되고 있는「環境權說」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116)이에 의하면 건강 또는物的피해이전에 자기와 관계되는 環境整序의 파괴가 있으면 차지청구를 할수 있으며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는것이다. 그리고 差止請求權者도 物權者에 한정지 않고 환경파괴와 관계있는 환경권의 주체이면 해당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필요로 하지않는다. (117) 이것이 곧 환경권을 보호하고 전인류의 안녕과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임을 자각해야할것이다.

(註108) 東孝行、前揭書 P78~80參照

(註109)이는 英美法의 Injunction에 해당하며 差止請求權、禁止請求權、中止請求權、留止請求權 등으로 用語의 통일을 이루지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東孝行博士의 견해에따라 差止請求(命令)이란 用語를 쓰기로 한다.

(註110) 山口和男「公害訴訟」實務民事訴訟講座 10卷(昭45年) P209

(註111)①澤井裕、前揭書 公害의 私法的研究 P151 ②西原「公害에 對한 私法的 救濟의 特質과 機能」③戒能編「公害法의 研究」P29 ④岡松正巖<公害의 豫防과 排除> 法律時報40卷16號 P13以下

(註112) 加藤一郞編「公害法의 生成과 展開」昭43年 P20이하 참조

(註113)①加藤一郞編 前揭書 P43 8~9 ②野村好弘 <公害의 判例> 昭46年 P263이하

(註114)①德本鎭 前揭 <公害의 私法的 救濟> ②戒能編 前揭書 公害法의 研究 P112이하 ③西原·佐藤編, 公害對策Ⅰ P24

(註115)高柳信一、前揭論文、法律時報43卷8號參照

(註116)全昌祚、前揭論文、法政 No24 P16

(註117)①全昌祚、前揭論文、法政No24 P16~17 ②法律時報 46卷5號 P8~64 참조

Ⅲ、環境權의 公法(行政法)的 救濟

(1) 環境法規의 整備와 綜合計劃

「環境權」의 定立은 종래의 公害行政의 새로운 出發點이 될 것이고 公害行政法規의 解釋 適用에 대한 새로운 指導理念을 提示함을 의미한다 (註118) 環境權에 의한 法規의 整備가 선진제국에서는 近來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국제회의를 통해 環境整序의 汚染、侵害에대한 새로운 認識이 요청되었다는 點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에서도 未來指向的인面에서 이를 檢討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종래의 公害行政이 발생한 被害에 대한 事後對策的인 救濟에 重點을 두었던것이 사실이며 이른바「臨機應變」式 行政이었다는 矛盾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點을 반성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環境保全淨化를 志向해서 綜合計劃的인 事前對策을 치밀히 세워야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一環境整序의 보호와 통제를 위한一行政機關이 整備되어야 할것이고 이에 관한 연구기관 및 연구담당자를 育成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물론 이에 준하는 담당기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 一元的體制와 연구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또한 公害防止法을 비롯한 公害法規의 散在를 總體的으로 一元化를 위해 環境法制의 立法과 修正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美國의 國家環境政策法、環境改善法과 같은 法規가 立法化될 단계라 할수 있다.

(2) 環境整序 行政指導

環境整序行政 또는 生活空間整序行政이라함은『국민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공간적 조건을 有形的으로保全, 정비, 개선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국민의 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규제, 조정, 조장 유도하는 公行政活動』이라고 定義된다. (주119) 이러한 의미의 環境整序 行政이나 生活空間整序行政의 개념은 아직 行政法學的으로 定住된 것이 아니며 그 표현도 일정치 않다 (주120).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이 지배하여 給付行政(福祉行政)의 발전과 더불어 環境整序行政은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다분히 지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社會生態學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 규제와 합리적 계획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3) 反射的 利益論의 극복과 行政訴訟

環境權思想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앞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단순 反射的 利益論도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도 論述한바 있다. 그런데「環境整序」의 權利는 行政法의 法理에 의해 自然環境의 보전은 오로지 국가적、社會公共의 公的 課題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그 계획、관리는 국가나 公共團體에 전속하며 私人의 私的利益을 주장하여 참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종래의 지배적 학설이다. 즉 주민은 단순히 行政力의 발동으로 環境管理에 부수되는 反射的 이익에 불과하며 개인적 法益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주121). 이러한 反射的利益論의 근거는 종래의 소극적 行政 即 秩序維持를 목적으로하는 고전적 警察法理論에서 찾을수있다.

그러나 복지행정적인 측면에 중점을두어 파악하려는 기운이 돌고 있다.

따라서 環境權에 의한 私的權利性을 인정하여 개인적인 行政訴訟은 물론 주민전체가 피해자일 경우 공동소송=주민소송에 의한 행정소송이 인정되며 선진제국의 判例가 이를 證明해 준다 (주122)

이에 따른 완전하고 합리적 보상을위한 節次法의 立法이 시급히 요청된다. (환경소송절차법이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立法政策的 후원시급

近代 私法原理와 충돌예상

調和克服의 論理가 前提條件

(4) 企業責任의 加重과 社會性

환경권을 승인하여 全人類의 快適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國民一나가서는 전세계의 次元에서 共有에속하는 가치있는 環境整序를 보호할 全人類의 예지와 協同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企業은 社會的 責任과 社會性을 인식하여 자기반성적 태도로 환경오염또는 파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케 할 것이며 그 비용을 企業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를위한 行政의 통제적 기능으로 公害費用負擔에 관한 立法에 法理的 근거를 環境權思想이 제공하는 同時에「公害稅」와같은 目的稅의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註123)

(註118) 全昌祚、前揭論文 法政 No24 P17

(註119) 金道昶、前揭書下卷 P359

(註120) 金道昶、前揭書下卷P359 西獨의 Raumordnung또는 Raumgestaltung이라는 말에서 由來한다. 이말은 「본」基本法 第75條①항4號에 사용되고 있으며 Raumordrungsgesetz (生活空間形成法) (聯邦法律公報第1卷360P) 이라는 법률도 1965년 制定된바있다. 同法은 우리나라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가까운것이다.

註 (121) (122)는 省略

(註123)①東京大學公開講座<人間과環境>P324 ②日本國會도서관 立法調査月報 No47 9 P74<環境權確立에 關한 提言>前揭

六、結論=試練과克服의 論理

以上을 통하여 環境權의 法理를 中心으로 環境整序의 保護와 統制에關한 斷片的 考察을 해보았다.

複雜性과 심각성의 度를 더해 가는現代社會의 갖가지 問題 가운데 특히 環境整序의 汚染 破壞(主로 公害問題)에 대한 對策問題는 全人類의 生存에직결되는 問題라는데 그 意識과 狀況이 높아지는 것이다.

環境權이라 새로운 權利를 確立하자는 發祥點은 公害로 인한 環境整序의 破壞汚染에 보다 積極的이고 劃一的이며 綜合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새로운 法的保護와 統制의 必然性에 있는 것이다. 環境權思想은 앞서 밝혔듯이 古代國家時代부터 意識되어온 自然法思想이 歷史的 脈絡속에서 그 地盤이 굳어져 20世紀에들어와서 生存權(生活權的基本權)으로 確立된 것이며 갑자기 生成된 것이 아니다. 마치 勞動權思想이 19C以後에 많은 勞動法規와 憲法上 權利로 확인 宣言된 것과같이 環境權도 憲法上 實定法上 (環境法規) 확인되게 되었다는 點도 旣述한 바 있다. 특히 憲法上으로는 人間다운生活을 할 權利(憲30條①項)나 幸福追求權(日憲13條,韓憲前文)의 一部로 環境權을 인정할 수 있고 環境法秩序가 各國에서 整備되었거나 그 도중에 있는것이며 世紀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의미에서 1972年6月「스톡홀름」에서 UN國際環境會議가 개최되어 環境權을 宣言한것과 이에 關한 條約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環境權에 의한 爭訟과 判例가 美國、日本을 비롯한 先進諸國에서는 最近에 나타나고있는 점도 앞서 檢討하였거니와 단순한 종래의 公害法理보다 一步 前進한 環境權의 法原理가 適用되고 있다는 點은 注目할만한 일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권은 새로운 權利로 확인되고 宣言된 역사가 日淺한 관계로 여러가지로 法理論上 學者들 사이에 見解差異가 없는것은 아니다. 環境權이 憲法上 認定된 權利로 파악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이 具體的 權利性 내지 直接的效力이 發生하느냐의 문제도「프로그램」的 規定이라고 보는것이 通說的見解이다. 그렇다고 直接的效力을 완전排除하는것은 時代的 문제의식으로 보아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타당하지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예컨데 最低限度의 건강을 침해받을 경우에 이에관한 立法의 보상이 없다고 하여도 憲法規定에 의해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直接的效力의 문제는 社會의 변천에 따라 더욱 앞으로는 강하게 요청될 것으로믿는다.

점차 시대적 추세는 個人主義的 契約自由내지 企業自由의 法理를 수정하고企業의 無過失責任主義、기업의 사회성에따른 책임의 가중등으로 私法上의 法原理도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권이 확립된다면 환경법의 체계적 정비로 종래의 散漫하던 公害法規를 一元化할수있고 그 침해를 받았을 경우 私法的으로는 無過失責任、立證責任을 加害者(企業)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一定地域 주민들이 피해자일 경우 共同訴訟이 가능하다는 점등으로 그救濟가 용이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公法(行政法)的 구제로서 環境整序行政 내지 生活空間行政을 통해 事前豫防的 행정처분과 지도、계몽을 강구할 수 있으며 事後에도 강력한 公權力의 發動으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刑法上으로는 범죄로 인정하여 그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것이다.

물론 環境權思想의 확립으로 헌법상 또는 實定法上 확인되고 선언되어 법규가 完備된다고 하여도 국민 각자의 의식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가치는상실될 것이며 정책적 뒷받침이 倂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 민족 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인류의 세계적 차원에서해결할 문제라는 점도 感知해야 되며 이를 위한 國內外 기구의 정비와 연구기관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아울러 環境權의 法體系를 확립하기위해서는 종래의 法體系와 충동이 예상되며 無抵抗的으로 받여 들여진다고 낙관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올바른 應戰 태세를 定立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法學者는 물론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동하에 공동연구를 통해『環境科學』을 개척하기 위해 투입되어야할 것이다.

特輯 第12회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꼭둑각시의 죽음

創作文學分野 奬勵賞 受賞作

高鍾觀
<佛敎大·印哲科>

〈때〉제한없음
〈곳〉강원도 어느 탄광
〈나오는 사람들〉
광부A·광부B─광산에서 일생을 살아온 40세 가량의 남자들
견습기사C─광산에 갓 들어온 젊은이。앳띠어 보인다。

〈一場〉

갱의 일부。곧 무너질 듯한 불안한 느낌。갱목들이 위태하게 서있고 가운데로 레일이 놓여있다。갱구는 좌우 양쪽에 있으며 바깥쪽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다。막이 열리면서 광부들이 피곤한 동작으로 매우 느리게 왼쪽 갱구로 부터 나와 오른쪽 갱구로 사라진다。모두 말이 없다。광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실체가 없어도 좋다。다시 두명의 광부가 석탄차를 몰고 오른쪽 갱으로 사라진뒤 광부 A와 B가 천천히 왼쪽으로부터 나타난다。무대 중간에 멈춘다。

A=(하품하면서) 어젠 한잠도못잤어。

B=(따라 하면서) 정말이지 밤새도록 개가 짖어 댔으니 원 시끄러워서。

A=애들은 칭얼거리구。

B=마누라는 보채구。

A、B 다시 긴 하품。

이때 조금씩 굴이 흔들리는 소리가들리더니 C가 오른쪽 갱구로부터 뛰어나오며

C=굴이 무너지고 있어요!

A·B·C 함께 왼쪽으로 달려 나가려는 순간 묵중하고 둔탁한 굉음과 함께 양쪽 갱구로 부터 구름같은 먼지가 흘러 들어오면서 갱구 닫힌다。잠시동안 무대는 어둠과 잔잔하게 지속이 흔들리는 소리와 신음소리。얼마후 모든 것이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무대는 어둠과침묵을 지키며、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냄으로서 이들이 이미 삶을 체념한상태임을 알려줘야 한다。

희미하게 무대 밝아 지면서 몇 개의 갱목이 쓰러져 있고 A와 B는 쓰러진 갱목 위에 나란히 턱을 받힌 채 앉아 있다。C는 갱구가까이에나둥그라져있다。

A=꽤 답답하군。

B=시간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겠지。

A=감방 같다。가장 무거운 형벌을받은 자들이 거처하는。

B=똑같이 사형선고를 받았어도 인간들이 감시하는 곳은 이곳 보다 훨씬 견디기가 쉬울거야。

A=아 너무 조용해、마치 귀가 없는 것 같잖아。

B=눈도、귀도、혀도、온 몸뚱아리가 없는것 같다。답답한 마음만 살아 견딜수 없이 커져 가는군。

A=자네 불안한가?

B=천만에! 지루할 뿐이지。

A=정말 지루하군、뭐 할일이 없을까?

B=굴이라도 파볼까。

A=지하 300m야。죽은것이나 다름 없어。

B=그래도 그것밖에는 할일이 없지않는가? 이대로 앉아있기란…。

A=생각을 해보자。견딜수 있는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A、B 각자 돌아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잠시후─

A=(생각이 난듯 돌아 앉으며) 자넨 열렬한 신자라고 했지?

B=(고개를 끄덕인다)

A=그 神을 이곳에 초대해 볼 수는 없을까?

B=그가 이곳에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A=무능한 신인가 보군。

B=그렇지 않아。인간이 많아짐에 따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그러니 찾아가지 않으면…

A=꽤 오만한 神인가 보군。

B=홍、그럼 자네가 믿는 神은?

A=항상 내곁을따라다니지。아니야 내가 데리고다니는 셈이 되나? (주머니를 뒤진다) 여기에 분명히있었는데。(당황하며 옷옷을 벗어 거꾸로들고 털어본다。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화가나서) 제기랄 이 굴이 무서운 모양이지 안나오는걸 보니。

B=자네 神은 무척 겁장이군。

A=(화가 난듯 성냥을 꺼내 옷을 불살으려 한다。)

B=(저지하며) 아니 자네 옷은 왜태우려 하지?

A=신을 죽일려구。이젠 그도 죽을시간이야。

B=만약 자네의 神이 옷속에 들어있다면 지금 자네가 하는 짓은 완전한 배신이야。정당한 이유라도 있나?

A=이유? 있구말구! 신은 산자만을 위해 존재 하는것은 아니거든。내가 죽을때 꼭 데려 가야겠어。인간이 태여났을 때 신도 나타났듯이。

B=신은 죽은자에게 안락을 준다고했어。

A=안락 좋아 하시는군。여태 까지의 나의 행동엔 많은 제약을 주었으면서도 마음의 안락은 눈곱만치도 가져오지 않았지。지금도 역시…。

B=그건 믿음의 정도가 얕았기 때문이 아닐까?

A=좌우간 난 그를 먹여살렸단 말야

B=천벌을 받을 짓이군。

A=(벌컥 화내며) 왜 천벌을 내리기 전에 구원을 하지 못하나?

B=스스로 찾아 가야돼! 구원을 받기 위해선。

A=(비웃으며) 그럼 찾아가 보시지。

B=찾아 갈테야、육신이 죽으면 영혼만이라도 (무릎을 꿇으며) 그래서 이 어둠이 시간을 좀먹지 않는 영원한 태양아래서 마음껏 달리며 살게 해달라고 애원 해야겠어。

A=실컷 해 보라구! 나타나지도 않는 神을 기다리는 뭇 인간들의 잘중。그들은 이 지루한 삶을 단지 위안하고 싶을 뿐이야。자─。나를 보라구。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 줄테니까。

(A、옷에 불을 당긴다)

B=자식 푸닥거리를 하는군。(갱내에 연기가 가득 찬다)

B=(눈을 비비며) 자넨 구원받긴 다 글렀어。

A=(기침을 하며) 아─이제 신도구원을 받았다。그것도 내 손으로。

B=이젠 불을 끄자、숨을 못쉬겠어。

(A、B 발로 불을 끈다)

(A、B 처음의 자세로 나란히 갱목위에 앉는다。잠시 침묵)

A=(추운 듯 몸을 움추리다 재채기를 한다)

B=아 마누라 생각 나는군。

A=하기야 마누라가 예쁘니 불안도하겠지。

B=자넨 걱정할 필요가 없네。지금마누라는 임신을 하고 있거든 아직도 3개월 동안은 뱃속에서 나대신 엄중한감시를 하고 있지。3개월 그렇지 꼭 3개월 남았지。

A=그런데 말이야。자네 아내는 항상 배가 불러 있더군。

B=아이 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거든。

A=(감탄하듯 손바닥을 치며) 아내를 감시하는덴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군그래。단지·그 이유만으로 10년을 한결같이…。(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B=그러니 이런 고된 일을 하면서도 아내 의심 한번 하지않고 속편하게 지내왔지 않나、비록 밤에는 못난 남편이지만─

A=그럼 아이들이 꽤 많을텐데。(의심을 품으며) 지금은 둘 밖엔 없지 않나? (흠짓 놀라며) 죽였군! 낳자마자어린 생명을 어머니 품속에 뺏어내 살인한 게로군。

B=아니야 병사 (病死) 였어!

A=개만도 못한 녀석。그래 날 때마다 병사란 말인가?

B=(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쩔수 없었다구。뻔한 우리생활이 아닌가!

A=(한탄조로) 결국 아내에겐 정절을 지킬 기회를뺏어 버리고 자식들에겐 자신의 못난 점을 보충시키기 위해 희생을 강요한 것이로군。

B=그렇지 않다니까! 자네가 관심 둘게 뭐 있나。

A=위선자! 타락자! 인간백정!

B=뭐라구! (흥분한다。B의 목을 거머잡는다。조른다。A 반항하며 엎치락뒤치락 거리며 싸운다。)

─행동은 느리며 익살스럽게─

C=이때 신음소리와함께 C가 움직인다。A、B 싸움을 중지하고 C에게 달려가 부축한다。갱목위에 앉힌다。

A=젊은 사람이 안됐군。

C=(머리를 흔들며 의식을 차린다) 여기가 어디죠?

B=(장난기 있게) 에미 뱃속이다。

C=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군요。(주위를 휘둘러 본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B=너의 형제가 될 반쪽 인간、아니 삶의 경쟁자일지도 모르지。(웃는다)

C=(멋적어 하면) 경쟁자 치곤 너무 늙은 것 같군요。그런데 왜 가만히들앉아 있기만 합니까? 빨리들 가야 되지 않읍니까?

A=어디를?

C=(갱구를 가리키며) 저기 저 완전한 생명의 부르심을 향하여─。

B=(그럴듯하게) 너무 늦었어。에미는 단 하나만의 자식을 원하거든。

C=(비통해하며) 늦었다뇨! 그럼 우린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A=태어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야。일찌감치 예서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지。

C=세상에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읍니까?

A=유기체가 이성을 가진후로 가장위대한 발견이지。

B=(C에게 손가락질 하며) 너에게사고(思考)를 할수있게 만든 神을 저주한다。

C=살아 있는 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죽음을 기다리는 것 처럼 애매한 삶은 없읍니다!(왼쪽 갱구로 달려가 막힌 갱구를 주먹으로 친다。)

C=(절규하듯) 문을 열어 주세요!왜 문을 닫았읍니까? 문을 여세요。누가 문을 닫았소。당신은 신도아니지 않읍니까? 왜 우리를 농락하는 거죠。문을 열어요! 문을!

A=제 정신이 아니군。

B=경험이 적은 탓이겠지。

(C는 괴롭게 몸부림 치다가 처음 자세와 같이 나동그라진다。)

(A、B 시무룩해지면)

A=아 또 무료해 지는군。

B=살고 싶다는 욕망 보다도 살아있다는 지루함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

A=이젠 신도 죽였다。

B=지상의 모든 인간들도 우리를 단념했다。

A=아휴 답답해。(일어나 굴안을 거닐다가) 자네 유서 써 본적이 있나? 이제와서 자살이 죄가 되진 않겠지。

B=자살을 하겠단 말인가?

A=맞았어。이때 이 기발한 계획。

B=죽을수없어、어떻게 무모한 죽음인데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다니。

A=(관중석을 향하여 나오면) 자살、자살은 생명을가진 자의 권리다。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겐 오락이다。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절호의 기회다。(詩를 읽듯이) 우주의 온생명이 우리의 죽음에 귀를 기울이고、우리의 죽음을 찬양하며、자신의 생명을 뉘우치게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왜 그들은 살려고만 하는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을 비웃으려하는가?죽을 자리를 미리 봐두고 고뇌의 회고록을 미리 써두면 아─。마음은 편안한것。우리는 우주의 사슬을 끊어 버린다。(A를 돌아보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야!

B=지금에 와서 자살은 자기 기만밖에는 될 수없어 자살은 진실한 행동이 아니야。자네는 신은 죽일수 있었겠지만 자네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네。(일어나 관중을 향해 걸어 나오면) 우주의모든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외면한다。우리의 죽음을 조롱하고 자신의 생명에애착을 가진다。무료하지만 기다려라。거짓의 회고록을 쓰지 말라。그러면 생명은 영원해 지려니─。

A=(B의 멱살을 잡으며) 어차피 죽을텐데 무엇을 더 기다린단 말인가!

B=어차피 죽을텐데 무엇을 더 못기다린단 말인가!

A=유서를 쓸 수없단 말이지。

B=유서는 너같은 자살론자들이 쓰는 것이 아니야。유서는 다음 생명에 지표가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야돼。산 자에게 눈물로 동정을 바라는 죽음은 결코 하지 않겠다。

A=(슬며시 멱살을 놓고 차분한 말투로) 그럼 뭘 할까?

B=(달래듯) 이 무료한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할까?

A=기도를?

B=나도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

A=神이 이 지루함을 달래줄수 있을까?

B=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A=기도를 하면 마음이 가라 앉을까?

B=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A=그럼 한번 해 볼까?

(A와B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그러나 이내 지루한듯 처음의 자세로 되돌아간다。잠시 침묵)

B=(주위를 둘러 보다가 슬그머니) 죽기 전에 솔직한 고백인데 말이야 난 강간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거든。

A=(무뚝뚝하게) 그래서。

B=(다시 주위를 둘러보면) 이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자넨 어떤가? 아무도 없어 솔직하게 말해 보라구。

A=(잠자코 있다)

B=그럼 그렇지 세상에 어느 남자치고…。우리 강간해 버릴까?

A=(내뱉듯이) 뭘?

B=신도 윤리도 도덕도 질서도─。모두를。

A=그것들이 이곳에 하나라도 있나?

B=그러니까 저 녀석이라도 (C를 가리킨다)

A=C를? 저 녀석은 남자야! 자네 정신이 좀……。

B=자네 심심하지 않나? 남자면 어때、어디까지나 이건 생각하기나름이야。남 여자라는 것에 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말、그 단 두마디에 흥미를느끼고 있거든。

A=(시인 하면서) 어쨌든 무료한건 더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지。

(A와B、C에게로 다가가부축해 온다。서로 옷을 벗기려 한다。이때 C、의식을 차린다。A、B 무안을 당한 듯 C를 둥지고 앉는다。)

C=(주위를 둘러보면) 여기가어디죠?

B=(내뱉듯) 네 무덤 속이다。

C=그럼 당신들은?

A=너를 데리고 가기 위해 방금 도착한 지옥의 사자야。

C=(놀라며) 지옥 이라구요? (곧 침착 해지며) 잘못 찾아 오신것 같군요。무엇을 보고 제가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A=네 일기장。

C=(폭소하며) 일기、일기가 생활의전부라고 할수 있을까요。특히 남을 보여주기 위한 일기라면 거짓과 위장의 낙서 밖엔 될수없어요。(혼자 중얼 거린다) 꽤 단순한 분들이군。이승에서만 그런는 줄 알았더니 저승도 마찬가지군。

B=(억지로 위엄을 갖추며) 우선 너를 데려가기전에 몇가지 물어 볼것이 있어 물론 솔직하게 대답해야겠지。

C=뭐든지 물어 보세요。전 두렵지않습니다。

B=네 고향이 어디지?

C=(잠시 생각하는듯 하다가) 광란의 무도회。그밤의 절정。

B=그곳이 어디냔 말이야?

C=신비의 계곡。환상의 꿈나라。

B=(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그럼 이름은 뭔가?

C=달、수 많은 별을 거느리는 군주같은 달。

B=(한심하게 느끼는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결판을 내려는 듯) 병역은?

C=(당연한 듯이) 물론 기피했죠。전 이것으로도 지옥은 면할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B=전쟁이 싫은가?

C=그 시작도 끝도 없는 전쟁 말입니까? 전쟁은 항상 각자의 마음속에서 언제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예요。자기자신도 부정하는 세상인데 어떻게남을 긍정하고 방아쇠를 당깁니까?

A=(갑자기) 전쟁은 최대의 善이야。죽어가는 자들 속에서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것을 자부할수 있거든。그 혼란、그 무질서、변화 그 속에서만이 우리는 한껏 자유로울 수있지。건설의 조종가 파괴의 희열 앞에서 통쾌하게 무너진다。전쟁은 우리에게 힘과 꿈과 그리고 젊음을 주지。더구나 이러한 지루함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유희지。

B=평화의 질서는 우리를 구속하는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나。자넨 지옥행이야。

C=좋습니다。그렇지만 전 어딜 가서든지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부정하겠읍니다。자 그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말고 빨리 갑시다。(손을 잡아 끈다)

A=어딜?

C=지옥이요。그렇지 않으면…。

B=(주저 앉으면) 지옥은 없어졌어。반란이 일어났지。대우가 나쁘대나?원。

C=뭐라구요。그럼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금방 잡으려 왔다고 하구선。

B=그게 아니라 단지 알려주려 왔을 뿐이야。

D=그럼 당신들도 갈곳이 없겠군요。

(A、B 묵묵히 고개만 흔든다)

C=여기서 무얼 기다리는 거예요?

(A、B 대답없다)

C=그럼 적어두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희망!야망!포부말입니다。

(A、B 대답없다)

A=우리가 할 수있는 일이란 자네에게 자유를 주는 일 밖에는 없어。

C=(솔깃해서) 자유라?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군요。(일어나 즐거워 하며) 그럼 어떻게、무엇을 즐기면서 자유할까요? (한껏 손을 펼치며) 자유!아 자유!(바보스럽게) 난 절대 자유다! 자유! 자유 (그러나 곧 풀이 죽으며) 자유란 가장 쓸모없는 권리군요。(맥없이 주저 앉는다)

─모두들 지친듯 제각기 생각에 잠긴다。가끔 지루한 것을 이기려는 작은 몸짓 외에는 전원 침묵。무대─F·O─

〈二場〉

오랜 시간이 흐른、같은 무대로 반죽음 상태의 인간들이 지금의 삶 보다는 나은 내세에 대한 갈구와 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언어의 억양이나 여운이 필요없고 과장된 몸짓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행동은 매우 느리며 말들도 호흡장애로 수월하지가 못하다。음산하며 습기가 찬듯한 푸른색 계통의 조명이면 좋겠다。

(F·I되며 A와B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고 C는 갱목을 베고 허리는 끄부린채 손은 사타구니에 끼고 누워 있다。모두들 옴추린 모습。

C=으…으 (몸을 떨며 더욱 옴추린다)

(B、자기의 웃도리를 벗어 C를 덮어준다)

A=세상에서 가장 못난놈! 가장 비굴한 놈! 가장 파렴치한 놈!

B=뭐라구?

A=(계속하여) 가장 더러운놈! 가장 불쌍한놈!

B=누가?

A=행복을 찾아 보겠다고 오늘은 이굴을 파고 내일은 저굴을 파고…。

B=(알겠다는듯) 별수없잖은가。

B=그래도 그들에겐 미래가 있다。

A=무엇을 하겠다는건지、무엇을 바라고 있는건지。

B=생명이 있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어쩔 수 없어。인내를 가져야지、인내를─。

A=인내? 모두들 이 지루한 삶을 잊어 버리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인내란 말인가? (관중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래 저자들이 인내할수있는 자들인가? 모두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여기 온거야。

B=자네는 예술도 부정할 셈인가?

A=예술도、문학도、철학도、종교、여자、돈、모든것이 위안 밖에는 안돼。그들이 죽음을 당면해 보라구。그들의 사상이、문학이、예술이、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차라리 우리같이 항상 어둠을 보구 죽음을 체험하는 무식한 놈들보다 더 추하게 죽어 갈테니까。모든것이 이 지루하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생명을 위로해줄 소도구 밖에는 안돼。

(이때 C、반혼수상태에서 몸부림친다)

C=(미친사람처럼) 밀폐된 정적! 어디라도갈 출수없는 몸뚱아리 아 어머니! 탯줄을 자르듯이 저의생명을、끊어주세요。가슴의 박동을 잠들게 해주세요。빨리─ 빨리요。영혼만이라도 이굴속을 떠나게해주세요。

A=이꼴을 보기위해 평생을 살아온것 같군。

C=광활한 벌판에서 죽고싶다。까마귀의 밥이라도 내육신을 던져버리고싶다。영원히 침묵을지키는 물속같이 답답한굴。어머니! 저를 힘껏떠밀어 주세요。기포같이 가볍게물위로 떠올려 그넓은 공간속에서 아무런미련도 남기고싶지 않아요。

A=(흥분해서) 화초를 키우고、개를기르고、인권을 부르짖고、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악인이다。죄인이다。자신이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 시키고 있는거야。(말을 낮추며) 늙은 고목의얼굴。가을마다 수많은 생명의 잎들을 아무의미없이 추락사(死) 시키면서 고고한 철학자의 얼굴같이 늙어가고 있다。누구야! 도대체 이 따위로 생명을농락하는자가! 神? 조물주? 우주? 대자연?

B=우린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거야。自然이 우리의 죽음을 잘 보살펴주겠지。

A=기다려? 뭘? 또。무엇때문에! 왜!

B=난 기다리겠네、그러면 구원 받을수있다고믿어。(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

A=자네는 아직까지도 그 거짓된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군。

B=(대답없이 기도만 계속한다)

A=(비웃으며) 자네의 신은 죽였어、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았는가。

B=(기도를 계속하며) 그렇게 믿고있는 자네의 신만 죽었을 뿐야。난 죽어서도 이 답답한 굴속에 있고싶지않아。

A=(코웃음치며) 잘해봐。지하 3백m까지 신이 몸소 찾아올테니。

(B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C는 멍한채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이때B가 어떤 환상을 본듯 오른쪽갱구를 향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B=드디어 오셨군요。물론 절 구원해주러 온것이겠죠。저를 데려가 주세요。모든 죄를 달게 받겠읍니다。(놀라며) 아니 그런데 왜 얼굴은 시커멓게 타셨죠? 뭐라구요? 제가 불을 질렀다구요? 아닙니다。제가 아니라 (A를 가리킨다) 저 친구가 저 친구가 한짓입니다。(뒤로 물러서며) 그런데 아랫바지는 왜 안입으셨죠? (놀라 넘어지며) 뭐라구요? 제가 강간을…。아닙니다。아닙니다。제 말을 다 들으셨다구요? 저…전 심심해서 해본 말입니다。절대로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정말이라구요。(이젠 아주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아니 그런데 배는 왜 그렇게 부릅니까? 10년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부르다고요? (눈을 부비며 다시 쳐다본다) 아…아니 당신은 내 아내! 여길 어떻게─。그럼 저기 올망졸망 쫓아오는 아이들은…。뭐 내가 죽인 자식들이라구? 이제부터 저 애들을 보살피라구? 안돼 난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해。뭐? 벌을 받아 마땅하다구? 잘 가라구? 아아 잘못했어。그만해、그만 그만─。(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A=기다리던 신은 안오고 마누라가오다니。푸닥거리나 해야겠군。

(B가 움직이질 않자 A、C다가간다。이미 B는 죽어있다。)

C=(공포에 떨며) 저 두려운 얼굴。

A=일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온 놈이야。굴이 들어가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더욱 커지지。그러나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단지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위해 우리가 벌려 놓은일들이 두려울 뿐이었지。그는 죽었어。이젠 죄를 짓지 않아도 돼。무료하지않으니까。

C=(몹시 두려워 하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최후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당신은 죽음을、죽음을 아십니까?

A=(답답하게) 단지 변화일 뿐이지。

C=그렇다면─。그 변화、그 변화 뒤엔 무엇이 오죠?

A=(고개를 젓는다。침묵)

C=(점점 공포로 전율하며) 변화、변화─。

(제 정신이 아니다。좌우 갱구를 당황하게 다니며 갱구를 두드리고 신음하고 피로워 한다。갱구 앞에 쓰러진다。그러다가 더욱 가까이 기어가 갱구에다 귀를 대어본다。한참 숨을 죽이며 이귀 저귀를 대어본다。그러다가 무엇을 들은듯) 들려요。저 구원의 발자욱 소리가、어머니가 부르고 있어요。저를 사랑해주시던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어요。뛰어와요。아 저 헐떡이는 숨소리。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숨이 차 갱구를 향해 손짓으로만 휘젓는다。) 어머니、어머니、어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자 어머니는 날보고 죽자고 했지。난 집을도망쳤어。그 후 어머니는 돌아 가셨어。아마 날 원망하면서、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부르며 이곳으로 오신다。(괴롭게 가슴을 쥐어 뜯으며) 어머니 절 데려가주세요。어머니만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어요。이 어둠、이 침묵 이 공포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제 손을 잡아 주세요 힘껏 잡아다 주세요。(쓰러진다)

A=(C에게로 간다、부축하며) 나에게남긴 말은 없겠니?

C=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전、나가야 합니다。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여기는 지옥이야。수천년을 거듭하며 생명을、매장 시키는 거대한 무덤이야。시간을、계절을、빛을、생명을잡아먹는 어둠이 있을 뿐이야。절 어머니 곁에 데려다 주세요。전…전…(숨이 끊긴다)

A=(B와C를 나란히 눕힌뒤 무대 앞으로 나온다) 죽는다는 것이 어디 우리뿐이겠읍니까? 다만 우리는 모두에게 외면 당한채、신조차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는 지하의 어둠 속에서 죽는다는것이 다를뿐이죠。조롱 당하고 비웃음을 겪으면서、생명이라는 굴레 속에서 꼭두각시 처럼 살다가、그들이 여기 갱속에서 존재의 끈을 놓쳐 버린다고 어느 누구가 거들떠 보기나 하겠읍니까? 하지만 결코 꼭둑각시의 삶만은 아니었읍니다。우리는 석탄을 캘 것이지만 실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변명과 허식과 과장과 자신의 위안을 파들어간 것입니다。때로는 그 검은 석탄속에서 진주알이 발견된 때가 있었읍니다。이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캔 것이죠。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그래서 변명과 가식을 버리고 속된 인간세계를 벗어 날 수도 있었읍니다。또 때로는 옛날 번성했던 생물들의 유골을 캘 때도 있었읍니다。그때 우리는 신화와 전설을 배웠읍니다。그리고 그 전설속에 사라져간 영혼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읍니다。─幕─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근양

대일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순지

온양국제관광호텔
대표 인정일

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
조정관 김인규

재무부기획관리실
실장 정재철

교통부항공국
국장 문명린

서울시청내무국
국장 김찬회

서울시청보사국
국장 이우영

제12회 學術賞 審査評

大學의 學的結實 各分野 本賞등 豐盛

東大新聞社 制定

○……本社가 학생들의 創作意慾및 學究熱 고취를 위해 지난 1963년 제정한 校內學術賞은 금년으로 12회째를 맞았다. 硏究하는 대학의 본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제정된 본 학술상이 大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의 入賞은 개인은 물론 大學의 學的 結實이라고 하겠다. 이번 12회대회에는 人文社會科學分野·自然科學分野·創作文學分野등 3개分野에 총 30여편이 응모, 各分野마다 本賞이 나오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審査는 지난 10월15일 원고를 마감, 10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個別審査, 그리고 11월6일 綜合審査를 마쳐 최종 入賞者를 결정했다. 한편 施賞式은 지난11일 오전 10시 總長室에서 가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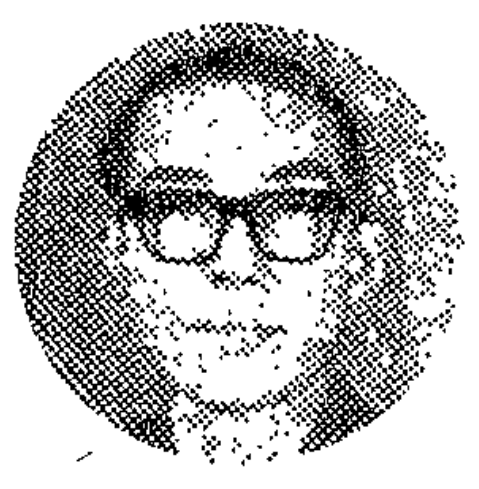
人文社會科學 分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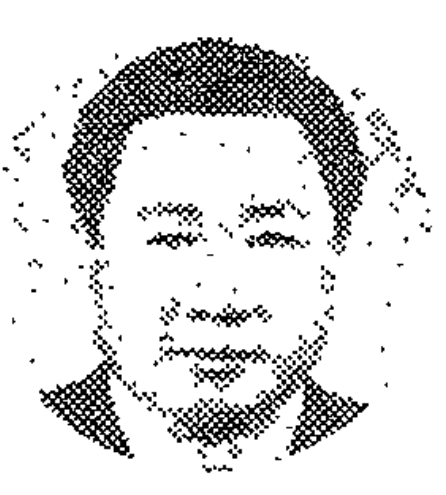
着想·展開·문헌 활용等 높이 評價

延基榮군의 「環境權의 法理」는 ①현재 人類가 직면하고 있는 工業化·都市化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외에 ②法理論으로서 형성단계에 있는 새로운 이론상의 문제점을 대담히 터취했고 ③그것도 內外의 문헌을 힘들여서 수집 조사해서 미숙하지만 한 체계를 세워보고자 한 점등에서 當選作으로 꼽혔다. 大學 재학생으로서는 특별한 지도없이 다루기 힘든 문제점을 200여면 지면에 정리했다. 물론 용어의 구사나 문장의 서술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엿보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지나친 단정적 결론의 제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일일히 참고문헌을 들어서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전개코자한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오늘날 인간은 그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의 정복자로서 행세하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科學技術의 成果가 일부인의 商業主義的인 과열된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남용되고, 또 긴 안목에서 착상되지 않은 목전의 利害나 편의에서 함부로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이 각종의 부작용을 낳고있다. 이러한 지나친 횡포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公害라는것도 그하나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비단 法律學的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工學的·의학적·행정학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다루어져야할 課題이다. 延군이 法學徒의 입장에서 이문제에 관심을 두고 끈기있게 문제점을 따지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분발하여 면학에 精進하길 바란다.

韓相範〈法政大교수〉


<徐廷柱교수>


<韓相範교수>

<孔泰勳교수>

創作文學 分野

淸新한 隱喩 成功的

詩的 볼륨 아쉬워

詩 朴廷熙의「新生」其他, 馬淑鉉의「가마미詩帖」, 金容沃의「病」其他, 金容彪의「오뉘塔」外4篇, 李善鎬의「초가을에」其他, 金年洙의「落葉의노래」外 數篇속에서 우선 朴廷熙 金容彪 馬淑鉉 세사람의 作品들을 豫選하고 다시 深思熟考한 끝에 馬淑鉉의「가마미 詩帖」을 當選作品으로 選定했다. 金容彪의「오뉘塔」도 많이 습작해본 솜씨는 보이나 볼륨이 옅은데다 焦點力이 微弱한게 缺點이었고 朴廷熙의 詩는 지나친抽象때문에 損害를 보고있었다.

馬淑鉉의「가마미」詩帖의 淸新한 感覺의 은유들은 小品들 속에설망정 상당한 成功을 거두고있다. 그러나 볼륨을 차차 더 두텁이 해 가기에 노력해야 할걸로 안다.

徐廷柱〈文理大교수〉

劇的분위기·劇場性 긴요해

主題意識 强烈, 作品살려

戲曲 戲曲「惡夢」(一幕)과「꼭두각시의죽음」(一幕二場) 두편 다 놓지않고 끝까지 읽을수 있는 作品이었다.

前者는 가장 平易한 문장으로「일남」의 등장이 몹시 궁금하였으나, 그의 과거와 인물이 不分明하게 처리되어 기대에 어긋나고 말았다.

더구나 舞臺設定과 조명·효과등에는 별로 관심을 둔것 같지 않다. 演劇이란 臺詞 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劇的 분위기와 劇場性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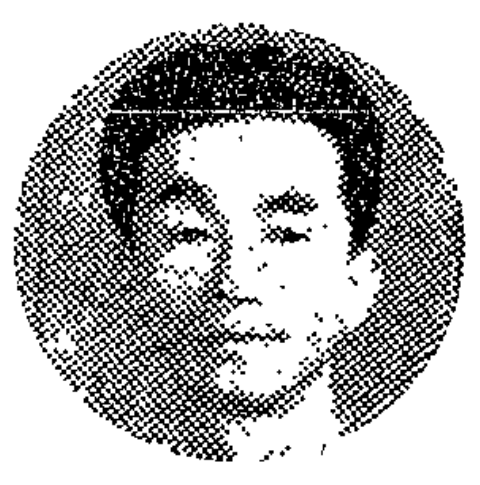
그러한 점에서 볼때 後者인 高鍾寬의「꼭두각시의 죽음」은 密閉된 現實을 무너져 내린 절박한 죽음의 炭坑속에다 무대를 설정하고 登場人物 각자의 성격과 그對立觀念은 절박한 속에서도 어면 여유를 두고있어 한결 호감이 가는 작품이었다. 다소 難渋하고 긴 臺詞가 있긴 하나 劇的 분위기와 효과면에 신경을 써서 잘 처리되어있다.

이 작품은 현실적인 主題意識이 강렬할뿐더러 實演性(劇場性)에 있어서도 손색없는 작품이기에 이를 택하였다.

前者는 보다 問題意識과 演劇性을, 그리고 後者는 보다 간결하고 탄력적인 文章修業이 아쉬웠다.

이러한 전자와 후자의 결함이 補完되고 兩者의 調和가 이루어 짐에따라 戲曲은 現代의 問題意識을 갖게되며, 따라서 효과적인 劇場戲曲으로 발전할수 있을 것이다.

張漢基〈文理大교수〉


<張漢基교수>

<吳學榮씨>

主題·素材設定에 力點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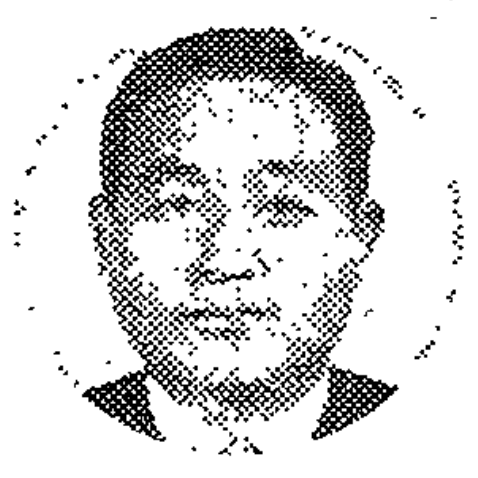
「쓴다」는 기본자세 定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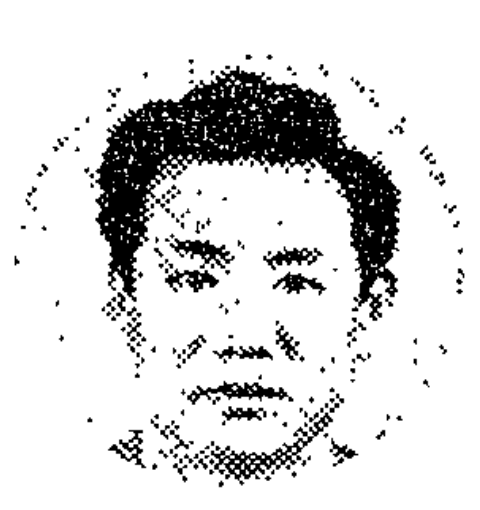
小說 예심을 거쳐 決選에 넘어온 作品이「바람의 행렬」「○人生」「현실도피」「失望」이다. 이중에「失望」은 필자가 表記해놓았듯이 掌篇小說인데 보통 이 경우 콩트를 가리켜 掌篇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콩트의 재치가 없고 문장의 수련이 미흡하다.「현실도피」도 前者와 같은평을 보낼 수 있고「○人生」는 우선 문장에 힘이 있어서 좀 더 精巧性만 터득한후 小說的구성에 유의한다면 앞으로 소설을 쓸 가망이 엿보인다.

끝으로「바람의 行列」은 童話에서 여러번 발표 경력이 있는 유능한 필자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의 작품은 동화와 소설 그 어느 장르로 규정하여야 옳을지 석연치 않다. 작가가 글을 쓸때「내가 무엇을 쓴다」는 主題設定은 제1차적 문제라고 본다. 가령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수필을 쓴다고 할 경우 소설이든, 시든, 수필을 쓰든 기본 자세와 그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다.

「바람의 행렬」은 우선 소설의 기본이 되는 주제와 소재의 설정을 명확히 잡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소설을 쓰는 과제인것 같다.

吳學榮〈作家〉


<金熙坤교수>


<崔德熙교수>

自然科學 分野

各種寄生蟲의 汚染조사

科學的인 諸調査 缺如

이 論文은 서울시내의 비교적 부유한 92家戶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가정에서 사용중인 걸레와 행주에 오염된 요충, 회충, 십이지장충의 오염도를 조사한 실험논문이다.

이러한 논제의 연구들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흔히 흥미를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李양이 단독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재료를 얻고, 이것을 실험실에 운반하여 감별한 노고는 큰 것이었다고 본다.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려는 태도도 학생으로서는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정의 수준을 몇가지 類型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부, 식모의 지식정도, 화장실의 시설, 위치, 걸레와 행주의 세척빈도와 방법등을 기생충의 오염도와의 관계에서 좀 더 분석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둘째 재료를 채취하는데 있어서는 조건이 동일하여야 하겠다. 물론 이 논문은 기생충의 분포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생충의 분포 유무에만 주력을 두었다.

세째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문헌도 조사한듯 하지만 이론을 전개할 때에 몇군데에서는 독자적으로 단정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서 학생의 논문으로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孔泰勳〈農林大교수〉

主題의 着眼點이 훌륭

組織化·體系化 힘써야

대학생으로서 理論數學에 대한 學術論文을 쓰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中等敎育에至大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中等學校교사를 희망하는 수학교육과 학생으로서 주제의 着眼點이 매우 훌륭하다. 의당히 중등학교에서 그와같은 代數構造를 지도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獨創的인 견은 아니나 群概念의 지도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구체화시켰다. 그런데 좀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했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없지않으나 그런대로 장려할만하다.

崔德熙〈文理大교수〉

不適地改良을 시도한 실험

소재와 과정·결과가 優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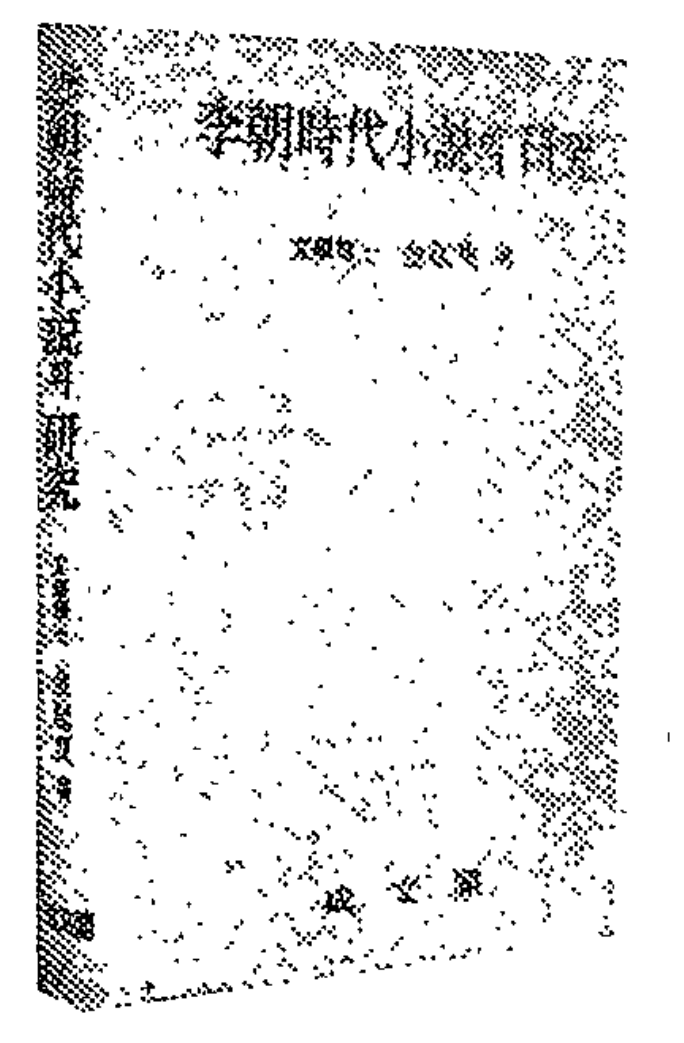
본 論文은 채소재배의 不適地(粘質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마늘과 당근試驗區에 수종의 微量원소 Zeolite區, Germanium區, Zeolite+Germanium區, 미량원소배합區를 施肥, 포장실험방법을 택하여 生長및 수확량을비교하였던 바 Zeolite+Germanium區가 그중에서는 제일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은 논문이다.

본 논문은 실험방법중 시험구 배치에 완벽을기하지못한 약점은 있으나 素材, 시험구 배치이외의 실험방법, 결과및 考査의 유도방법, 문헌이용 등이 제대로 되었고, 특히 초심자로서, 실험논문 작성체계가 우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本論文은 대학 생 학술상논문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金熙坤〈農林大교수〉

新刊 안내



金起東博士 著

「李朝時代 小說의 硏究」

雙珠奇緣등 1백여편收錄

異本紹介, 學界 關心모아

文理大 國文科교수 金起東博士著「李朝時代小說의 硏究」가 10월초 刊行과동시에 國文學界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있다.

우리나라 古典小說, 특히李朝時代의 小說硏究에 전념,「古代小說概論」,「李朝時代論」등을내놓은 바있는 金敎授는 이번저서에서 學界에 未發表된「雙珠奇緣」등 1백여편의 李朝小說을 體系的으로연구·정리하여 소개하고있다.

本著는 收錄作品에 대한 書誌學的인 考察은 물론, 내용의 분석, 歷史的 배경평가및 作者研究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異本을 각각 사진소개하고 所藏處를 밝힌것등이 독특하다고 할수있다.

또한 本著는 非專門家라도 李朝小說을 쉽사리 理解할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있다.

李朝小說은 勸善懲惡이라는 共通된 주제가 흐르고있지만 그「스케일」에 있어서는 現代小說보다 더큰 作品이 많았다는 事實도 이번 著書에서 특히 관명되었다. 李朝小說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大河小說로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예로 長篇인「林花鄭延」은 1백39권(印刷本으로 1천1백11페이지)이 되는방대한분량이다.

金博士의 연구에 따라 종래 詩歌中心이었던 國文學史연구는 一大轉換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補完作業이 절실해졌다.

특히 우리 古典小說은 거의 中國을 背景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定說처럼 돼있었으나 本著의 출간으로 우리나라를 무대로 한 小說이 적지않게 있음이 밝혀져, 주목되고있다.

이번 成文閣을 통해 발간한 本著「李朝時代小說의 硏究」는 하나의 小說史의 整理라 할 수 있는데 第一部는「木版本小說」, 제2부「活字本小說」, 제3부「筆寫本小說」로 나누어 각작품별로 理解를 쉽게 할수있도록 꾸며놓았다.

李朝時代小說中 連作으로된 小說은 현재 10여편이 發見됐는데 2편내지 3편씩으로 되어있고 그동안 學界에서는 이런 장편에 대한 硏究를 못했었다. 그 이유는 워낙 방대하고 대개 筆寫本이어서 읽기가 어려웠던까닭이다.

金敎授는 序文에서「初創期的인 小說史의 집필을지양하고, 또 종래의 詩歌文學中心의 문학사를 탈피한 새로운 文學史와 小說史를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成文閣刊·값3천5백원 총375페이지〉

「實學思想의 探求」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篇

實學思想 體系的인 究明

思想爲主의 探求書 주목

韓國學을 研究하는 熱이 높아가고있는 요즈음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학계를 위하여 또는 國家發展을 위하여 기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다.

이책은 玄岩社에서 出刊하였지만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한국연구실편으로되어 있다. 책의 이름대로 이책은 한국의 實學思想을, 그것도 哲學思想을 연구한 것이다.

이 책에 담겨진 논문은모두 여섯개로서 실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것은 아니다. 그論文들의제목을보면 첫째 尹絲淳교수의「朴世堂의 실학사상에관한 연구」, 둘째는崔東熙교수의「愼後聃의 西學辨에 관한 연구」세째는 朴鍾鴻교수의「西歐思想의 도입 비판과섭취」, 네째 李乙浩교수의「茶山實學의洙泗學的構造」, 다섯째는 尹絲淳교수의「李圭景 實學에 있어서의전통사상」, 여섯째朴鍾鴻교수의「崔漢綺의경험주의」이렇게 모두 여섯篇의논문이 실려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實學全般에 걸친 연구는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듣던 사람들의 이름도 아니다. 그때문에 새로운 맛도 있다. 그러면 實學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一定한定說이없고 學者에 따라다르다. 이를테면 〈實學은「事實에 입각한實際性」을 추구한학문〉(序文)이라하는 이도 있고 또 〈實學의 學問영역을 분명하게 한계지울수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儒學자체의 학문영역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즉, 儒學이 원래 文·史·哲및 經世之學의 部門을다 포함하는 까닭에 實學은 또 그것들이 分化된 學問들을 다의미하게된다〉(尹絲淳교수)고 말하는 이도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 말이 많으나 實學이라는 말은 우리만 쓰고 있었던것은 아니다. 中國이나 日本에서도 쓰이고 있었다. 中國에서는 中庸章句大全에서 찾아지고, 日本에서는 18세기의 石田이라는 사람의 말에서 찾을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을 가르침은 그學을 알차게(實) 하기위하여 먼저 學者의 고유한 本心의 끝을 알리고…〉라고 말하였다.

中庸章句大全의 말은 다음과 같다. 즉〈一理, 中은 흩어져서 일의 끝이 되고 다시 합하여 一理가 되나니 이것을 놓으면 六合을 꽉차나, 한권 책으로 말하면 그 속에 모두 은밀히 담겨져 있어서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실학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朴燕岩은〈孝悌信을 講하는것은 學의 實이요 禮樂刑政을 講하는것은 學의 用이다〉라 말하였고 金正喜는〈實事求是〉를 實學의 뜻으로 말한것같다.

이렇게 볼 때 中國과 日本에있어서 實學의 의미는 거의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것은 그와 다르다. 그것은 實用 또는 經世致用의 뜻으로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學의 의미를 그 어느 하나의 뜻으로 생각할수는 없다. 實學은 언제나 〈알차고 참된〉학문이나 때에 따라서 달리 말할수도 있는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르네쌍스」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책은 비록 6篇의 論文에 不過하나〈思想위주의 探求者〉라는 點에서, 그리고 原文도 친절하게 欄外에 붙어 있어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여 敢히 권하는바이다.

〈玄岩社刊〉

한상련

「韓國分斷의 歷史的考察」

洪鍾赫 著

分斷의 生成·消滅·變形整理

未公開資料등 分析綜合해

최근 국제정세의 激變은 韓國의 강력한 통일염원이 반영되는 긍정적 측면과 이러한 염원에 역행하는 분단상태의 고착화를 기도하는 부정적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이 두개 측면을 밝히고 분단의生成과 그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해야만 현 국제정치속에서의 분단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의 38선 분계선은 戰後에 이루어졌지만 그 生成의 遠因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淸·日·露등 한반도주변 국가의 세력팽창책과 韓末의 문호개방정책이 그 동기가 되고있다.「李鴻章-로바노프」密約으로 일본세력견제와「山縣-로바노프」협정으로 淸세력 견제라는 淸·日·露의 삼각관계는 露·日의 세력분할선으로서 38선 劃定論이 대두했었다. 결국 일제 36년간의 불행도 이러한 세력팽창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었다. 본 저서는 이러한 韓國分斷의 史的배경으로부터 출발, 그 생성과정을 국제정치학적 외교사적 국면에서 분석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저서는 한국분단의 책임문제를 규명하기위한 것이기 보다는 미공개된 자료를 토대로한 접근과체계를 취하고 있다.

제1장은「韓國分斷의生成」으로서 1943∼45년사이에 분단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요인을분석하고 있다. 여기엔 韓國獨立을 한때나마 희망적으로 보장했었던「카이로선언」「테헤란협정」그리고「얄타회담」「포스탐」회담및 中·蘇회담, 美·蘇의 입장과 국제정세등이 자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제2장은「한국분단의고착화」로서 1945∼50년까지의 분단경화과정, 즉 美·蘇공동위원회의결렬, 한국정부수립과 北韓정권의 출현등 일련의냉전체제의 표면화와 南北대립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韓國分斷의變形」으로, 1950∼53년사이의 北傀南侵과 北進, 그리고 휴전성립시의 美·蘇·中共 입장등을 각종 史料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국분단의 史的과정을 소상히 분석, 검토하는것은 민족적 욕구의 大前提인 통일문제의 主體化를 위한 과제이다. 이분야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러한 주체적인 자각의 표현으로이해될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研究 論著들은 불충분한 자료에의거한 短片的인 것들이 많았던것이 사실이다. 本著는 각종 史料와 미공개문서들을 새로 발굴, 분석하여 한국분단의 생성, 소멸, 변형과정을 체계적으로전개한力著로 평가될것이다.

부록에 참고자료로 수록한「한국에 관한 莫府결정을 4개국회담에 제의한 美國의 각서」(1947년8월)를 비롯, 외국의 韓國動亂史개요, 그리고 각종 한국관계문서와 뉴스들은저자의숨은 노력으로 특기할만하다.

〈人文出版社발행·총2백18면·값1,800원〉

宋赫

회전무대

不況中에도 就業率 樂觀視

紅一點 學術賞 대견한 경사

○…學園의 休講事態에도 불구하고 卒業班들의 발길은 卒業試驗이다, 就職試驗으로 바쁘기만 한데─.

國內 大企業體의 入社試驗이 대부분 막을 내린 요즈음 校內 각 게시판과 학생회관벽은 합격자 축하激文이 쇄도, 東岳을 오르는 이의 마음들을 흐뭇하게하고 있다.

특히 貿易科 이윤석군은 2명만을 뽑은 産業銀行 貿易部門에 合格, 화제를 모았는데 李군은 또 지난 7월에 실시된 貿易士시험도 합격한바있는 秀才라고.

이 기쁜 소식에 한實務者는 年中無休의 특강힘이 컸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번 放學에도 계속 실시될 特講에 많은 受講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한편 最近 J綜合大學과 共同으로 實施한 特講英語시험에서 本校 經商大가 平均 10점이나越騰했다는 喜消息이고 보면 오일波動·不況에도 就업률은 前年과 對等하리라는 관망.

○…本社가 制定한 제12회 學術賞施賞式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총장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李總長은 社會科學, 自然科學, 創作文學등 3個分野에 걸쳐 本賞및 장려상등 入賞者6명에게 시상하고 악수를 청해, 노고의 보람을 치하했다.

특히 自然科學분야에서 장려상을받은 李銀淑(科學敎育科·3)양을 보고는『男學生도 하기 힘든 自然科學분야에 女學生이 受賞하게된것은 참으로기특한 일』이라고 극구칭찬. 그런데 李양은 서울 市內 家庭의 위생상태를 조사하여 쓴 論文으로장려상을 받게된것.

○…담당교수 재량에의한 試驗 또는 레포트代置라는 學園街의 異狀氣流에도 不拘, 敎養學部體育大會는 有終의 美를거뒀다는 소식. 이는 部訓「이왕이면?」이라는 케치프레이즈아래 李丙疇교양학부장이하 全敎養學部가 힘을 뭉친 結果로역시『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인 모양.

그러나 응원도 없이 外面당하는체육대회였다는不平도 없지않은데 敎養學部게시판을 보고서야 전적을 알았다는 B大K군은 자신의 無關心도 自責하지만『시험 레포트의 압력, 빨리온 추위, 그리고 학원소요등만도골치아픈데 하필 이런때 體育大會는 못마땅했다』고투덜.

同窓會소식

法曹人 同門會

昇進會員 축하

在京 法曹人 同門會(會長=김병리·54·法) 총회가 지난 7일 오후6시 市內 한국회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韓沃申(62·대학원) 대검특별수사부장, 황석연(57·대학원) 형사지법 부장판사, 이근(59·法) 대검비상계획관, 정순봉(57·法) 지검증거물과장, 송기성(48·전문부) 변호사, 김동정(57·法) 변호사등 法曹界 同門 43명이 참석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진회원 이덕수(59·法) 대법원 판례편찬과장, 정순봉(57·法)서울지검증거물과장(이상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영전회원인 한옥신·황석연·이근·신상두同門과 사법연수원생 서진규(72·法) 同門의 축하회를 겸했다.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한옥신(대검 특별수사부장) ▲회장=김병리(대검 부장검사) ▲법원간사=이덕수(판례편찬과장) ▲검찰간사=홍두표(수사판) ▲재야간사=김동정(변호사) ▲총무간사=조정곤

同門動靜

▲金烔秀(58·國文·曉星女大교수)同門=本會 경북지부주최로〈蒙學三書研究〉出版記念會가 오는16일하오4시 大邱市 고려예식장에서 열린다.

▲李喜燦(60·英文)、具滋益(60·경제) 同門=지난10월15일 市內 무교동 광진빌딩 503호실에 주식회사 利文商事를 설립.

▲朴海龍(51·政)同門=지난 10월27일 부인상을 당해 29일 영결식을 가졌다.

▲李登會(68·農學)同門=지난 1일 오후2시 충북청주시 청주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姜泰龍(72·건축)同門=오는16일 오후2시 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尹天泳(65·農學)本會사무국장=부친회갑축하연을 오는14일 12시 퇴계로5가「대림정」2층에서 갖는다.

▲韓鎬南(72·農生)本會사무총무=그간 지도해온東大敎職員 꽃꽂이 회원전을 12∼13일 양일간에 결쳐본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알림」

근로장학사同門會 정례회의가 오는16일 오후3시 市內국제극장옆「파리다방」에서 열린다.

동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 불교 신문사

발행인 손경산
사장 이범행
주간 유월탄
편집간사 최향운
홍보간사 이혜성
(외 직원일동)

■ 오늘의 韓國을 사는 知識人의 週刊誌

서울평론

第54号
全國有名書店에서
発売中
값 50원

■ 巻頭칼럼
試行錯誤속의 美国民主主義·趙世衡
■ 今週의 論文
韓国의 知的風土 再論·孫世一
■ 精密分析
保険의 数学·朴倉圭
■ 뉴스 헤들라인
팔레스타인과 아라파트·徐在万
■ 74年度 下半期新作 10篇総論
戲曲文学의 拡大·韓相喆
■ 文化리뷰
젊음의 비전과 고고의 心理·金光日

지난호의 주요내용

■( )內의 數字는 揭載號數
■今週의 論文
現代社會와 知識人 車河淳 (1)
生活保障·社會保障 林鍾哲 (2)
生存倫理 金容駿 (4)
民主主義와理性 李奎浩 (7)
새時代를 여는哲學 金炯孝 (9)
知識人·知的自由 柳宗鎬 (12)
教育의經濟學 朴容憲 (13)
弱小國外交의 根本論理 李昊宰 (14)
周恩來 外交方式 李泳禧 (15)
社會意識·歷史意識·個人意識 韓完相 (18)
大學精神·大學文化 高永復 (20)
作家와 祖國 鮮于煇 (21)
韓國人의 政治意識 李廷植 (22)
政策과知性 金璟元 (24)
오늘의 韓國─그民族的狀況 崔昌圭 (25)
經濟의 成長패턴과制約條件 張源宗 (27)
世界平和秩序의 條件 呂井東 (29)
中共과 海洋紛爭 尹世哲 (31)
韓國史學界의 進路 邊太燮 (32)
韓國戰爭과北韓의政治 金學俊 (33)
國史學과 國史教育 金哲埈 (34)
韓半島의平和構造 孫製錫 (35)
韓·美·日의 三角關係 梁好民 (40)
■綜合書評
開化期 西洋人의 韓國研究 李光麟 (8)
韓國文學史의 諸問題 金柱演 (23)
■主要論文
孔子批判과 秦始皇의再評價 閔斗基 (11)
特輯/韓·日協力의모델 裵成東·林鍾哲·李禹世 (12)
日本의 마르크스市場 廣畫元信 (13)
特輯/韓國의中間層 金彩潤·林熺燮·吳甲煥·林鍾哲 (18)
遺稿/擇里志에 나타난 李重煥思想 洪以燮 (19)
儒教文化圈의 將來 E·라이샤워 (24)
長期시리즈/現代中國의 理解 崔 (27·32·36·42)
特輯/韓國과 東南亞 韓昇助·徐相喆·洪承稷 (36)
特輯/라틴·아메리카 프레이·몬토바 閔泰植 프리에토하이만 (39)
美軍政의 初期 占領政策 崔相龍(40

■ 定期 購讀案內=3個月 600원·6個月 1,200원·1個年 2,400원 /서울에 계신분은 전화 ⑮ 7351로 연락하시면 곧 배달 또는 우송해 드립니다 / 地方에 계신분은 대체구좌 1661번으로 소정액을 불입하시면 송료 본사부담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 지난호를 원하시는 분은 ⑮ 7351로 연락하십시오.

가마미 詩帖

創作文學分野 本賞 受賞作

馬淑鉉

1. 波濤

들고래 떼가
수평선을 물어가버리고
이 밤의 등 뒤에서 태어나는 바다

산맥을 이끌고와서 풀어 놓으면
우우
수평선을 찾으러 흩어지고

달빛이 칼을 물고
걸어다녀요

무뢰한 그가 흔들어 깨운
당신의 밤은
몇 개의 바위 섬을 낳고요.

2. 沈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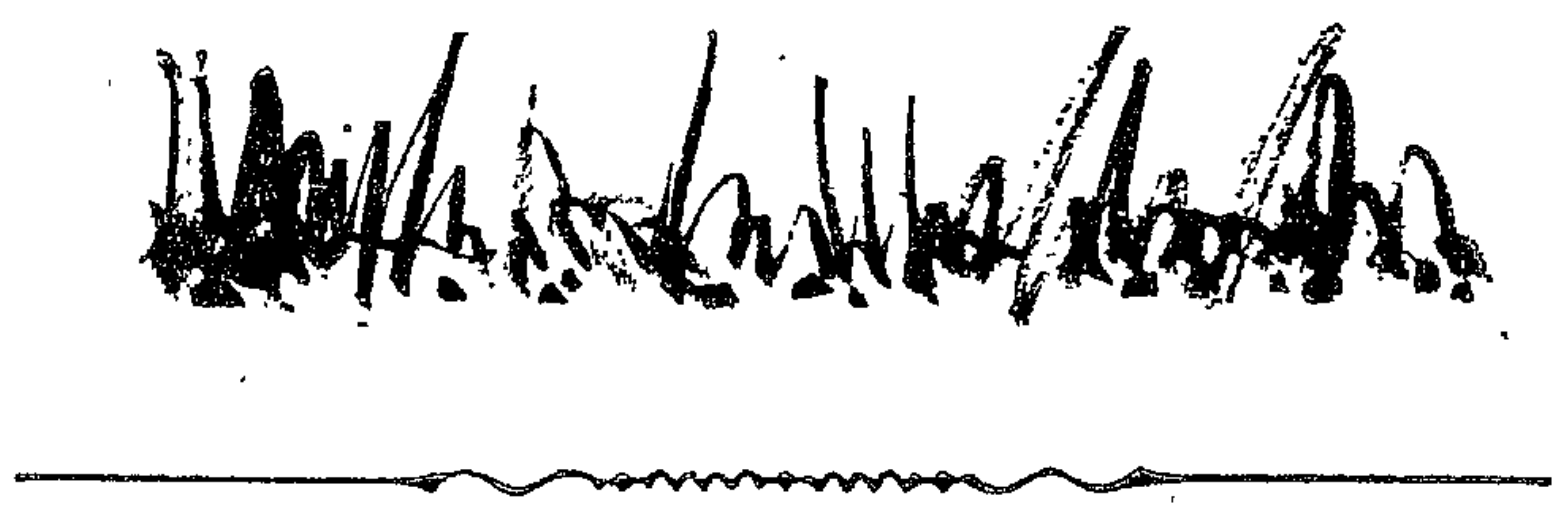
바다에 오면 당신은 바다를
이고 있지만
바다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달빛을 가리고 말씀해 주세요
파도소리가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더 가까와지면
안타까울 것은 끝없는 바다일 뿐이지요
바다의 깊은 그늘을 열고
당신은 어디에도 가라앉아요.

3. 偏愛

파도의 흔적이 내게 남아 있지요
그이가 거칠기만 하다면
이미 나는 죽었을 거예요
때때론 모래뻘에 나 혼자 남게해요
나는 그이를 닮은 빛깔의 조개껍질이지만
그이의 발치에서 촉촉히 울고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니어요
그이는 세상을 지배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이의 푸른 빛깔에 아득해져요
어느날 그이가 배 한 척을 밀고왔어요
그이처럼 팔 힘이 센 사내들이
이곳을 떠나가는 것을 눈여겨 보았어요.

※가마미…全南 영광군 弘農面 바닷가 마을

<文理大·國文科>



受賞者 프로필

詩는 완벽한 形式美 뜻해

『자신 할 만큼 좋은 작품은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수상 소식은 의외였읍니다. 물론 기쁩니다만. 』

제12회 本社學術賞 창작부문 本賞 受賞者 馬淑鉉(國文·4)君은 담담히 당선소감을 털어놓는다.

『安東高 在學 시절, 「現代文學」을 보면서 詩를 習作하게 됐읍니다. 本格的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本校입학후이고요.』

성격적으로 고독을 가까이한 것이 환경과 맞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詩作에 정진할 결의를 비친다.

그 동안의 詩作生活을 통해 金洙暎詩人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하다고. 金詩人의 언어구사에서 많은 것을 얻은듯 하다고 한다. 존경하는 詩人은 未堂선생.

『당선작 「가마미 詩帖」은 바다를 주제로 別個의 詩를 연결되도록 썼읍니다. 작년 겨울 전라도의 바닷가에서 쓴 것이지요. 』

그는 詩란 우선 완벽한 형식미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자신의 詩에 대해 그 동안 주제면에 별로 신경을기울이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동하는 주제의 반영을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시도는 이미 지난번의 「비」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詩는 주로 밤에 쓰며 그순간이 하루중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취미는 고교시절 선수까지 지낸 경력의 농구. 장래 희망은 역시 詩人.

졸업을 앞둔 그는 지나간 대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재학중 공부와 同人誌활동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을 맺었다. <朱>

詩와 삶의 純潔性

洪申善

詩論

現代詩는 現實과 狀況의 관련양상
詩文學史는 歷史의 集積物
參與와 純粹는 삶의 해석차이

現代詩에 관한 최근의 많은 논의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크게 두개의 범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같다. 하나는 現實과 歷史的 狀況과의 관련양상으로서 詩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는 역방향에서 모든시 이외의 現象을 거부하려는 쪽이 그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개의태도의 저쪽에는 역시 상이한 각자의 詩的 態度 (Poetic affitude)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있다.

전자가 우리의 삶을 사회와 역사에 대한 연속개념으로 파악하면서 個人을 歷史와 社會的 次元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후자가거느리는 거점은 언제나 個人이며 個人만이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에 서고있다. 말하자면 전자가 個人의 단위를 사회와 歷史의 意識地點으로 환원시키려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모든 現象을個人의 단위로 환원 축소시키려는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두개의 태도 가운데서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할 때 피상적이거나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라면 상당한 곤경을 제공한다고볼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두개의 상반된 태도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우리 詩속에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사실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기나름의 정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찌기 이두 태도는 50年代 후반부터 60年代에걸쳐서 참여와 순수라는 모습으로 자기를 提示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새삼스레 參與가 좋으냐 純粹가 좋으냐 하는 문제를 건드릴 뜻은없다. 다만 내가 문제로 삼으려 하는 것은 우리詩가 이 두개의 태도 속에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그것은 一次的으로 詩史的인 의미에서 극복의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詩史에서 혹은 詩에서 극복이란 무엇인가. 詩가 자기의 生에 있어서 生자체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문학의 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극복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이 문제는 詩를 계기적인 시간의 産物로만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오직 詩를 모든 과거성에서 유리시켜 現在性만을 가지고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詩를 歷史意識이라는 「엘리옽」적인 命題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에 관련된다. 동시에 좋은 작품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 자기의 의미를 획득해가는 사실과도 가깝다. 詩 혹은 文學은 언제나 現在性에 의해 이해될 뿐인 것이다.

이점에서 文學史 혹은 詩史는당대의 문학적 의미공간이라는 뜻에 동의한다. 詩나 문학에서의 歷史는 당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한 이해방법이며 그것의 集積物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시간상의 계기에 의한 제반 文學的인 集積物을 現在性으로 환원시킨다는 것—그것은 現在의 삶의 의미로 환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많은 방향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문학적인 집적물을 현재의 生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의 生에 대한 해석방향을 벗어나서 새롭게 오늘의 해석방향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리라.

곧 A라는 방향에서의 生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生을 현재에는 B라는 방향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라는 말은 世界觀이나 生觀이라는 말로바꾸어 놓아도 좋을 것이다. 또 이 事實은 단지 시간적인 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同時代를 사는 現場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두사람의 文學人만이 아닌 多數의 文學人이 한 시대를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진술은 의거한다. 그것은 한 시대의 진정한 生이란 한 두 사람의 드러냄이나 해석만으로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관련되기도한다.

이렇게 볼 때 다만 문학에서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은 자기 生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가 얼마나 그나름의 深遠性이라는 부피를 열는가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文學的 극복내지 詩的 극복이란것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 보다 우리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곧 극복이란 生에 접근하는 A라는 방향에 대한 B라는 방향의 제시외에 다름 아닐뿐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A라는 방향성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B라는 방향성을 얻기위해서는 아픔과 싸움이 처절해야하며 그것을 예술적 고투라고 지적해 두어야 할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참여와 순수란 바로 生에 대한 해석방법의 차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두가지의 태도를 놓고서 하나는 다른 하나에 대한 극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두가지의 태도가 동시대의 현장에 서있다는 말로서는 이 문제는 해명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두가지의 태도가 서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관습이나 도식성을 강요해 오고 있다는데에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個人단위와 社會단위만이 강요될 뿐이며 生이나 詩는 이 단위에 대한 하나의 방법적인 대응이나 그런 次元으로 해석되고 있기때문이다.

生이 언제나 자기를 올바르게 확보하는것은 이러한 先驗的 기준에 매몰되지 않는 생 그자체의 자유성에서이다. 마찬가지로 詩가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형식인 한 그 형식에 어떤 기준도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先驗的 기준이나 그 형식성이 인정될 때 詩나 生은 똑같이 그 틀과 형식에 대한 방법적이거나 그 하위 차원에 머물고 말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날수 있는 것은 습관이나 도식성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식과 습관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구태여 「하이데거」의 명제를 빌지 않아도 죽음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참여와 순수가 상호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 두가지의 태도가 고착화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우리 詩가 이 두가지 태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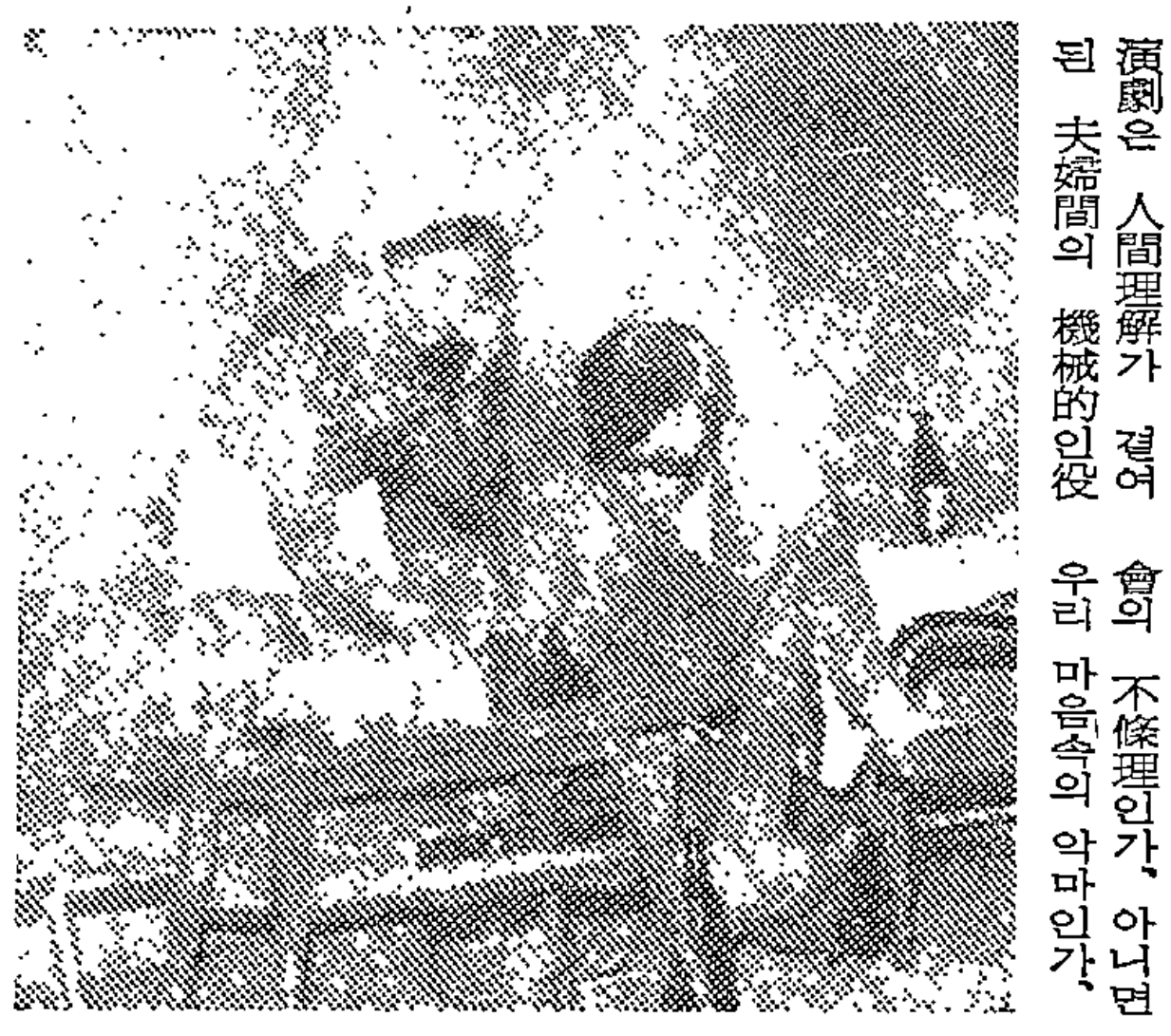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여기서 詩에서의 生命力이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은 예로서 說明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物理學에 「보일」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고 하자. 이法則은 「보일」에 의해서 그 사실이 실험되고 검증됨으로서 하나의 법칙으로 확립된다. 그리고 그 실험과 검증은 하나의 절차체계와 형식방법론을 이룬다. 이 법칙이 이상과 같이 자신을 확립시킨 이상 세상의 누구나 다 같은 「보일」의 법칙이나 결과에 이를수 있을 것이다. 곧 「보일」의 절차체계와 형식방법론을 따를 때 그것은 곧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 혹은 물리학에서의 진리이다.

문학에 있어서는 같은 절차체계나 형식방법론에 의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과거의 문학이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서 오늘의 문학이 필요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과거의 문학이 얻은 성과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문학의 특색이나 그 生命力은 드러난다. 어떠한 절차체계나 형식방법론으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것—그것이 문학의 본질이자 생명력인 것이다. 곧 우리의 生이 언제나 독특하고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독특하고 다양한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어느 시대고 문학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이 발언에 설 때 나는 앞에서 말한 커다란 우리 詩의 두가지 태도가 하나의 도식성으로 강요되는 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다. 또 「어떻게」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극복한다는 일이나 그 방법론을 설정해 놓고 있을 때 그것도 자칫 하면 앞에서와 같은 고착화를 되풀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生이나 詩나 다같이 하나의 틀이로서 그것을 지고가는 자의 온몸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온몸을 열어 놓고 生과 詩에 대응하고 싸우는것만이 현재로서는 옳다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기 詩와 生의 미래를 감히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同門·詩人〉

演劇短評 「別種·夫婦傳」

人間의 非人間化 그려



"무엇이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가?"

國文科4학년의 졸업연극「別種·夫婦傳」이 지난 1일 본교 소극장에서 공연됐다.

호영송(64·演映科卒)詩人의 喜劇「幻想夫人」을 脚色, 吳台榮(農生·2)君이 演出을 맡은이 演劇은 人間理解가 결여된 夫婦間의 機械的인役割로 인한 結婚生活의권태를 그렸다.

어느날 平時와는 달리 남편이 일찍 歸家하자 기계처럼돌아가던 이 家庭에는 一大소동이 벌어진다.

서로의 夫婦가 아니라고 싱강이를 벌이고 證人까지 出頭한다.

끝내 確認이 되나 아내는 기절하고 남편은 觀客을 向해 絶叫한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가? 도시의 소음인가, 아니면 社會의 不條理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악마인가, 나와라! 우리 안방의夫婦가 진짜인가, 감별해볼 콤퓨터를 장치하게 하는 者, 이리 나오라!』

機械化·都市化로 因해 빚어진 人間의 非人間化 또 그것을 웃어 넘길수 없는 作家의 날카로운人間고발을 담겼다.

전체 公演過程중 역력히 보이는 練習不足은 休講事態등의 여러 어려운 事情이 있겠으나, 大學全過程을 매듭하는 記念行事였다는 點에서 좀더 진지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

特色있고 意慾的인 企劃인데 반해 成果는 이에 副應하지 못한 點이 많다.

첫째 연습부족과 演技者들의 연기態度이다.

一部에서는 大學劇을 「實驗的試圖」라고 一笑에 붙이나 연극의 眞意를 깨닫고 公演에 臨하는 연기인이라면 그 意圖가 살아나도록 적절한 努力을 기울여 舞臺에 서야겠다.

둘째 經濟的後援이 거의 없어自費로 꾸려나가는 實情에서인지 衣裳, 「팜플렛」등의 문제가 부각된다.

意慾과 比例될 수 있는 充分한 施設, 經濟的後援으로 연극關係人들의 成長을 기대할 수 있는 與件이 이루어져야겠다.

〈龍〉

메아리

宗敎觀

▲지난달 15일 發行된 「釋林」8輯에는 「東國人에게 비친 釋林」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2백60명의 調査對象者에게 「佛敎」「僧侶」라는 用語에 대한 直感的으로 떠오르는 聯想을 적게하여 그 結果를 論한 特異한 글이었다. 그 글은 釋林會 會員들 간에도論難이 많다고 들었다.

調査對象者中 승려를 「現實도피자」 또는 「僧侶의 苦行을 理解못한다」라고 느낀 사람이 많기 때문인듯.

▲이에 現代에서의宗敎의 價値를찾아 보고싶다.

人間이 어떤 思想과哲學을 갖고 살아가려는 가장 큰 理由는 人間의 고뇌와 不幸을 바라보고 죽음을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일 人間의 生命이 무한하고 피로움이 없다면 아무도 宗敎가 무엇때문에 存在하며, 어찌하여위태로운 現代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일어나지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永生이 不可能함이 입증되면 人間은 精神的 혹은 形而上學的存在에게 依支하기 마련이다.

어느 時代에나 전측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祠堂, 敎會, 寺院, 등은 人間이 形而上學的욕구를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욕구는 物的욕구와 세력이 同等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미, 즉 理想과 現實의 乖離, 精神과 物質의 상극속에서 人間은 보편타당한길을 가는 것이正道이다.

▲이러한 혼미를 수습하는 방책은 꾸며낸 이야기나 傳說 또는 특정사물을 예로들어 비유로서 人間을 敎化하는 길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旣成宗敎를 믿게 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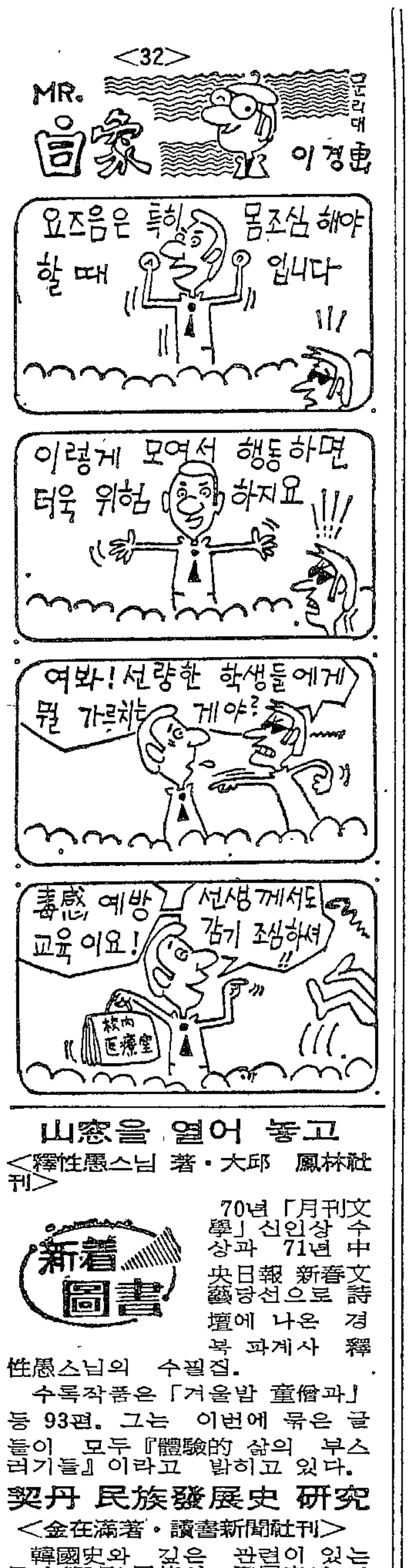
宗敎는 대중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끌어 주는 生活의지혜이다.

예컨데 「코란」을 생각해 보자. 그럼 유치한 책이 하나의 宗敎를 낳게 하고 그宗敎는 全世界에보급되어 수많은 人類에게 形而上學的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精神的 理念이 되어 人間存在의 必要惡인 고뇌나 불행도 돌보지 않게 해주었다.

그렇다고 宗敎가 絶對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믿게 할수도 없다. 「피테」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偉大한 精神의 所有者에게 어떤 宗敎의 敎理를 그대로 믿기를바라는 것은 緣木求魚일것이다.

〈幸〉

<32>


MR. 白家
문리대 이경희
요즈음은 특히 몸조심 해야 할 때 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행동하면 더욱 위험 하지요
여봐! 선량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 게야?
毒感 예방 교육이요!
선생께서도 감기 조심하셔
校內醫療室

新着圖書

山窓을 열어 놓고

<釋性愚스님 著·大邱 鳳林社 刊>

70년 「月刊文學」 신인상 수상과 71년 中央日報 新春文藝당선으로 詩壇에 나온 경북 파계사 釋性愚스님의 수필집.

수록작품은 「겨울밤 童僧과」 등 93편. 그는 이번에 묶은 글들이 모두 『體驗的 삶의 부스러기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契丹 民族發展史 研究

<金在滿著·讀書新聞社刊>

韓國史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글안(契丹)民族의 發展史에 관한 연구는 우리史學界에서 부진한 실태인데, 이번에 博士學位 論文으로 出刊됐다.

政治·經濟·軍事問題를 중심으로 한 「契丹民族發展史의 研究」는 獨自的이고 획기적인 勞作으로 평가받고 있다.

契丹史研究에 혼란을 빚게하는 中國側 史料와 契丹측史料間에 엇갈리는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 비판하고 眞意를 밝혀내 契丹史의 올바른 이해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5백부 限定版.

<中央 도서관제공>

火曜칼럼

大學의 本質

柳在燁

1438년에 세워진 英國「옥스포드」의 「All Soul College」는 단 한사람의학생도 갖지 못한 世界 단하나의 大學이었다. 이 대학은 法律과 歷史를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은 50명의학생과 두사람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대학의 유일한 일이란 바로 이 학생과 교수들에게 奬學金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대학은 英·佛戰爭때 프랑스와 싸우다 戰死한 英國人의 英靈을 위로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여기에서 全靈大學, 「All Soul College」란 명칭이 유래된 것이라고 전한다.

어느새 講義의 뒷마무리를 짓는 試驗時間表가 발표되었고 卒業班 학생들은 就職에 골머리를 싸매고, 新聞의 求人欄을 들여다 보기에 한창이다. 학교의 게시판에는 먼저 일터가 確定된 학생들을 祝賀하는 후배들의 축하벽보가 나붙어있는 것을 보게되는것도 요즘이다. K科에서몇명, M科에서 몇명등으로 姓名을 나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祝賀벽보를 보고 있으면, 대학의 교육이란 바로 이런 結果를 바란게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행히(?) 먼저 직장이 결정된 학생들은 즐거워하고 아직未定의 학생은 초조하고 기운마저 빠져버린 듯한 表情이다. 卒業과 동시에 취직이결정되어야만 그학생은 우수하고, 심지어 就職率로써 학교의 優劣을 論하는 世上에살고있는 우리로선 당연한 觀念의 소산인지 모른다.

『버트란드·럿셀』은 이런思考를 꼬집어 『大學은 직업을 위한 訓練학교가 되어있다. 그것은 교양이란것에 전연무관심한 全權主義者들에 의해서 요청되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부모님들의 生活수준에 비해서 出血이라고 말할수 밖에없는 巨額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고작 한 학기에 二個月 남짓한 강의의 혜택을 받는 우리의 형편을 「럿셀」翁이 알았다면 지금 인용한 말이 大韓民國의 대학은 例外라는 但書를 달았음직한 노릇이다.

과연 대학이란 무엇이고, 그本質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全靈大學』의 예를들지 않아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버드·스퀘어』나 『하이델베르크』의 「넥카」江邊, 그리고 파리의 「까르띠에라 뗑」의 그런 분위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앉아 學友와 談笑하며 쉴 장소만 있어도 만족한다.

진정 대학의 본질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요, 대학이 탐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장소라면 그곳에 파묻힐수 없는 선의의 우리학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우리에게 확실히 『十月은 가장 잔인한 달』임에 틀림없었다.

〈文理大·國文科〉

눈송이처럼 백합처럼

눈송이처럼 백합처럼 희고 맑게 가꾼 여인은 겨울도 마냥 행복합니다. 보다 곱게 피고 싶은 여인은 가장 좋은 화장품을 선택합니다 세계 모든 여성이 함께 쓰는 아모레 타미나 화장품은 올겨울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 줍니다.

아모레타미나 후루이드메이컵……700원
아모레타미나 나리올팩……1,000원
아모레타미나 슈퍼란크림……1,800원
아모레타미나 바블바스……1,200원
아모레타미나 보디로숀……1,200원

AMORE TAMINA
아모레 타미나 화장품

아름다움과 멋을 창조하는
태평양화학

부정 외래품 몰아내어 명랑사회 이룩하자.